

가

|일시| 2015년 4월 23일 (목) 14시~17시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주최|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올림

식순

사회: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14:00~14:05	개회	
14:05~14:25	제1주제	성폭력 피해에 관한 다양한 통념비판 권인숙(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소장)
14:25~14:45	제2주제	성폭력 피해의 극복가능성: 피해, 생존, 그리고 성장 김민정(울림 객원연구원)
14:45~15:05	제3주제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만드는 성폭력 피해의 의미 추지현(울림 객원연구원)
15:05~15:25	제4주제	생애사적 맥락에서 분석한 성폭력 피해의 의미화 유현미(울림 책임연구원)
<hr/>		
15:25~15:35	휴식	
<hr/>		
15:35~16:05	지정토론	강은영(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홍미리(여성주의 연구활동가)
16:05~16:55	종합토론	
16:55~17:00	폐회	

목차

제1주제

- 성폭력 피해에 관한 다양한 통념비판 | 11
권민숙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올림 소장)

제2주제

- 성폭력 피해의 극복가능성: 피해, 생존, 그리고 성장 | 45
김민정 (올림 객원연구원) · 양정운 (올림 연구원)

제3주제

-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만드는 성폭력 피해의 의미 | 69
추지현 (올림 객원연구원)

제4주제

- 생애사적 맥락에서 분석한 성폭력 피해의 의미화 | 113
유현미 (올림 책임연구원) · 김다미(올림 객원연구원)
-

토론

- 토론문1 | 161
강은영(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문2 | 167
김홍미리(여성주의 연구활동가)
- 부록 <설문지> | 175

성폭력 피해에 관한 다양한 통념비판

권인숙(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소장)

I. 서문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는 회복불가능 하다는 인식은 매우 보편화되어 있다. 2012년, 20세 여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감수성 예민한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성적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성적 모멸감과 수치심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고통으로 남게 되고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기 존중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¹⁾

위 판결문과 같은 인식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에서도 드러난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와 권인숙이 2011년 여대생 917명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두려움에 대한 의식조사에서 성폭력 피해의 극복 가능성에 대한 통념을 묻기 위해 “성폭력 피해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일이다”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데 43.2%가 매우 그렇다, 33.2%가 약간 그렇다로 총 76.4%가 성폭력을 씻을 수 없는 경험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권인숙·이건정 2012: 167).²⁾

치명적이고 씻을 수 없는 성폭력 피해라는 믿음 혹은 통념은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해 더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은 20여 년간 진행된 반성폭력 운동 역사에서 성폭력사건이 가장 관심을 끌었던 시기로 기록될 만하다. 이 관심은 주로 아동성폭력 사

1) 2012년 서울 중앙지방법원 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건 판결문. 사건번호: 2012-0024999441-478DD

2)

건³⁾에 대한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⁴⁾가 이어지면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친고죄 폐지 등을 끌어내는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시켰지만 죽음이나 치명적 외상으로 이어졌던 사건들에 대한 보도가 강조되면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미지나 통념도 유지, 강화되었다. 피해의 끔찍함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성폭력은 2013년 신임 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꼽히는 국가 4대악⁵⁾ 척결과제중에 의 하나로 선정될 만큼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정받고 있다.

언론의 보도만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반성폭력 운동은 성폭력 피해의 가혹함, 치명적인 상처 등을 강조해왔다. 성폭력이란 개념조차도 없던 사회에서 경각심을 높이고 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흐름이었다. 성폭력은 다른 범죄들과 달리 피해자가 (여성이) 유발했다는 ‘피해자유발론’에 대한 통념과 신화가 강하다. 한국의 경우 법적으로도 강간죄 구성에서 여성의 저항정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최협의설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반대논리로서 여성이 유발하지도 않았고 당하기를 원치도 않았으며 저항이 불가능함을 증명하려다보니 여성의 소극성과 피해의 양을 강조하는 ‘피해자화’를 극복하기 힘들었다 (이미경 2007; 장임다혜 2007).

학자들의 연구도 성폭력피해는 치명적이고 극복하기 힘들다는 사실이 당연한 전제로 주장되고 있다.

성폭력은 한 사람의 삶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는 가장 비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이다 ... 가벼운 추행으로 인한 피해든 심한 추행으로 인한 피해든, 강간의 경험이든 간에 성폭력을 경험한 모든 피해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적인 적응의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주소희, 2010: 34).

표 1 성폭력 피해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것이다

	항상 그런 편	자주 그런 편	보통이다	별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Total
Total	389 43.2%	299 33.2%	93 10.3%	71 7.9%	48 5.3%	900 100.0%

- 3) 아동성폭력 가해자인 조두순, 김길태 등은 국민적인 인지도를 가지는 이름이 되었고 2012년 9월은 나주 어린이 이웃 성폭행 사건으로 들끓었다
- 4) 신문검색사이트인 www.kinds.or.kr 에서 아동성폭력이라는 검색어를 넣었을 때 뉴스기사 수를 비교하면 2006년 1245, 2007년에는 1196건, 2008년 3932건, 2009년 4551건, 2010년에 7689건, 2011년 7492건, 2012년 9312 건이다. 최근 3년의 엄청난 보도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 5) 4대 악은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이다

더불어 성폭력 피해 여성의 피해특성을 연구한 김경운은 첫 문장을 “성폭력은 한 사람의 삶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는 가장 비도적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이다” (김경운, 2010:333) 라고 일반적인 상식으로서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단선적 이해는 여러 가지 문제를 동반한다.

첫째, 성폭력은 극복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피해라는 사회적 인식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입은 피해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요하는 2차 피해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성폭력 피해는 가해자와의 관계성과 피해자의 성가치관, 피해 당시의 심리상태, 피해의 환경, 피해 이후의 사회적 조건 모두가 다 맥락적으로 구성되는 피해이다. 성폭력은 치명적이고 극복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 통념이나 차별이 그렇게 만들고 있기도 하다.

둘째, 성폭력 피해는 치명적이고 극복하기 힘들다는 사회적 통념은 경찰이나 검찰, 법정 혹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자는 이런 모습일 거라는 특정의 상을 가지게 하고 기대하게 만든다. 이런 현상은 피해자다움의 틀을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셋째, 성폭력 피해는 치명적이고 극복할 수 없다는 통념은 피해자 권리와 보호라는 담론에서도 혼란을 낳을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를 엄청난 피해에 시달리는 약자로서 규정하는 통념이나 이해는 지나친 과보호, 혹은 모든 것을 2 차 피해로 환원하는 과도화의 경향을 낳을 수 있다. 조사나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의심이나 비난과 부정이 훨씬 더 큰 문제이지만 피해자의 약함이나 예민함만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

넷째, 성폭력은 치명적이고 극복이 힘들다는 피해의 규정은 아동이나 여성의 성폭력 두려움을 과도하게 크게 만든다. 두려움은 이들의 삶을 위축시키고 주체적 활동 범위를 제한한다. 성폭력 두려움에서 출발한 대부분의 회피행동은 시간적, 공간적, 관계적 제약을 동반하기 때문이다(Koskela, 1997; Pain, 1995; Stanko, 1995; Valentine, 1992). 또한 여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딸을 둔 어머니의 두려움을 배가시키고, 성폭력 두려움을 많이 가지면서 딸의 행동제약을 포함해 보호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어머니의 모습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김지선은 성폭력 두려움이 커질수록 어머니는 자녀의 일차적 보호자라는 사회적 성역할이 더 강화된다고 지적한다(김지선, 2006). 또한 성폭력 두려움은 남성일반에 대한 과장된 피해의식을 키우는 대신 동시에, 보호자로서 남성에 대한 의존성을 강화시켜 젠더화된 서열과 지위를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런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국 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이 수행한 연구는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대책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사회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과도하고 단선적인 사회적 통념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식에서 출발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들도 전형적인 피해자라는 틀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면서 성폭력 피해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피해담론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는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권리를 이해하는 측면의 의미도 지닌다. 성폭력 피해는 이런것이다라고 강요하지 않고 다양한 피해에 대한 반응과 경험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의 연구를 하려고 한다.

첫째, 성폭력 피해의 구성방식을 찾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성폭력 피해에서 1차 피해와 2차 피해의 영향력을 비교해보려고 한다. 성폭력 피해는 피해상황의 특이성, 가해자와의 관계성, 피해의 정도, 삽입여부 등 피해당시의 상황에도 영향을 받는다 (Ullman, Filipas, Townsend and Starzynski, 2006; 조은경 1994; 조현빈 2006). 그러나 성폭력은 피해당시의 상황이나 경험이 피해형성의 전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특수성을 지닌다. 과거나 현재의 가치관, 자기 성폭력 경험에 대한 규정 혹은 해석, 자기 비난요소의 정도가 피해경험의 특수성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영향을 미친다 (Fanflik, 2007, Moor, 2007). 2차 피해를 단순히 경찰이나 검사, 재판과정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나 주변의 반응을 포함하여 1차 피해와의 관계성을 적극적으로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피해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상담일지 분석을 통해 성폭력피해와 관련된 통념을 비판하려고 한다. 성폭력은 통념이 많은 폭력이다. 남성의 성충동은 조절할 수 없기에 피해자가 원인제공을 말아야 한다는 데서 파생된 통념으로 여성이 유혹했을 것이다. 야한 옷이 원인이다. 또는 저항하지 않았다면 여성도 원한 것이고 책임이 크다 등은 여전히 강력한 통념이다. 낯선 사람에 의한 어두운 골목길 납치 성폭행 또한 여전히 가장 전형적인 성폭력 발생하는 이미지를 구성한다. 또한 성폭력 경험은 씻을 수 없다 등의 피해에 대한 낙인적 통념도 자주 확인된다. 기존의 피해자비난을 둘러싼 통념은 비판을 많이 받아왔지만 성폭력 피해에 대한 통념은 분석도 비판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피해자들의 피해경험을 새롭게 의미화하면서 성폭력 피해 통념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비판하려고 한다.

셋째, 성폭력은 씻을 수 없거나 너무 치명적이라 삶이 많이 훼손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경험이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피해경험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거나 관계를 규정하고 새 지평을 여는 경험일 수 있다. 이

변 연구에서는 피해경험의 피해자의 삶에 미친 극복적이거나 긍정적인 요소들의 문항을 배치하였고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한 단선적인 통념을 극복해 보려고 하였다.

넷째, 연구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포함한 중층폭력의 경험을 이야기했고 피해구성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아직 한국학계에서만 아니라 반성폭력 운동에서도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검토되어 운동적 이슈로서 제기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연관성을 피해자설문조사와 생애사 분석을 통해서 새롭게 제기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상담일지 조사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일지를 통해 2005. 1. 1부터 2006. 12. 31까지 접수된 사례들 중 ‘인터넷 상담’ 즉, 이메일과 게시판 게재 형식으로 접수된 것들만을 텍스트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의 자기 서사의 특징과 주된 혼란의 지점, 그리고 이것들이 성폭력 피해 유형별로 전형성을 갖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할 때, 상담자의 개입 없이 내담자의 서사가 개방되어 있고, 감정이나 혼란이 자유롭게 나타나는 인터넷 상담 사례가 분석에 더욱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전화 상담’이나 ‘면접 상담’ 형식으로 접수된 사례들은 민, 형사 소송상의 절차 진행과 관련된 문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기관이나 합의 시 유의사항 등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적인 대화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전화 상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층적인 피해자 서사가 드러날 수 있는 면접상담의 경우 그 사례수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인터넷 상담’ 건수가 폭증하고, 심층적인 상담이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2007년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 접수를 제한하게 되는데, 때문에 사례가 풍부한 2005년, 2006년 두 해에 걸친 자료가 최종 분석 대상이 되었다. 2005년의 경우, 총 2,348건(3,979회)의 접수 상담사례 중 1,088건(27.3%), 2006년에는 총 2,468건(4,246회)의 접수 사례 중 1,295건(30.4%)이 인터넷 상담의 형태로 접수되었다.

이들 사례 중 이미 접수된 상담 사례의 진행 사항에 대한 단순한 문의, 담당자 확인 요구, 관련 기관이나 공소시효 등 특정 정보 문의 등 피해자의 구체적인 서사를 발견할

수 없는 사례들은 제외하고, 다음의 6개 카테고리의 피해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들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의 유형은 최근 성폭력 담론과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는 아동 성폭력(친족 성폭력 포함, 피해자 연령 만13세 미만)과 비면식 강간(미수 포함), 그리고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 통계를 기준으로 위 친족 이외에 성폭력 발생의 빈도가 가장 높은 직장 및 학내 성희롱(성추행 포함, 강간/미수 제외)을 포함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비가시화되어 있는 데이트 성폭력과 채팅 등 온라인을 통해 일회적 만남이 시작된 직후의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피해 당시의 주취 상태와 같이 피해자의 자기 비난 요소가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준강간(미수 포함)도 포함하였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특징이 성폭력 유형의 분류에 있어 가장 큰 기준이 되었고, 아동 성폭력과 준강간과 같이 피해 당시 피해자 상태의 특징 또한 중요한 분류 기준이 되었다. 관계성이 1차적인 유형분류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유형이 중복되는 사례는 많지 않았으나, 온라인 만남이나 데이트 관계에서 준강간이 발생한 경우는 준강간으로, 비면식 관계에서 준강간이 발생하는 경우는 비면식 강간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직장 및 학내 성폭력의 경우에는 성희롱으로 행위 양태를 국한하여 관계 및 피해 지속의 특수성을 고려하고자 하였으며, 온라인 만남 성폭력의 경우에는 스토킹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과 같은 행위는 제외하고 강간과 강간미수, 강제추행으로 그 기준을 한정하였다. 이를 통해 총 389건(이 중 피해자가 직접 상담한 사례는 347건)의 사례가 최종 분석 대상이 되었다.

2. 심층면접

생애사적 연구방법을 도입하여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생애의 다양한 요소 속에서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보고자 했다. 성폭력 피해는 유형별로 동일한 피해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여성이 생애에서 다중적 폭력의 경험과 삶의 조건, 가치관, 주변과의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피해를 구성하거나 경험할 수 있다. 이를 규명해 보기 위하여 첫 번째 만남에서는 본인이 자기 생애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2번째는 피해자가 생애속에서 성폭력 피해를 구성하는 내용 중에서 궁금하거나 더 집중적으로 논의할 부분을 묻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성폭력 피해경험자 30명을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전국의 상담소의 소개를 통해 주로 만났고, 한 사례는 부적합하여 29명의 사례만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기본적인 면접회수는 최소 2회이고, 면접자 14와 면접자 10은 추가 인터뷰가 필

요하여 각각 4번과 3번 만났다. 모든 면접은 녹취를 하였고 녹취 후 면접자의 분석을 토대로 연구 참여자 모두가 집단분석을 함께 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내용에 대해서는 두 번의 워크숍을 통해 피해의 특성과 유형분류를 하였다.

표 2 심층면접자 기본정보

사례 번호	현재 연령	피해 당시 연령	피해의 특성		준강간 여부
			가해자와의 관계	행위 유형	
1	20대 후반	유치원/아동	외삼촌	추행	○
		10세/아동	친오빠	추행(성기 노출)	
		25세/성인	소개팅남	준강간	
		27세/성인	학생운동 선배	강간미수	
2	20대 중반	23세/성인	남자친구	강간	
3	20대 중반	24세/성인	남자친구	강간미수	
4	20대 중반	25세/성인	동아리 선배	성희롱(언어)	
5	20대 중반	5세/아동	할아버지	강간(지속)	
		중1/청소년	오빠, 오빠 친구	강간	
6	20대 중반	유아~초4/아동 중2/청소년	친부	성추행→강간	
7	30대 초반	아동	외삼촌	추행	
		아동	이웃아저씨	추행	
		16세/청소년	비면식(길거리)	강간	
8	20대 중반	초1~5/아동	사촌오빠(2인)	강간	
10	30대 중반	6세/아동	동네 아저씨	성추행	
		13세/아동	비면식(길거리)	강간	
		15세/청소년	아는 사이	윤간	
11	30대 초반	32세/성인	직장 상사	추행	
12	20대 초반	19세/청소년	아는 사이	강간	-
13	20대 중반	6세/아동	동네 오빠	강간	
		9세/아동	비면식(길거리)	추행	
14	30대 초반	고1/청소년	담임 교사	강간	○
		고2/청소년	비면식(채팅남)	강간	
		고2 or 3 /청소년	비면식(길거리)	추행, 촬영	
		28세	유흥업소 사장	유사강간	

15	30대 초반	약 30세/성인	직장 동료	강간	○
		30세/성인	직장 상사	강간미수	
16	30대 중반	5-6세/아동 초등학교/아동	삼촌	추행	
		16세/ 청소년	유흥업소 사장, 손님	강간, 성매매	
		23세/ 성인	학생회 선배	준강간치상	
17	20대 중반	22세/성인	학생회 친구	준강간	○
18	20대 중반	12~13세/아동 21세/성인	의부	강간	
19	50대 초반	9세~중2/ 아동~청소년	친오빠(2인)	강간	
20	20대 중반	아동~14세/ 아동, 청소년	동네 아저씨	성추행→강간	
		14세	큰아빠	강간	
21	20대 중반	성인	비면식(길거리)	강제추행	
		성인	아는 오빠	강간	
		24세/성인	알바처 상사	준강제추행	
22	20대 후반	초2세/아동 중1세/청소년	친오빠	추행(성기 노출, 입맞춤)	
23	20대 중반	25세/성인	유흥업소 사장	추행, 강간미수	○
24	20대 후반	27세/성인	아는 사이	추행	
25	30대 초반	22세/성인	비면식(나이트클럽)	준강간	○
		약 31세/성인	비면식(길거리)	추행	
26	20대 후반	28세/성인	전 직장 선배	준강간	○
27	20대 초반	22세/성인	친구	추행	
28	30대 중반	10세/아동	비면식(2인)	강간	
29	20대 초반	약 22세/성인	남자친구	강간, 스토킹	

3. 성폭력 피해자 설문조사

성폭력피해에 대해 다양한 피해자들의 피해경험을 분석하고 성폭력피해 통념이 피해구성에 미치는 영향과 유형별 특징 등을 찾아보기 위해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도움과 포스터, 온라인광고와 지인들의 소개 등을 통해 대상자를 구했고 총 235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피해를 나누어 성폭력 경험의 유무를 일단 검토하였고, 한 번이상의 성폭력경험자가 다수 있을 것을 예상하여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성폭력 피해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피해가 다양한 경우 가장 힘들었던 사건 하나를 떠올려 답해주십시오” 라는 질문을 하여, 이를 통해서 유형분류를 하고 피해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한 기본 결과 값은 다음과 같다.

표 3 가장 힘들었던 성폭력의 피해유형(행위양태별)

		빈도	퍼센트
유효	강간기수	70	29.8
	강간미수	17	7.2
	유사강간	24	10.2
	준강간기수	23	9.8
	준강간미수	10	4.3
	강제추행	52	22.1
	스토킹	4	1.7
	통신매체이용음란	3	1.3
	성희롱	8	3.4
	기타	1	.4
	합계	212	90.2
결측	시스템결측값	23	9.8
합계		235	100.0

* 성폭력 트라우마 지수-이 연구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를 측정한 연구인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이하 DSM)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포괄하되, 성폭력 피해 후 성과 관련된 행동, 인지, 감수성의 변화를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항들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설문조사 이전에 시행된 성폭력 피해자 심층면담을 분석하여 총 18문항으로 구성된 성폭력 트라우마 척도를 개발하였다. 성폭력 트라우마 척도는 성과 관련된 심리의 변화 외에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종종 보고하는 자기비난, 자기 혐오감, 자기 불확신감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여 성폭력 피해가 가지는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하였다.

4. 성폭력 피해 지원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심층면접을 준비하고 설문조사의 문항을 마련하는데 기초적인 조사로서 2013년 12월 10일 성폭력 상담을 오랫동안 해온 몇 기관의 상담사나 활동가들을 만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였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유형에 따른 피해 특성과, 사회에서 기대하는 피해와 실제 피해자들의 피해와의 차이, 사회의 피해에 대한 통념이 이들의 피해자로서의 정체성 혹은 피해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표 4

상담자 1	경찰관련 피해자심리전문요원, 피해자 관련 상담지원
상담자 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근무
상담자 3	아동 성폭력 관련 기관 상담사
상담자 4	대학 성폭력상담센터 상담원
상담자 5	성폭력 상담소 상담팀 활동가

Ⅲ. 성폭력피해에 대한 통념 비판

1. 서론

성폭력에는 다양한 통념이 존재한다. 한국성폭력 상담소가 반성폭력운동을 위해 기존에 규정한 성폭력 통념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은 나와 무관한 일이다.
2.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게 의해서 발생한다.
3.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이상자이다.
4. 여자들이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다.
5.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하다.
6. 성적인 접촉이 아니라면 성폭력이 아니다.
7. 침묵은 사실상 동의 아닌가.
8. 밤늦게 까지 술먹은 것은 동의 아닌가.
9. 단 한번뿐이었으므로 성폭력이 아니다.
10.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었다.
11.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 성폭력을 유발한다.
12. 남성 성충동은 억제할 수 없다.

기존의 성폭력 통념은 성폭력 발생과 관련된 통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가해자를 극단적인 괴물로 분리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하기 위해 가해동기를 본능적이라고 이해하거나 혹은 성폭력을 자연스러운 남성의 행위로 인정하면서 성폭력 발생 사실을 피해자 탓으로 비난하는 논리를 비판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 통념은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가치를 사회가 평가하거나 성폭력이란 범죄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일방적인 잣대로 규정하는 것들이다. 성폭력 경험의 피해를 기존의 순결주의적 가치관이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논리에서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한 성폭력이 증거나 증인이 부족한 특성을 이유로 혹은 평소 행실 등을 이유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나 피해자라는 정체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의 성폭력 피해 통념도 포함된다. 피해자로서 인정하지 않는 주변이나 공동체의 반응은 성폭력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경우를 심층면접에서 자주 나타났고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통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피해자에 대한 불인정이나 비난 논리

1. 너도 사실 그 당시에는 즐겼을 수도 있다.
2. 성폭력을 당하는 사람은 평소 성관계가 난잡하거나 문제가 있는 여자이다
3. 네가 과도하게 예민해서 피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4. 상대방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네가 그 사람의 진심을 오해했을 수도 있다.
5. 여자들은 상대에 대한 보복심 때문에 혹은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으로 성폭력 신고를 하기도 한다.

* 순결주의, 혹은 상품적 가치로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의 가치평가

1. 성폭력을 당한 여자의 몸은 더럽혀진 것이다.
2. 너는 성폭력을 당했으니 앞으로 연애나 결혼을 하기가 힘들 것이다.
3. 여러 성폭력 중 성기 삽입의 강간이 가장 심각한 피해이다.
4. 너의 성폭력 피해를 공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 성폭력에 대한 일방적이면서 과도한 피해규정

1. 너는 성폭력을 당했으니 인생 망친 것이나 다름없다.
2. 성폭력은 당했다는 것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이다.
3. 성폭력을 당한 사람은 수치심과 자책감에 시달릴 것이다.

반성폭력 운동에서 주로 비판해온 기존의 성폭력 통념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에 대한 통념도 피해자들이 피해상황을 평가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반응이나 형사사법적 과정에서 노골적 혹은 언어적 형태로 혹은 암묵적, 상식이란 이름하에 영향을 미친다. 성폭력 피해 통념의 문제를 알리고 통념을 형성하는 중요한 논리를 비판하는 것이 이번 장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밝히려 한 부분은 성폭력 피해에서 이러한 통념이 상당히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성폭력 피해통념일 뿐만 아니라 가장 영향력 있는 성폭력 통념이고 성폭력 공포의 핵심인 모르는 사람(비면식)에 의한 성폭력의 영향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다. 이와 함께 순결주의나 상품화된 여성의 성에 대한 가치관의 영향으로 성폭력의 피해를 성기 삽입 여부만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는 기존의 통념을 비판하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와 상담일지 분석을 하였다.

2. 성폭력 피해는 결국 2차 피해가 더 지배적이다.

1) 1차 피해와 2차 피해에 대한 개념 규정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경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성폭력 피해는 대부분 사회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성폭력 발생의 원인이나 결과를 비난하면서 성폭력 피해는 이런 것이다, 혹은 성폭력 피해자의 삶은 이렇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통념 혹은 가치관이 만든 피해라는 것이다.

이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1차 피해와 2차 피해로 분류해 보고자 한다. 미야자와(1999)는 범죄피해를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1차 피해는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범죄나 위법행위 등에 의해 직접적으로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2차 피해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거기에 관계된 사법기관, 가족, 친구, 언론, 여론 등의 소문이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 의해서 피해자가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받는 것을 말한다. 즉, 피해자를 비난하고 의심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문제를 포괄하여 2차 피해로 보고 있다. 3차 피해는 피해자가 1, 2차 피해를 입고 적절하게 치유 받지 못해 반사회적, 비사회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⁶⁾

6) 3차 피해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가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9살 때 자신을 강간한 이웃집 아저씨를 21년이 지나 살해한 김** 사건을 들 수 있다. 1991년 발생한 이 사건은 성폭력 피해로 인한 고통과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 지, 왜 피해자가 극단적인 형태의 살인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등 우리사회에

이중 2차 피해는 학자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범죄피해 후 피해자가 2차적으로 겪는 고통과 불이익으로 정의된다. 유럽연합은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권리선언(1996)」에서 2차 피해를 “피해자의 고통을 증가시키거나 피해자의 문제를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포괄적인 정의를 하고 있다.⁷⁾

성폭력과 관련 1차 피해를 생각한다면 성폭력 경험 그 자체에서 파생되는 피해, 예를 들어 신체적 상해나 경제적, 직업적 손해, 신체적 후유증, 공포와 혼란 등이다. 2차 피해는 형사법절차상에서 2차적으로 겪는 불이익과 고통에 더하여서 원인제공이나 결과에 대한 기존의 피해자 비난논리와 성폭력에 대한 주변과 사회의 가치관과 통념에 의한 판단, 평가, 반응과 행동이 초래하는 피해를 의미한다. 성폭력피해 경험에서 자기비난은 1차 피해와 2차 피해가 경합할 수 있는 특수성을 지닌다. 상황자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자기 비난은 다른 범죄에서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인 특성이 있으나, 성폭력의 경우는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통념적 비난논리가 뿌리 깊어 통념의 내면화의 영향이 자기 비난에 섞여서 나타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성폭력의 1차 피해와 2차 피해를 분류해서 그 상관성을 분석하는 시도는 별로 이루어져오지 않았다. 성폭력 피해연구라는 이름으로 피해자 비난과 성폭력 통념적 가치관이 배여 있는 2차 피해가 1차 피해에 섞여 이루어져왔고, 2차 피해는 주로 형사사법절차상의 피해로 특화되어 왔다. 형사사법절차는 피해자에게나 공공의 이해를 위해 중요한 과정이고 2차 피해가 명확하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의 문제의식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이나 수사의지 결여,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

많은 충격과 과제를 던져주었다.

7) 성폭력 2차 피해와 비슷한 맥락에서 ‘2차 가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2차 가해는 성폭력에 대해 자신의 통념이나 인식의 성찰 없이 판단하거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으로 ‘객관성’으로 포장한 가부장적 시선으로 성폭력 사건을 해석하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로 사용된다(한국여성민우회, 2011: 81). 노조나 단체들에서 이를 규정으로 정하여 금지하고 있다(조지영, 2011: 109). 즉, 민주노총에서는 “2차 가해라 함은 사건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제3자에 의해 피해자를 부당하게 추궁하거나 특정한 행동 또는 발언을 강요하는 행동 등으로 피해자에게 이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한다(「성폭력·폭언·폭행 금지 및 처벌규정」제2조). 금속노조의 경우, “2차 가해란 가해자 또는 제3자가 정신적인 압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또는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로서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가해자에 동조하는 언동, 사건을 축소·은폐·왜곡하기 위한 언동, 피해자를 음해하는 언동 등 피해자에게 재차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규정」, 제2조)”. 즉, 좀 더 구체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왜곡하기 위한 언동, 피해자를 음해하는 언동까지를 2차 가해로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2차 가해라는 용어는 행위자의 규제에 초점을 맞춰 논의되고 있으며, 내용면에서는 2차 피해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념, 그리고 대법원이 취하는 강간죄에 관한 최협의의 폭행, 협박설 등으로 인한 불기소나 무죄판결이 낳은 피해를 중심으로 보고 있다 (이미경 2011).

그러나 형사사법절차에 초점이 맞추어진 피해연구는 성폭력 피해가 이루어지는 다원적 현실을 한정적으로 이해하는 한계를 지닌다. 성폭력은 피해자에 대한 비난논리나 피해에 대한 사회적 규정이 강한 경험이며 이는 형사사법절차에만 한정되어서 나타날 수 없고 피해자의 2차 피해적 경험도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현실을 다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이루어진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의 연구는 1차 피해와 2차 피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피해의 특성이나 상관성을 밝히기 보다는 육체적 상흔이 없는 경우가 많은 성폭력이 왜 중요하고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있는 문제인가를 증명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왔다. 즉 얼마나 힘들고 치명적인가를 밝히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아동성폭력 피해연구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구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이다. 다른 어떤 경우보다도 성폭력 경험이 인성, 정서적 발달과 행동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사회의 관심이나 책임이 큰 영역이기 때문이다 (Reynolds and Birkimer, 2002; Krienert and Walsh, 2011; Guelzow, Cornett and Dougherty, 2002; 정국, 2012). 한국은 아동의 피해경험을 밝히는 기초적인 연구가 주로 나오고 있다 (현혜순, 1997; 김정규, 김중술, 2000; 유수진, 2003; 주소희 2009; 신기숙, 2011). 다른 피해 연구도 피해증상 혹은 피해후유증을 규명하는데 초점이 가있다 (현혜순, 1997; 김일옥 1997; 신기숙, 2011; 김정규, 김중술, 2000; 조은경 1994; 조현빈 2006) 등이 있다. 대체로 수치심, 죄책감, 불안, 폭로에 대한 두려움 등 예상 가능한 피해를 드러내거나 조현빈의 경우는 초기 반응, 장기 반응 등을 유형화하고 있다⁸⁾. 공수자·이정숙의 연구는 강간 경험 후 응급 피임 등 때문에 상담소에 들른 9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피해경험도 초기의 혼란과 막막함, 죄의식, 상처 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주로 1차 피해적 피해경험이라고 상정되는 부분이다. 피해경험의 여덟 개의 유형화를 보면 1)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주체할 수 없어서 죽고 싶어 함 2) 성폭력 사건이 재발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조마조마 함 3) 성폭력 기억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고통스러움 4)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도움을 구하지 못해 답답하고 막막함 5)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에 대한 걱정으로 애를 태움 6) 병원, 성폭력 상담소, 경찰서에서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오름 7) 성폭력 가해자와 주변사람들에 대한 원망스러움과 섭섭함 8) 돌이키지 못하는 일에 대한 자책 (2004: 60)이다. 그러나 초기 반응이라고 하더라도 1), 2),

8)

3), 5)등을 제외하고 이번 연구의 기준에 따른 2차 피해로 분류하자면 4), 6), 7) 등이다.

8)의 자기비난은 1차 피해와 2차 피해가 경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술이나 저항여부, 상황판단의 부분은 사건 발생에 대한 자기 분석이 들어가 있어 경험자체의 느낌이나 상황에 의해서 지배받을 수도 있지만 왜 술을 먹었는가, 저항을 하지 못한 것에 형사, 사법절차상에서의 평가, 혹은 경험에 대한 주변이나 사회적 평가와 결합하거나 경합할 수 있다. 그리고 1차 피해적인 사건직후의 두려움, 자살욕구등에 이미 피해자 자신의 성폭력 통념이나 가치관, 주변반응에 대한 사전적 인지 등이 들어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성폭력피해는 1차 피해와 2차 피해가 주체적으로,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얽혀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분리해서 분석해보는 것은 성폭력의 피해통념이 성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이 복잡한 지점을 보다 섬세하게 잘 이해하고 분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존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단선적 통념의 틀을 깨는데 중요한 작업이다.

피해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은 확인된다.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귀하는 성폭력 피해가 다른(범죄)피해와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피해자들은 성폭력이 다른 범죄와의 차이가 있다고 한 비율이 80.4%로서 절대 다수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이유를 묻는 문항은 “성병이나 임신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 를 제외하면 대체로 2차 피해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서 1차 피해와 2차 피해의 관계성을 드러내는 문항으로 적합성은 떨어진다. 그러나 5점 척도로 환산했을 때 동의정도는 성폭력에서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한 피해자들의 생각을 확인할 수는 있게 한다.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피해자가 비난받기 쉬워서” (3.86), “피해를 증명하기 어려워져서” , (3.86), “성병이나 임신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 (3.61) 이다. 평균 3점이 넘는 것을 보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 다닐 것 같아서” (3.43), “피해자 인생을 평생 망치는 것이어서” (3.27), “결혼, 연애 등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3.27)로 이것이 본인의 가치관이든 아니면 주변사람들의 반응이나 사회적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든 성폭력에 대한 사회통념적 가치관이 기본적으로 영향을 행사한 요소가 분명한 대부분 2차 피해에 대해 높은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 다닐 것 같아서” 나 “피해자 인생을 평생 망치는 것이어서” 에 3점 이상의 높은 동의를 보였다는 것은 성폭력 피해의 낙인적 상식 혹은 가치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성폭력피해에서 2차 피해의 의미를 다시 진단하는 것이 필요한 과정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본다.

표 5 차이 있다고 응답한 피해자들의 차이에 대한 동의 정도(5점 척도)

	N	평균	표준편차
결혼, 연애 등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180	3.27	1.249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180	2.06	1.045
피해자가 비난받기 쉬어서	183	3.86	1.138
피해를 증명하기 어려워서	183	3.86	1.118
성병이나 임신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	182	3.61	1.055
순결을 잃게 되기 때문에	181	2.75	1.304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 다닐 것 같아서	182	3.43	1.276
피해자 인생을 평생 망치는 것이어서	182	3.27	1.244

2) 2차 피해의 피해 정도

2차 피해를 어느 정도로 경험했는가를 알기 위해 성폭력피해 통념을 경험한 질문과 원망하는 사람이나 기관과 원망의 내용을 조사했다. 성폭력 통념에 관해서는 “다음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주변사람들이 귀하가 경험한 성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대한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과 함께 경험여부에 대한 가부 표시를 하게 하였다. 이 표를 보면 가장 높은 비율로 경험한 것은 “네가 피해사실을 주변사람에게 알려줘야 너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 (61.9%)로 성폭력 피해자를 대하는 주변 사람들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거나, 성폭력과 연관된 피해경험은 본인 이미지나 삶, 혹은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사회인식을 담고 있는 통념적 반응의 경험이다. 비슷하지만 왜 이롭지 않은지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더 분명하게 담긴 “피해를 공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라고 주변반응을 느낀 비율이 53.7%로 두 번째 높은 항목이다. 다음으로 40%를 넘는 항목을 보면 성폭력 경험에 대해 사회적인 평가가 노골적으로 배여 있다. “네가 남자에게 만만해 보였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49.1%)라며 피해자의 평소행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책임을 묻는 비난적 요소도 높은 비율로 경험하고 있다.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이다” 며 경험극복의 가능성을 믿지 않거나 어느 정도 극복하더라도 엄청난 상흔으로 영원히 괴로움을 당하고 살 것이라는 낙인 수준의 피해에 대한 강도가 센 규정의 경험도 48.6%에 이르고 있다. “성폭력을 당한 사람은 수치심과 자책감에 시달릴 것이다” 라는 앞의 부끄러움의 항목이나 남에게 알리는 것이 이로울 것이 없다는 항목과 비슷한 맥락에 있는 주변반응을 느낀 경험도 47.7%에 이른다.

표 6 경험했던 성폭력 통념

	긍정한 수	케이스 퍼센트
1. 단 한 번도 주변사람들에게 피해사실을 말해 본적이 없다.	52	23.9%
2. 남자가 성욕을 통제하기 못해서 실수를 한 것이다.	79	36.2%
3. 내가 끝까지 저항했다면 성폭력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69	31.7%
4. 성폭력을 내가 유혹하거나 유발한 면이 있다.	58	26.6%
5. 내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한 것은 성관계를 허용했다는 뜻이다.	51	23.4%
6. 내가 모텔이나 집안에 함께 들어간 것은 성관계를 허용했다는 의사표시이다.	73	33.5%
7. 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이나 강간당했다면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	68	31.2%
8. 내가 남자에게 만만해 보였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107	49.1%
9. 너도 사실 그 당시에는 즐거울 수도 있다.	48	22.0%
10. 성폭력을 당하는 사람은 평소 성관계가 난잡하거나 문제가 있는 여자이다.	38	17.4%
11. 내가 과도하게 예민해서 피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80	36.7%
12. 상대방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가 그 사람의 진심을 오해했을 수도 있다.	47	21.6%
13. 여자들은 상대에 대한 보복심 때문에 혹은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으로 성폭력 신고를 하기도 한다.	25	11.5%
14. 성폭력을 당한 여자의 몸은 더럽혀진 것이다.	61	28.0%
15.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이다.	106	48.6%
16. 성폭력을 당한 사람은 수치심과 자책감에 시달릴 것이다.	104	47.7%
17. 너는 성폭력을 당했으니 인생 망친 것이나 다름없다.	57	26.1%
18. 너는 성폭력을 당했으니 앞으로 연애나 결혼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56	25.7%
19. 여러 성폭력 중 성기 삽입의 강간이 가장 심각한 피해이다.	82	37.6%
20. 내가 피해사실을 주변사람에게 알려줘야 너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	135	61.9%
21. 너의 성폭력 피해를 공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117	53.7%
합계	1513	694.0%

3) 수치심과 자기비난에서 확인되는 2차 피해

수치심과 자기비난은 성폭력 경험과 관련해 1차 피해와 2차 피해적 요소가 겹쳐져서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자기 비난의 경우 한국 성폭력 상담일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표 7 상담일지상의 피해자의 자기비난요소(총 389건 중의 사례)

	내용	빈도 (건수)
행위적 자기비난	완강히 저항/대응하지 못해서	47
	술을 마셔서	31
	가해자를 따라 그곳(술자리, 여관, 차)에 가서	20
	가해자의 성행위 요구에 따라서	17
	결혼하겠다는 그 사람의 말을 믿어서	11
	상대방을 쉽게 믿은 것 같아서/속은 것 같아서	10
	즉시 증거보존을 해놓지 못해서	9
기질적 자기비난	성적쾌락을 알아서	10
	내가 성적 매력을 풍겨서 남성들을 도발함	2

성폭력은 아는 관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관계의 특성이나 상호성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데이트 성폭력 같은 경우는 성적인 긴장 등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등 복잡한 요소가 얽혀있다. 특히 친밀하게 알거나 인사고과의 평가주체이거나 혹은 장기적으로 같이 일을 해야 하는 직장상사와의 관계 같은 권력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는 관계에서 피해자가 성폭력 이전 이후의 행동을 오직 성폭력 예방만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성폭력이 일어나면 이 복잡한 고려와 판단의 요소는 사라지고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떠한 야 하는가에 대한 X O식 의 판단만을 하게 되어 수많은 후회할 지점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성폭력은 대부분의 다른 범죄와는 달리 가해자가 느껴야 할 도덕적 가치적 비판이나 비난을 피해자가 받게 된다. 피해자라는 정체성이 서기 이전에 더럽혀졌다는 사회적 가치에 영향을 받아 자신을 평가절하 하는 시선이 이미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높기에 부당한 수준의 자기비난은 더욱 힘을 가지게 된다. 즉 행위적 자기비난의 많은 내용이 실제로 성폭력을 경험하면서 동반되는 육체적 정신적 부작용을 떠나서 이미 사회가치 평가적 요소를 많이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기질적 자기비난을 보면 남성과의 관계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 발현에 대한 거부감과 도덕적 비난이 이미 내재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서 문제를 삼기도 하는 아동성폭력 사건을 제외하면 성폭력 경험이후 시간이 많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상담을 담은 상담일지의 심리적 측면을 정리한 사항을 보면 성폭력에서 시작부터 1차 피해는 2차 피해와 분리되어서 존재하기 힘든 측면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상담일지상의 심리적 피해요소와 빈도 (총 389건 중의 사례)

분류	빈도 (건수)	소분류	빈도 (건수)
기타 두려움	242	가해자가 해코지 할까봐, 회사에서 불이익 받을까봐	33
		주변에서 나의 행실을 비난 할까봐(실제 비난받음 포함)	32
		세상에 알려질까 봐	51
		부모님이 알까봐(화낼까봐)	25
		신랑/남자친구가 알까봐(화낼까봐)	17
		혼전성교사실이 알려질까 봐	6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관계가 나빠질까봐	17
		향후 결혼 등 정상적인 삶이 어려울까봐/현재 남성혐오로 그런 부분 어려움/장래 남편에게 미안함	47
임신, 성병 등에 대한 두려움	14		
무기력	104	죽고 싶음, 우울, 답답	104
부끄러움, 수치	101	부끄러움, (just)수치스러움, 스스로 한심함	101
순결상실	78	순결 상실, 타락, 더러움/ 혹은 그런 평가를 실제 받음	55
		성이 더럽게 느껴짐, 성적 접촉을 혐오함, 성적 욕망 부정, 남성혐오	23
미안함	73	부모님께 피해가 될까봐	13
		남편에게 미안함	7
		남자친구에게 미안함	7
		부모님이 마음아파 할까봐/해서	46
모욕감	61	모욕감,	61
성적 수치심	57	성적 수치심	57
혼란	55	나는 괜찮은데 성폭력 피해는 치유되어야 하는 거라고들 해서	3
		우울, 혼란상태에서 빠져오지 못하는 이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기도함.	1
		나의 상태를 잘 모르겠음. 치유된 것 같은 생각이 착각인지.	2
		성폭력 여부를 잘 모르겠음(가해자가 날 이용한 건지, 사랑한 건지)	8
		성폭력 여부를 잘 모르겠음(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음. 술)	3
		나만 예민하게 성폭력을 인지한 것 같아서/나만 예민하다고들 해서	11
		가해자(가족)를 신고하면 세상(가족제외)이 나를 비난할까봐/비난함	3
		신고하면 가정의 평화가 깨질까봐	8
		가해자(가족)을 신고하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을까봐/외면당함	3
		신고하면 가해자에게 미안해서/미안함	6
가해자를 사랑해서(가해자에 대한 동정, 애정)	7		

절망	55	평생 씻지 못할, 끔찍한 기억, 인생이 망가짐, 늘 불행할거 같음, 인생포기	42
		버린 몸이라, 자포자기 하여 가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려 함	5
		몸을 막 굴리고 싶어짐	8
몸에 대한 느낌과 증상	42	허리 아래가 더러움	2
		자궁 쪽이 계속 아픔	5
		가해자를 보면 (생각하면) 역겹고 속이 메스꺼움	19
		장래 자궁을 드러내야 하고, 성적 무감각해질 것에 대한 불안(과도한 건강 집착)	8
		기타 신체증상, 불면증, 탈수, 구토 등 체화된 증상	8
회피	39	빨리 결혼해서 상황을 벗어나고 싶음	1
		처벌받게 하고 다 잊고 싶음(단순처벌 제외)	12
		그냥 잊으려 애씀	26
답답함, 원망	22	사실을 주변에 알려도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거라고 해서. 믿어주지 않음	13
		내 상황을 들은 부모님이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아서	9
극복의지	20	잘 대처해서 극복하고 싶음	20
주변 의식	16	주변에서 내 이야기만하는 것 같음,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음	13
		주변에서 날 동정할 것 같음	3

심리적 피해현상을 정리해보면 가장 빈도가 높은 두려움, 미안함, 모욕감, 성적 수치심, 절망, 회피 등 거의 대부분이 경험자체에서 연유한다기 보다는 성폭력에 대한 주변반응이나 이미 가치관으로 내재했던 통념에 지배받고 있는 것이 명확해진다. 몸에 대한 느낌정도가 1차 피해적 요소를 많이 담고 있지만 장래 자궁을 드러내야 한다거나 허리 아래의 더러움은 성폭력을 통해서 몸이 더러워졌다는 가치 평가적 요소가 많이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피해자 비난이 높은 준강간이나 성인 여성피해자가 경험하는 2차 피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벌어지는 간음이나 추행 등의 범죄를 말하는 준강간은 주로 술 먹고 의식불명상태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데이트 폭력이나 공동체 폭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이다. 준강간의 경우 성인여성에게 가장 활발하게 발생하는 범죄의 하나로서 2014년 한국성폭력 상담소의 상담통계를 보더라도 전체 상담의 7.1%이고 성인여성도 경험하는 강간 및 강간미수 사건에서 약 31%를 차지할 정도로 발생비율이 높다. 상담일지 상에서도 술에 대한 이야기는 자기비난의 요소로서 자주 등장한다. 설문조사에서도 준강간의 경우 다른 성폭력 피해유형보다 피해자의 원인제공을 비난하는 주변반응의 경험이 통계상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다. “네가 유혹하거나 유발한 면이 있다”, “네가 키스나 애무를 허

용한 것은 성관계를 허용했다는 뜻이다” , “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이나 강간당했다면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 등의 문항에 대한 결과를 보면 준강간에서 높게 나타난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심한 “성폭력을 당하는 사람은 평소 성관계가 난잡하거나 문제가 있는 여자이다” 라는 것도 준강간의 경우 통계상 유의미하게 다른 성폭력 유형보다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피해특성(준강간 여부)별 통념 경험(이하에서는 유의한 결과만 제시)

교차표

		준강간여부		
		해당 없음	해당있음	
성폭력은 내가 유혹한 거나 유발한 면이 있다	아니다	120	34	6.218*
		77.9%	22.1%	
	그렇다	34	22	
		60.7%	39.3%	
전체		154	56	
		73.3%	26.7%	

* p < .05, ** p < .01, *** p < .001

표 10 피해특성(준강간 여부)별 통념 경험

교차표

		준강간여부		
		해당없음	해당있음	
내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한 것은 성관계를 허용했다는 뜻이다.	아니다	125	37	4.900*
		77.2%	22.8%	
	그렇다	30	19	
		61.2%	38.8%	
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이나 강간당했다면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	아니다	119	26	17.623***
		82.1%	17.9%	
	그렇다	36	30	
		54.5%	45.5%	
성폭력을 당하는 사람은 평소 성관계가 난잡하거나 문제가 있는 여자이다.	아니다	134	40	6.420*
		77.0%	23.0%	
	그렇다	21	16	
		56.8%	43.2%	

* p < .05, ** p < .01, *** p < .001

준강간뿐만 아니라 비슷한 현상은 성인여성피해자 일반에게 확인된다. 성폭력 피해자가 경험하는 주변의 성폭력 통념을 보면 성인여성에게 특별히 집중되는 몇 가지 항목이 있다.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성폭력이 성인기였던 피해자들의 경우에 "남자가 성욕을 통제하지 못해 실수한 것이다"라며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관대한 관점을 요구하는 통념 경험 비율이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11 성인기 피해여부에 따른 통념경험차이

		성인기피해		전체	x2
		없음	있음		
남자가 성욕을 통제하기 못해서 실수를 한 것이다.	아니다	40	101	141	5.932*
		78.4%	59.8%	64.1%	
	그렇다	11	68	79	
		21.6%	40.2%	35.9%	

* p < .05, ** p < .01, *** p < .001

또 다른 측면에서 준강간과 비슷하게 피해자를 비난하는 측면이 성인기의 성폭력을 가장 힘든 경험으로 뽑았던 여성피해자집단에서 더 높았고, 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네가 유혹하거나 유발한 측면이 있다", "술에 취한 상태해서 피해를 봤다면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 "네가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의 항목이다.

표 12 가장 힘들었던 피해경험이 성인기인지 여부에 따른 통념경험차이

		가장 힘든 피해, 성인기 피해		전체	
		아님	맞음		
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이나 강간당했다면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	아니다	98	49	147	5.344*
		74.8%	59.8%	69.0%	
	그렇다	33	33	66	
		25.2%	40.2%	31.0%	
네가 남자에게 만만해 보였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아니다	74	34	108	4.555*
		56.5%	41.5%	50.7%	
	그렇다	57	48	105	
		43.5%	58.5%	49.3%	

* p < .05, ** p < .01, *** p < .001

성인여성의 경우 유형별 특성과 무관하게 피해자 비난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이나 청소년 피해의 경우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책임성을 덜 물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자면 준강간이나 성인기 여성이 주변의 부정적 의심이나 비난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성폭력 피해에 대한 트라우마 검사 측정에서도 일관되게 발견된다.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경험을 묻는 질문 이후 “당시 귀하는 스스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거나 느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18가지 심리적, 육체적 피해 증상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표 13 피해 후 경험한 성폭력 트라우마 (5점 척도)

	N	평균	표준편차
1.나는 다른 사람과 성적인 접촉이 두렵고 싫었던 적이 있다.	229	3.92	1.029
2.나는 성이 더럽게 느껴졌다.	230	3.58	1.208
3.성욕을 느끼는 내가 싫었던 적이 있다.	229	3.34	1.269
4.성욕이 잘 느껴지지 않았던 적이 있다	229	3.35	1.271
5.피해 당시 성적 느낌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죄책감이 들었던 적이 있다	230	3.02	1.417
6.나는 애인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워 눈치를 본 적이 있다.	226	3.07	1.430
7.나는 성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이전보다 더 자주 한 적이 있다	230	2.83	1.372
8.남자들이 무섭고 되도록 피하고 싶었던 적이 있다.	230	3.79	1.233
9.성폭력 사실을 잊기 위해 술이나 담배, 약물들을 이용한 적이 있다.	231	2.76	1.478
10.성폭력 이후 불면증, 식욕저하 혹은 폭식증이나 거식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	231	3.50	1.459
11.자살/자해를 시도했던 적이 있다.	227	2.78	1.398
12.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다	231	3.64	1.315
13.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나 자신이 한심했던 적이 있다.	231	4.30	3.721
14.그런 일을 겪어도 멀쩡하게 살아 있는 내 자신이 혐오스러웠던 적이 있다	230	2.93	1.420
15.기분 변화가 심하고 기분 조절이 되지 않았던 적이 있다.	231	3.92	1.171
16.어떤 이를 믿어도 되고 안 되는지를 모르고 혼란스러워졌다	230	3.88	1.180
17.나의 판단력, 상황통제력에 대해 자신이 없어졌다.	232	3.77	1.183
18.내가 귀하게 생각되지 않아 상대방이 함부로 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231	2.87	1.348
유효수	221		

성폭력 트라우마가 높을수록 성폭력에 대한 통념적 주변반응의 경험도 높다는 결과이다. 즉 2차 피해적인 요소라고 규정짓고 있는 부분을 많이 경험할수록 성폭력 트라우마도 높아진다. 피해자 비난을 많이 하고 성폭력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우며 극복하기 힘들다고 낙인찍은 주변사람의 반응에 대한 경험이 높을수록 성폭력 트라우마도 높게 나타난다. 아래 표에 보면 다양한 변수를 넣어서 확인을 했지만 어느 시기에 폭력이 일어났는가 혹은 도움을 요청했는가 등의 요소는 성폭력 트라우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은 영향을 미쳤으나 다른 변수들을 넣으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사라지는데 유일하게 유의미한 변수로서 확인되는 것은 성폭력에 대한 부정적, 낙인적 주변반응이다. 연령, 학력, 소득 혹은 가정폭력 변수까지 넣었을 때도 계속 성폭력트라우마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확인된다. 상담일지 상에서도 확인했지만 2차 피해가 결국 성폭력 피해를 중요하게 구성하는 것임을 드러내는 결과이다.

표 14 성폭력 트라우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2	3	4
	β			
아동기피해경험유무	.021	-.016	-.009	-.060
청소년기피해유무	.111	.039	.019	-.041
성인기피해유무	.119	.085	.125	.105
도움요청유무	-.094	-.125	-.135	-.096
대응 없음	.232**	.152	.148	.130
성통념지수		.067	.067	.036
성폭력통념경험_지수		.214*	.219*	.206*
주변반응_도움		.050	.044	.022
주변반응_원망		.215*	.200*	.132
연령			-.075	-.120
학력			.000	.043
소득			-.059	-.031
가폭1_언어				-.093
가폭1_물리적				.170
가폭1_방임				.172
R2	.54	.180	.188	.235

* p < .05, ** p < .01, *** p < .001

성폭력에 대한 통념적 주변반응과 함께 나타난 중요한 결과는 주변사람이나 기관에 대해 원망이 높을수록 성폭력 트라우마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가장 원망스러웠던 사람 혹은 기관을 묻은 후 어떤 점이 힘든가를 척도 평가방식으로 물었다. 이 원망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성폭력트라우마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폭력 변수를 넣기 전까지는 계속 성폭력트라우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성폭력 트라우마는 주변의 비난적 낙인적 반응이나 구체적으로 성폭력을 경험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기관들의 반응에 대한 원망스러운 감정이나 평가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두 가지 다 2차 피해적 요소의 규정적 힘을 보여준다.

주변사람들의 반응과 원망과의 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를 100%로 봤을 때 엄마(24.0%), 아빠 (11.6%), 다른 가족 (6.4%)로 42%를 구성해 가까운 가족의 반응이나 태도가 가장 원망스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친한 학교, 선후배(10.5%), 직장 상사 혹은 동료 (7.1%), 애인 (3.0%)로 이를 합치면 60%를 넘어 주변의 가까운 관계를 중심으로 원망스럽고 서운한 일이 형성되는 성폭력 경험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기관으로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곳은 경찰 등의 기관으로서 10.1%로서 우리가 2차 피해를 주로 논하는 형사사법기관의 문제도 피해구성에서 중요함을 확인하게 한다.

표 15 가장 원망스러운 사람 빈도

		N	퍼센트
가장 원망스러운 사람	없다(가해자 외)	10	3.7%
	엄마	64	24.0%
	아빠	31	11.6%
	다른 가족	17	6.4%
	친구, 학교 선후배	28	10.5%
	직장상사 혹은 동료	19	7.1%
	애인	8	3.0%
	교사, 교수	9	3.4%
	종교인	8	3.0%
	경찰 등 공공기관	27	10.1%
	민간법률기관	6	2.2%
	상담소	6	2.2%
	병원 등 진료기관	1	.4%
	가해자측주변인(변호사, 가족)	7	2.6%
	세상, 인터넷, 불특정다수	2	.7%
	나	10	3.7%
	가해자	14	5.2%
	합계	267	100.0%

주변사람과의 관계는 2차 피해적 요소로서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된다. 앞에서 원망정도와 관련해서 주변의 비난과 뚜렷한 상관성을 보였던 준강간의 경우는 다른 성폭력 경험에 비해 주변의 비난이 높고 범죄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데 “피해자인 내말을 남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자해 또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주변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것이 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해 자해,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은 주변의 불신이 피해자의 행동이나 의식에 얼마나 치명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표 16 피해특성(준강간 여부)별 행동 경험 여부

		준강간여부		x ²
		해당없음	해당있음	
피해자인 내말을 남들이 믿게 하기 위해 자해 또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없다	137	41	5.347*
		77.0%	23.0%	
	있다	23	16	
		59.0%	41.0%	
전체		160	57	
		73.7%	26.3%	

* p < .05, ** p < .01, *** p < .001

피해자가 같은 공동체 내에 있는 성폭력의 경우 구성원들과의 반응이나 이어지는 인간관계가 성폭력 경험 이상의 문제로 자리 잡는다. 이번 피해자설문조사에서도 성폭력 피해가 다른 피해와 다르다면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묻는 항목별 척도 측정을 요구하는 문항에서 ‘피해를 증명하기 어려워서’에서 다른 유형의 성폭력 피해자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동의율(4.27/5)이었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원망뿐만이 아니라 “귀하가 생각할 때, 그 사건 직후 상황을 견디어 내거나 극복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된 사람(혹은 기관)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무엇이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5점 척도 측정 질문에서 4점 이상의 답변은 네 개였는데 그중 가장 높은 점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내 설명을 믿어주었다” (4.25)이다. 또한 “내 편에 섰고, 나에게 대한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았다” (4.19) “나의 감정을 귀담아 듣고 이해해주었다” (4.18), “내가 잘못된 점이나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말해줬다” (4.16)로 모든 답이 들어주고 판단하지 않고 믿어주는 것으로 요약된다. 1차 피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피해대처법을 알려줌 (3.62), 혹은 심리적 증세완화에 도움(3.76), 신체적 문제해결에 도움(3.23)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와 성폭력 피해에서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당장의 신체적, 심리적 혼란에 대한 대처보다 신뢰나 지지, 도덕적 가치 평가를 하지 않음 등으로 이들의 피해의 특성을 이해하게 한다.

표 17 가장 도움 된 사람(기관)의 도움내용(5점척도)

기술통계량			
	N	평균	표준편차
내가잘못한점이나비난받을이유없다고말해줬다	187	4.16	1.113
내가여전히좋은사람이고 사랑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줌	185	3.79	1.084
괜찮아질 거라며 나를 편안하게 해주거나 기뻐 수 있게 해주었다.	186	3.83	1.039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내 설명을 믿어주었다.	186	4.25	.914
나의 감정을 귀담아 듣고 이해해 주었다.	186	4.18	.945
내가 경험한 것이 성폭력 피해임을 설명해주었다.	186	3.81	1.132
내편에 섰고, 나에게 대한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았다.	187	4.19	.929
피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고 도와주었다.	186	3.62	1.234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심리적 증세(불안, 우울, 불면, 무력감 등)가 완화 또는 해결되도록 도와주었다.	186	3.76	1.128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건강, 신체적 문제(통증, 외상, 임신, 성병 검사 또는 치료 등)해결에 도움을 주었다.	183	3.23	1.340
유효수(목록별)	182		

3. 낯선 이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가장 크다?

사람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성폭력의 상은 낯선 사람이 하는 성폭력이다. 한국성폭력 상담소에서 2011년 실시한 성폭력 두려움 조사에서 여대생에게 물은 성폭력에 대한 이미지를 물었을 때 88.2%가 낯선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벌어지는 상황이 보편적인 이미지로서 떠오른다고 했다. 성폭력 두려움의 중심에는 낯선 가해자가 밤 골목길이나 택시 등에서 저지르는 성폭력이 자리 잡고 있다 (2012, 권인숙, 이견정). 아동성폭력의 경우는 낯선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공포의 정도가 훨씬 높아진다. 대표적인 성폭력인 이미지 형성과 그에 따른 공포에는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더 두렵고 더 치명적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갑작스럽기에 공포스럽고, 상대를 모르니 저항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 성폭력예방의 대부분은 비면식 강간의 예방이라고 할 수 있다. 밤길을 조심하고, 택시를 조심하고, 택배를 조심하고, 등하곳길을 조심하고, 늦게 다

니는 것을 조심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외진 곳에서 혹은 늦은 밤 골목길에서 부모의 보호가 없는 곳에서 성폭력범이 출몰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깔고 있다. 안심택시, 귀가길 안심도우미 정책도 비면식 성폭력범의 위험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다. 이는 사회가 그 위험성이나 여성에 대한 폭력결과의 치명성을 동시에 인정하기에 만들어질 수 있는 정책이다.

표 18 피해유형별 성폭력트라우마 차이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F 값	사후검정
친족	51	3.72	.733	.103	6.123**	친족>비면식
비면식	33	2.96	.789	.137		
데이트	36	3.42	.994	.166		
공동체	50	3.35	.697	.099		
합계	170	3.40	.831	.064		

* p < .05, ** p < .01, *** p < .001

그러나 성폭력트라우마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통계는 비면식이 피해정도가 가장 낮다는 것이다. 유형별 성폭력트라우마가 높고 낮음을 비교했을 때 친족이 가장 높고 데이트 성폭력이 다음으로 높았으며 공동체 성폭력이 뒤를 이었고, 가장 낮은 것이 비면식이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이다.

이는 성인여성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 표를 보면 회귀분석에서 비면식 성폭력은 성폭력트라우마가 낮아지는 형태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연령은 이런 경향성을 바꾸지 못한다. 즉 아동기의 비면식 성폭력 경험도 성폭력 트라우마를 높이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기 비면식 성폭력을 특별히 씻을 수 없는 성폭력, 혹은 인생이 무너진 성폭력 경험으로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사회적 통념일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결과이다.

표 19 성폭력트라우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가폭_간접경험 포함)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β	β	β	β
친족성폭력여부	.156	.074	.092	.142
비면식성폭력여부	-.304**	-3.036**	-.230*	-.230*
데이트성폭력여부	-.022	.020	.024	.044
공동체성폭력여부	-.138	-.106	-.103	-.158
성기질내삽입여부	.132	.079	.062	.094
지속여부	-.157	-.077	-.076	-.081
당시연령	-.177	-.121	-.133	-.152
가폭2_언어		-.003	-.009	-.008
가폭2_물리적		.116	.099	.111
가폭2_아내강간		.080	.057	.046
가폭1_언어		.189	.189	.180
가폭1_물리적		.200	.197	.175
가폭1_방임		.311**	.294**	.241*
성통념지수			.090	.111
도움요청유무				.002
주변반응_도움				.035
주변반응_원망				.102
상수	3.672***	3.215***	3.005***	2.229***
R2	.092	.189	.196	.231

* p < .05, ** p < .01, *** p < .001

비면식의 피해가 낮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변사람이나 기관에 대한 원망과 함께 내용을 묻는 항목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모든 항목에서 척도로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유형의 성폭력 피해자보다 비면식피해자들은 원망이 낮았다. 원망하고 있는 부분에서 “내가 뭔가 망가진 존재이며, 예전과는 다른 존재인 것처럼 대했다” 와 “피해에 대해 그만 생각하고, 그만 말하라고 말했다” , 와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사실과 관련해 뭔가를 실행하거나, 결정했다” ,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소를 증용하거나 공론화시키려 했다” , “주변사람들에게 내 허락 없이 사람들에게 나의 피해사실을 말했다” 등에서 다른 유형의 성폭력보다 낮았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20 비면식성폭력 여부에 따른 원망내용(정도) 차이

자신들까지 잘못됐다고 말함	면식	153	2.55	1.240	2.588*
	비면식	26	1.96	1.038	
내말에 신뢰가 가지않는다고 함	면식	154	2.82	1.355	2.745**
	비면식	26	2.19	1.021	
내가 망가진 존재인 것처럼 대함	면식	155	2.59	1.247	4.226***
	비면식	26	1.92	.628	
나를 피함	면식	155	2.78	1.275	1.604
	비면식	26	2.35	1.294	
요구무시	면식	156	3.12	1.300	1.114
	비면식	26	2.81	1.327	
피해에 대해 그만말하라고함	면식	156	3.04	1.329	2.748**
	비면식	26	2.35	1.164	
피해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	면식	156	3.15	1.324	1.766
	비면식	26	2.65	1.294	
문제해결을 방해	면식	155	3.08	1.279	1.885
	비면식	26	2.58	1.206	
내 의사와 상관없이 실행, 결정	면식	156	2.96	1.305	2.784**
	비면식	26	2.27	1.151	
내 의사와 상관없이 고소종용, 공론화	면식	155	2.27	1.186	2.645*
	비면식	26	1.81	.749	
내 감정을 이해하는 척함	면식	155	2.76	1.254	1.118
	비면식	26	2.46	1.334	
내 허락없이 사람들에게 알림	면식	156	2.45	1.225	2.528*
	비면식	26	1.92	.935	
피해를 축소	면식	155	3.41	1.338	.922
	비면식	26	3.15	1.255	

* $p < .05$, ** $p < .01$, *** $p < .001$

성폭력트라우마 형성에 가장 중요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주변의 성폭력 통념에 대한 경험도 비면식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이나 강간당했다면 너에게도 책임 있다,” “네가 남자에게 만만해 보였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너는 성폭력을 당했으니 앞으로 연애나 결혼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등의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미래를 비관하는 낙인적인 경험에서도 비면식은 다른 성폭력 유형에 비해 가장 낮은 경험을 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비면식의

경우는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함부로 규정하는 주변반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경험에 대해서도 훨씬 조심스럽고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시 여기며 피해자로서의 존중을 하는 태도를 유지하기에 이런 차이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성폭력 피해는 주변사람과의 반응 속에서 결정지어지는 측면이 강한 경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다.

표 21 피해유형별 통념경험7

		친족	비면식	데이트	공동체	
내가 술에 취한상태에서 성추행이나 강간당했다면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	아니다	42	22	20	27	11.872**
		37.8%	19.8%	18.0%	24.3%	
	그렇다	9	7	15	23	
		16.7%	13.0%	27.8%	42.6%	
내가 남자에게 만만해 보였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아니다	32	20	14	18	12.756**
		38.1%	23.8%	16.7%	21.4%	
	그렇다	19	9	21	32	
		23.5%	11.1%	25.9%	39.5%	
너는 성폭력을 당했으니 인생망친 것이나 다름없다.	아니다	33	25	23	42	8.474*
		26.8%	20.3%	18.7%	34.1%	
	그렇다	18	4	12	8	
		42.9%	9.5%	28.6%	19.0%	
전체		51	29	35	50	
		30.9%	17.6%	21.2%	30.3%	

* p < .05, ** p < .01, *** p < .001

비면식의 경우는 성폭력이 다른 범죄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비율에서도 현저히 낮았다. 생애 가장 힘든 성폭력의 유형이 비면식인 경우 일반 범죄와 성폭력이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 69.7% 인 반면, 면식피해가 아닌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차이를 주장하는 비율이 83.4%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나, 특히 유의확률이 .06으로 95% 신뢰수준 근처까지는 가 있기에 인용해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표 22 가장 힘든_비면식여부* 차이교차표

		성폭력범죄 타법죄와		전체
		다르지 않다	다르다	
가장 힘든 경험이 비면식	비면식 아님	33 16.6%	166 83.4%	199 100.0%
	비면식임	10 30.3%	23 69.7%	33 100.0%
전체		43 18.5%	189 81.5%	232 100.0%

$X^2 = 3.529^{**}$ $p < .05$, $** p < .01$, $*** p < .001$

비면식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비만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어 2차 피해가 약하면서 성폭력트라우마도 낮고 성폭력 통념에 의한 피해요소가 적기 때문에 다른 폭력과의 차이가 크게 느껴질 상황을 적게 접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삽입강간은 피해의 절대적 기준 아니다.

성폭력과 관련해서 삽입강간은 강간, 강제추행을 나누는 형사법적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가장 두려운 혹은 무거운 피해사실로서 자리 잡고 있다. 성폭력 공포는 삽입강간에 대한 공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 의미는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2011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실시한 여대생 성폭력 두려움 조사에서 '성폭력을 겪는다고 상상하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느냐'는 질문과 관련해 “무엇을” 이라는 항목에서 강간, 추행, 본인의 몸을 만지게 함 등 중에서 여대생들은 강간을 53.9%로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떠올렸다. 그 다음은 추행이 40.9%였다. ‘귀하가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때 두려움을 구성하는 가장 큰 부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도 여대생들의 46.1%가 삽입강간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가장 높은 비율로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삽입강간을 경험한 피해자와 경험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 모든 문항에서 차이를 검토하였다. 가장 큰 특징이라면 삽입피해그룹과 비삽입피해 그룹사이에 대부분의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성폭력 피해가 다른 (범죄)피해와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성기 삽입경험이 있는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들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았지만 적은 차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삽입경험 피해를 겪지 않았다면 천만다행으로 여기는 사회통념, 삽입경험을 중심으로 피해의 경. 중을 따지는 상식적 관행, 씻을 수 없는 혹은 인생망친 성폭력의 기준이 되는 삽입피해에 대한 기대에는 걸

맞지 않은 결과일 수 있다.

다른 결과를 보자면 생애 전체경험에서 삽입피해가 있었던 피해자 중 72.2%가 삽입피해를 가장 힘든 사건으로 꼽았다. 그러나 생애 삽입피해자의 31.1%는 비삽입 피해를 생애 가장 힘든 사건으로 꼽았다. 여기에서 어떤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결과인지는 단정적으로 주장하기 힘들다. 그러나 31%의 삽입피해경험자가 사람들이 가장 심각하고 무거운 피해라고 여기는 삽입피해경험을 가장 힘든 성폭력사건으로 꼽지 않은 것은 삽입피해경험을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이 통념적인 사고일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결과이다.

표 23 피해특성(성기삽입여부)에 따른 차이 인지여부

교차표

		성폭력범죄 다른범죄와		x ²
		다르지않다	다르다	
성기 질내 삽입 여부	아님	22	94	.451
		19.0%	81.0%	
	삽입	15	82	
		15.5%	84.5%	
전체		37	176	
		17.4%	82.6%	

표 24 성기삽입유무별 피해경험 차이

집단통계량

	삽입여부	N	평균	표준편차	t 값
성폭력 트라우마	아님	113	3.33	.880	-1.395
	삽입	92	3.49	.709	

표 25 성기질내삽입여부* 삽입피해경험여부교차표

		삽입피해경험여부		전체
		없다	있다	
성기 질내 삽입여부를 가장 힘든 피해로 규정	아니다	82	37	119
		68.9%	31.1%	100.0%
	그렇다	0	96	96
		.0%	100.0%	100.0%
전체		82	133	215
		38.1%	61.9%	100.0%

성폭력트라우마의 경우도 전체항목을 비교했을 때는 성기삽입 피해경험자가 약간 더 높게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가 아니었다. 그러나 성폭력 트라우마 세부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총 18개 중에서 6개의 항목에서 있었다. “성폭력 이후 불면증, 식욕저하 혹은 폭식증이나 거식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 “자살/자해를 시도했던 적이 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나 자신이 한심했던 적이 있다” “기분변화가 심하고 기분 조절이 되지 않았던 적이 있다” “어떤 이를 믿어도 되고 안 되는지를 모르고 혼란스러워졌다” “나의 판단력, 상황통제력에 대해 자신이 없어졌다” 는 삽입경험이 있는 피해자가 더 높게 나왔다.

표 26 삽입유무 집단 간 성폭력트라우마 문항 평균점수 비교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N	평균	t
성폭력 이후 불면증, 식욕저하 혹은 폭식증이나 거식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	비삽입	116	3.28	-2.322*
	삽입	98	3.73	
자살/자해를 시도했던 적이 있다.	비삽입	115	2.56	-2.185*
	삽입	95	2.98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나 자신이 한심했던 적이 있다.	비삽입	116	3.45	-2.223*
	삽입	98	3.85	
기분변화가 심하고 기분 조절이 되지 않았던 적이 있다.	비삽입	116	3.67	-3.146**
	삽입	98	4.17	
어떤 이를 믿어도 되고 안 되는지를 모르고 혼란스러워졌다.	비삽입	116	3.73	-1.919*
	삽입	97	4.04	
나의 판단력, 상황통제력에 대해 자신이 없어졌다.	비삽입	117	3.58	-2.425*
	삽입	98	3.97	

이런 현상은 상담일지 분석과도 맥이 통한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 상담일지를 보면 성폭력 경험이 발생한 상황에서 삽입여부는 피해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피해를 순결에 대한 침해로 의미화하거나 ‘몸’ 이 ‘더럽혀’ 졌다는 의식도 강하게 표현되고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당황하는 표현이 다른 유형의 성폭력을 경험한 상담자들보다 뚜렷하게 확인된다. 피해자의 서사가 있어 피해분석이 가능한 상담 사례 389개 중 삽입강간에 대한 피해의 표현이 되어있는 것은 78개의 사례로서 기존의 성관념 안에서 심한 충격과 자존감 저하 등의 경험이 잘 나타난다. 자신의 감정을 ‘성적 수치심’ 으로 표현한 경우는 57건이나 되었는데, 단순히 ‘수치심’ 으로 표현한 것과 달리, 처녀성에 대한 상실, 순결 상실이라는 의미로 표현되고 있었다.

“집에 오는 길 완전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아직 첫 키스도 못한 상태에서 그놈한테 당했다는 수치감에 눈물이 끊임없이 나오고 부모님, 친구들 얼굴도 못 보겠고...”(05-06-324)

“첫 경험을 이런식으로 당했다니 수치스럽고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습니다.”(05-11-241)

“혹시나 제 정조관념을 물으신다면 31살이나 먹은 여자가 여태 순결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당장 고소를 하고 싶지만 소문이 두렵습니다. 누구든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저는 자살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여태 관리해 온 제 이미지와 자존심 때문에 추잡한 소문의 주인공으로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06-08-946)

“관계 후 저의 처녀막이 파열되었고 저는 순결을 잃었다는 생각과 함께 저의 순수했던 감정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이용당했다는 생각으로 거의 반쯤은 미쳐갔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하고 있던 공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05-01-285)

그러나 삽입경험에서 주목할 것은 신체적 반응이나 혼란 등이 많이 일어났던 것은 다른 경험자보다 더 분명하고 그런 측면이 성폭력트라우마 결과에서도 분명히 보인다. 자살충동 혹은 거식증 등의 피학적 신체반응, 기분변화, 불신 등의 반응은 상담일지에서 표현된 극단적인 수준의 혼란과 충격, 자존감하락의 경험에서는 당연히 동반할만한 경험이다. 1차 피해와 2차 피해의 차이를 논하자면 1차 피해적 신체 증상이 많이 일어났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물론 이런 반응에는 순결 등의 사회적 가치관의 내면화가 반영되어 있지만 말이다. 그러나 이런 반응을 겪었으면서도 전체적인 성폭력트라우마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귀하가 가장 원망스러웠던 사람(기관)은 어떤 점에서 귀하를 힘들게 하였나요?” 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원망내용에 대한 답변을 분석하면 이해의 단서들이 보인다. “피해에 대해 그만 생각하고, 그만 말하라고 말했다” 와 “내가 문제를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것을 방해했다” 라는 항목에서 비삽입피해자가 삽입피해자보다 원망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성폭력경험을 견디어 내거나 극복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이 분명하고 누가 보기에 성폭력이 분명하며 피해사실이 중하다고 인정되는

삽입피해자는 피해자로서의 피해를 토로하면서 피해자로서 살아나가는 것에 대한 지지를 비삽입피해자보다 많이 받는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표 27

		t	평균
피해에 대해 그만 말하라고 함	삽입	3.941**	-2.233
	비삽입		-2.249
문제해결을 방해	삽입	6.080**	-2.211
	비삽입		-2.231
피해를 축소	삽입	1.050	-2.302
	비삽입		-2.290

표 28 네가 과도하게 예민해서 피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통념경험

		통념경험		전체
		아니다	그렇다	
성기질내 삽입여부	아님	61	49	110
		55.5%	44.5%	100.0%
	삽입	64	27	91
		70.3%	29.7%	100.0%
전체		125	76	201
		62.2%	37.8%	100.0%
		100.0%	100.0%	100.0%

$X^2 = 4.686^{**}$ * $p < .05$, ** $p < .01$, *** $p < .001$

표 29 상대방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네가 그 사람의 진심을 오해했을 수도 있다. 통념경험

		통념경험		전체
		아니다	그렇다	
성기질내 삽입여부	아님	74	36	110
		67.3%	32.7%	100.0%
	삽입	83	8	91
		91.2%	8.8%	100.0%
전체		157	44	201
		78.1%	21.9%	100.0%

$X^2 = 16.687^{***}$ * $p < .05$, ** $p < .01$, *** $p < .001$

피해자들이 경험한 주변사람들의 성폭력 통념적 반응의 경우 삽입피해경험이 더 높은 수준의 통념을 경험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비삽입 경험자가 “네가 과도하게 예민해서 피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상대방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네가 그 사람의 진심을 오해했을 수도 있다” 와 같은 주변반응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삽입피해의 경우는 피해자로서의 인정이나 고통에 대한 주변의 공감을 사거나 주변에서 더 조심스럽고 진지하게 대해주었을 가능성이 비삽입피해자보다 확률이 높아 해결과정에서는 주변을 원망할 일이 더 많이 생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다른 지점은 “귀하는 그 사건 이후 타인과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아래 “옷차림을 더 정숙하게 하였다” 가 삽입피해경험이 없는 그룹과 비교해서 더 많이 하였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삽입피해자들이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조심하거나, 성폭력 경험이 자신의 옷차림이나 행동거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비난요소가 좀 더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표 30 피해특성(성기삽입유무)별 행동 경험 여부

		성기질내삽입여부		x ²
		아님	삽입	
옷차림을 더 정숙하게 하였다	아니다	54 63.5%	31 36.5%	4.664*
	그렇다	60 48.4%	64 51.6%	
전체		114 54.5%	95 45.5%	

* p < .05, ** p < .01, *** p < .001

5. 소결

이 장에서는 성폭력 피해통념이 성폭력 피해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 잘못된 통념을 비판하였다. 성폭력을 1차 피해와 2차 피해로 구분지어서 평가할 때 대부분 2차 피해적 요소가 지배적임을 설문조사결과와 상담일지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성폭력 피해가 성폭력 경험 그 자체에서 오는 것 이상으로 사회적 가치규정, 여성의 성을 순결주의적 혹은 상품가치로 평가하는 성관념, 성폭력 사건피해에 대한 이해와 지지, 공감등에 의해서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성폭력을 대표하는 비면식성폭력과 삽입성폭력의 피해 통념을 비판하였다. 가장 치명적인 피해라고 상식화된 비면식성폭력이 사실은 피해가 가장 적은 피해로 결과가 나왔고, 이는 피해자 비난, 피해자 정체성 인정 등이 피해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삽입성폭력의 경우 1차 피해는 확연히 높게 형성되지만 피해자인정이나 지지에서 오히려 비삽입피해자보다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면서 전반적으로 성폭력 트라우마가 더 높게 나타나지는 않아 성폭력 피해 구성에서 피해에 대한 이해와 지지, 공감, 혹은 배려, 조심스러운 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일반적 피해통념과는 다른 맥락에서 구성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참고문헌

공수자·이정숙(2004),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 『정신간호학회지』, 제13권, 제1호, 51-63쪽.

권인숙·이건정(2012), “여성의 성폭력 불안에 대한 연구: 여대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9권, 제 3호, 181-218쪽.

김경윤(2010), “성폭력 피해 여성의 자아불일치”,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2호, 333-355쪽.

김일옥(1997), “성폭력의 피해경험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2권 제1호, 137-150쪽.

김정규·김중술(2000), “아동기 성피해의 심리적 후유증 : 성인기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747-769쪽.

김지선(2006),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여성의 삶: 사회적 구성과 결과』, 한국학술정보.

미야자와 고이치(1999), 『피해자학 입문』, 장규원(역), 길안사.

신기숙(2011), “성폭력 피해아동의 피해경험 성폭력 피해아동의 피해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0권 제4호, 1255-1287쪽.

유수진(2003), “아동기 성학대가 여대생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경(2007), “반(反)성폭력 법제화 운동의 성과와 전망”, 『성폭력, 법정에 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역음), 서울: 푸른사상.

_____ (2011),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 권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장임다혜(2007), “성폭력 법담론: 합리적 법해석과 입법적 해결을 위하여”, 『성폭력에 맞서다: 사례, 담론, 전망』, 한국성폭력상담소 기획, 이미경·허은주·김민혜정·장임다혜·최선영·권김현영, 서울: 한올아카데미.

정국(2012), 『섹슈얼 트라우마』, 블루닷.

조은경(1994), “강간피해의 심리적 반응에 대한 고찰”, 『피해자학연구』, 제3권 제1호, 73-87쪽.

조지영(2011), “민주노총 내 성폭력사건의 논쟁지점과 그로 인한 사건 해결의 문제점”, 『5,785개의 물음표를 풀다 : 2006-2010년 한국여성민우회 상담사례분석 토론회

-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조현빈(2006),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심리의 이해”, 『한국범죄심리연구』, 제2권 제2호, 39-59쪽.
- 주소희(2010), “아동·청소년기에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생존자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
- 현혜순(1997),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에 관한 연구 : 5명의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사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회정책학과, 석사학위
- 한국성폭력상담소(2014). “성폭력 두려워해야 하는가” 한국 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올림 개소기념 포럼.
- 한국여성민우회(2011), 『5,785개의 물음표를 풀다 : 2006-2010년 한국여성민우회 상담사례분석 토론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Fanflik, Patricia L.(2007), Victim Responses to Sexual Assault: Counterintuitive or Simply, National District Attorneys Association and the American Prosecutors Research Institute.
- Guelzow, J. W. and Cornett, P. F. and Dougherty, T. M.(2002), Child Sexual Abuse Victims' Perception of Paternal Support 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Coping Style and Global Self-Worth,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11(4), pp.53-72
- Koskela, H.(1997), 'Bold walk and breakings': women's spatial confidence versus fear of violence, Gender, Place and Culture, 4(3), pp.301-319.
- Moor, Avigail(2007), When Recounting the Traumatic Memories is Not Enough Treating Persistent Self-Devaluation Associated with Rape and Victim-Blaming Rape Myths, Women & Therapy, 30(1-2), pp.19-33
- Pain, Rachel,(1997) “Social Geographic of Women Fear of Crime” , Area 22(2), pp.231-244.
- Reynolds, L. L. and Birkimer, J. C.(2002), Perceptions of Child Sexual Abuse: Victim and Perpetrator Characteristics, Treatment Efficacy, and Lay vs. Legal Opinions of Abuse,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11(1), pp.53-74.
- Stanko, Elizabeth(1992), "The Case of Fearful Women: Gender, Personal Safety and Fear of Crime". Women &Criminal Justice 4(1), pp.117-135.

Ullman SE and Filipas HH and Townsend SM and Starzynski LL,(2006), The role of victim-offender relationship in women's sexual assault experiences, J Interpers Violence, 21(6), pp.798-819.

Valentine, Gill,(1992), “Images of Danger: Women's Source of Information about the Spatial Distribution of Male Violence” , Area, 24(1), 22-29.

성폭력 피해의
극복가능성:
피해, 생존 그리고 성장

, ,

김민정(울림 객원연구원) · 양정운(울림 연구원)

I. 서론

모든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경험으로 인해 아파하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팀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터넷 상담요청 내용을 통해, 심층면담을 통해,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이 당황하고 분노하고 아파하는 과정을 본 동시에,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피해를 해석하고 이해하여 자신과 세상에 대한 관점을 수정하고, 성장하려는 노력을 보았다. 가해자를 법적으로 심판하고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 이도 있었고, 사건을 잊기 위해 다른 일에 몰두하는 이도 있었다. 이들은 주변과 사회의 낯선 시선에 대응하는 방편으로 피해자 정체성을 부각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먼저 다가가기도 하며, 가해자 뿐 아니라 자기 자신, 주변사람, 사회와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며 삶의 길을 나아가고 있었다.

성폭력 피해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피해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대인관계, 분노 조절, 우울, 자살, 섭식 장애, 수면 장애, 중증 정신 질환 등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이 가지는 위해와 폭력성에 대해 경고하며, 성폭력 관련 법률을 입법하고, 성폭력 가해자를 엄벌하고, 성폭력 문화를 개선시키는 데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효과도 야기하였다. 연구 주제 자체가 보여주는 그대로, 성폭력 피해자는 은연중에 혹은 공공연히 사회 부적응자, 정신질환자로 여겨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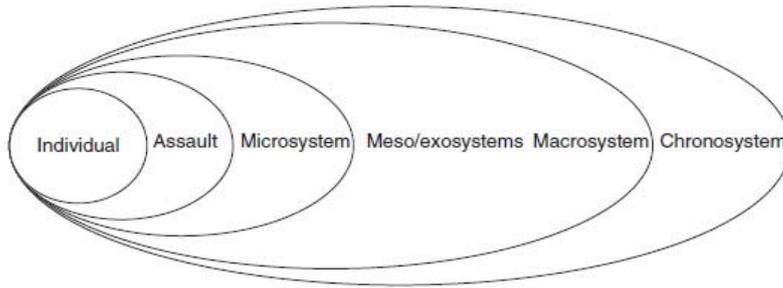
최근 긍정심리학이 발달하면서, 피해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한정된 단선적 연구들 외에도 피해경험을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의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O' Leary, 1998; Parry & Chesler, 2005; 공춘옥 & 김봉완, 2014 외 다수). 이 연구들은 피해자의 적응유연성, 회복력(resilience), 외상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과 같은 개념들을 소개하며, 피해 경험이 미치는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피해 경험이 있는 많은 이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자아를 회복하고, 환경에 적응하며, 때로는 피해 이전보다 성장하기도 한다. 아쉽게도, 회복 및 성장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상담/치료에 의한 피해 극복 가능성에만 집중하여 피해 경험이 가지는 필연적인 부정적 영향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성폭력 피해를 포함하여 정신적 외상을 유발하는 모든 부정적 사건들은 사건 경험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피해는 또한 사건 이후 경험하게 되는 일련의 피드백들, 예를 들면 피해 조사 과정과 결과, 가족/지인들의 태도, 피해자가 속한 집단의 통념에 의해 피해는 심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한다. 피해 경험이란 이렇듯 피해자 개인의 본래 특성에 더해 피해자를 둘러싼 모든 환경의 영향이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시간적 흐름에 따라 재조직되어 피해자를 구성한다. 아무리 효과적인 개입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건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는 없으며, 피해 경험이 세상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개인적 약점을 개선하는 성장 기회가 될 수는 있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심리적·육체적 고통을 전제한다. 피해로 인한 물기능 혹은 성장 가능성만을 선별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성폭력 피해 경험을 이해하고 피해 경험자의 회복을 조력하기에 한계가 있다. 성폭력 피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성폭력 피해자가 경험한 사건과 사건 이후 경험한 피드백들이 성장에 어떠한 도움/방해가 되는지 살펴 피해 회복을 위한 개입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1. 성폭력과 성폭력 트라우마

성폭력 피해가 구성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성폭력 피해의 구성에 대한 이론적 틀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다는 것은 하나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의 사건에 대한 해석과 느낌, 상흔의 크기는 시간의 흐름과 주변의 반응, 문화적 통념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크게 개인적 특성(individual), 사건 특성(incident), 가족/주변 반응(micro), 경찰, 병원, 상담소(meso), 사회적 통념/분위기(macro), 재피해/다중피해(chrono/생애사)로 나눌 수 있다. 연구들은 종합하면, 성폭력 피해란 하나의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이 모든 메카니즘의 유기적 결합에 의해 재구성되는 다층적 피해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 출처: Campbell, Dworkin, & Cabral, 2009.

성폭력 피해를 구성하는 개인 특성은 피해자 나이, 학력, 경제력, 결혼 여부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개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불안, 충동성, 우울 수준과 같은 심리적 특성을 포함한다. 연구들에 따르면,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은 성폭력피해 후 정신적 외상과 자기 비난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Cox et al., 2004; John & Srivastava, 1999),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성폭력 피해 후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은 불투명하다(Campbell et al., 1999; Mackey et al., 1992; Ullman & Brecklin, 2002).

사건 특성은 피해자-가해자 관계, 흥기 사용/상해 여부, 피해자의 알콜(약물) 복용 여부 등이 포함된다. 신고된 성폭력 사건의 대부분이 비면식 강간 사건이었던 1980년대까지의 연구들은 비면식 성폭력이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를 높인다는 연구들이 많았으나, 90년대 이후 최근의 연구들은 비면식 가해자에 의한 성폭력과 피해자의 정신건강은 관련이 없으며(Arata & Burkhart, 1996; Campbell et al., 1999; Riggs, Kilpatrick, & Resnick, 1992; Ullman & Filipas, 2001b), 보다 더 최근의 연구는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성폭력이 오히려 외상후 스트레스를 높인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Temple et al., 2007; Ullman et al., 2006). 이는 서구사회에서 1970년대 성적 피해가 사회문제로 처음 정의되기 시작했을 때조차 문제의 주안점이 낮은 남성에게 의한 성인 강간이었고, 90년대 이후에서야 아는 사람에게 의한 강간이 낮은 사람에게 의한 강간보다 훨씬 많다는 알려지면서, 이전에는 경찰에 보고된 사건을 중심으로 수행되던 연구 동향이 일반인들의 자기보고를 사용함으로써 연구 결과가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상해에 관한 연구들 또한 가해자-피해자 관계가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상반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피해자 상해가 외상후 스트레스를 높인다는 연구들도 존재하지만(Bownes et al., 1991;

Sales, Baum, & Shore, 1984), 보다 최근의 연구들은 둘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하였다(Campbell et al., 1999; Ullman & Filipas, 2001b). 피해자의 알콜(약물) 복용 여부와 피해자의 피해 후 정신 건강 또한 명확한 관련성이 보고되지 않았다(Campbell et al., 1999; Resnick et al., 1997; Schwartz & Leggett, 1999).

우리는 사건의 심각성 혹은 피해자의 사건 유발 특성이 피해 후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건의 심각성은 가해자가 누구인가, 폭력이 수반되었는가, 피해자가 어린가 등으로 판단하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거나, 저항 없이 가해자를 따라가는 경우, 피해자는 덜 상처받는다(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사건 특성과 피해자의 피해 후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모르는 사람에 의한, 폭력을 수반한 사건일수록 피해자가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거나 정신적 상처가 클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은 그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약물)을 복용하던 그렇지 않던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는 차이가 없다는 점 또한 성폭력 피해자 유발론을 반박한다. 사건 특성과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성폭력 사건 그 자체가 아닌 다른 요인들이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함의할 수 있다. 개인 특성과 사건 특성, 2차 피해 등의 상호유기적 영향을 고려하여, 성폭력 피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통합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2차 피해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주로 형사사법기관, 의료 기관에 의한 2차 피해가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정신건강 관련 기관, 피해지원 단체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일관적으로 높게 보고되고 있다(Campbell et al., 2001; Ullman, 2007; Ullman & Filipas, 2001a). 주변 사람에 의한 비공식적 2차 피해에 관한 연구들은 가족/지인의 지지와 도움은 피해자의 PTSD, 우울감, 자해, 자기 비난 등을 낮추며(Campbell et al., 2001; Coker et al., 2002), 피해자 비난은 정신적 외상을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다(Borja, Callahan, & Long, 2006; Campbell et al., 2001). 사회문화적 통념과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에 관련한 연구는 많지는 않지만, 강간친화적 문화(예, 피해자가 성폭력을 유발한다, 술이 성폭력을 일으킨다, 남자는 성적 실수를 할 수도 있다 등)가 피해자의 심리적 문제를 증가시키고, 회복을 방해한다고 일관되게 보고한다(Rozee & Koss, 2001; Lonsway & Fitzgerald, 1994). Harned(2005)는 사회에 만연해있는 강간친화적 문화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탓하게 하며, 이같은 자기비난이 피해자의 회복을 방해한다고 하였으며, 또 다른 연구(Moor, 2007)는 강간수용적 문화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더욱 숨기도록 하여, 피해자의 회복을 저해한다고 하였다. Luo (2000)은 서양과는 다른

중국의 집단주의, 가문 명예, 처녀성에 대한 집착이 피해 극복에 더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종합하면, 가까운 주변의 반응, 형사사법기관/의료 기관, 집단/사회의 문화를 포함하는 성폭력 2차 피해에 관한 연구결과는 사건특성에 한정된 1차피해에 관한 연구보다 훨씬 일관적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회복을 예측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와 피해자의 정신건강을 매개하는 요소들에 관한 연구도 소수 존재한다. 지금까지 주로 연구된 매개 변인은 사건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비난과 피해자가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이다. 성폭력 피해가 피해자의 내적 귀인이나 피해 대처 방식에 미치고, 이 차이가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성폭력 피해가 인생관, 자기에/자존감, 도움 요청 여부 등에 영향을 미쳐, 피해자의 심리적 상처나 심리적 회복을 예측한 연구들이 있다. 지금까지 연구된 매개변인으로서의 자기비난은 그러나 사건 원인에 대한 피해자의 인지 혹은 해석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비난의 결과로 나타나는 감정인 죄책감이나 무력감을 함께 측정하는 경우가 많고, 주로 주변 반응/형사사법기관/사회적 통념과 같은 2차 피해와 자기비난과의 관련성만을 분석한 경우가 많아, 자기비난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정의하고, 1차 피해와 2차 피해 모두가 자기비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성폭력 피해와 극복, 외상후 성장

극복과 외상후 성장은 같은 개념이 아닐 수 있다. 성폭력 피해 후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고 개인적인 성장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몸이 기억하는 고통을 완전히 잊거나, 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암묵적인 주변의 태도에 전혀 개의치 않게 되지는 않는다.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보았을 때 성폭력 피해 경험자의 심리적, 신체적 상태가 매우 건강하지는 않더라도 피해자 스스로 느끼기에 자기 자신, 대인 관계, 가능성, 영적 철학 등의 삶의 영역에서 건설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면, 외상후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Tedeschi와 Calhoun(1999, p.11)가 정의하는 외상후 성장이란 “매우 도전적인 환경에 대한 투쟁의 결과로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긍정적 심리 변화” 이다. 외상후 성장은 단순히 사건 전으로의 기능 수준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사건 후 얻게 되는 외상에 대처하는 인지처리적 과정과 그 결과를 나타낸다. 피해 극복을 피해의 기억과 그 이후의 고통이 더 이상 피해자의 일상 및 사회생활을 방해하지 않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심리/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적응”의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외상후 성장과 적응은 반드시 비례하는 관계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트라우마

증상을 호소하는 비적응의 단계 와중에도 외상후 성장은 끊임없이 일어나며, 아픔이 크고 극복이 어려울수록 외상후 성장도 클 수 있다. 진정한 극복에 이를 때까지 외상후 성장은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외상후 성장과 심리적/신체적/관계적 적응은 서로 비례하기도 하고, 관계가 없기도 하며, 때론 부적 상관을 보이기도 한다. 트라우마를 유발한 사건의 특성으로 집단을 나누어 이들의 트라우마와 외상후 성장을 비교한 연구를 보면, 아프리카에서 폭격피해로 인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트라우마는 매우 높았으며, 외상후 성장은 비교집단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 트라우마가 클수록 외상후 성장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가족의 자살을 경험한 사람들은 트라우마는 컸지만, 외상후 성장은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각기 다른 사건들로 트라우마를 경험했다고 보고한 대학생 집단의 경우, 비교 집단 중 트라우마도 가장 낮고 외상후 성장도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아동기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의 경우, 트라우마 증상과 외상후 성장 수준 모두 비교집단 중 중간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성폭력 피해의 성격이나 크기가 다양하고, 피해자가 경험하는 고통과 긍정적 변화의 관계 또한 획일적이고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II.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 개인적 변인과 성폭력의 성격(1차 피해), 사회적 통념 경험(2차 피해)이 성폭력 트라우마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알아본다. 또한 피해 경험자의 자기비난이 1차피해와 2차피해가 성폭력 트라우마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매개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2. 개인적 변인과 성폭력의 성격(1차 피해), 사회적 통념 경험(2차 피해), 성폭력 재피해가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3. 자기비난과 성폭력 트라우마를 강화시키는 주변의 반응과 외상후 성장을 강화시키는 주변의 반응을 탐색함으로써 실천 가능한 사회적 조력 방안을 모색한다.

Ⅲ. 연구 방법

1. 참여 대상자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의 도움과 포스터/온라인광고, 지인들의 소개를 통해 총 235명의 성폭력 피해자가 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는 10대가 20명(8.9%), 20대가 117명(52.0%), 30대 56명(24.9%), 40대 24명(10.7%), 50대 이상 8명(3.6%)로, 20-30대가 가장 많았다. 상담소 연계로 설문에 참여한 경우가 155명(6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인 소개 50명(21.5%), 포스터/온라인 광고를 보고 참여한 경우가 27명(11.6%)이었다.

2. 주요 변인 구성

▪ 성폭력 트라우마

지금까지 성폭력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를 측정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이하 DSM)의 의학적 진단을 사용하거나, PTSD 체크리스트(PTSD Checklist), 외상후 진단 척도(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 데이비드슨 외상 척도(Davidson Trauma Scale)와 같이 DSM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지 등을 사용하여 왔다. DSM은 외상 사건에 대해 삶의 위기를 초래하는 사건이며, 외상후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유발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라고 정의하였다. 대표적인 예로는 전쟁/재난 경험, 가족의 죽음/이별, 사고/범죄 피해의 경험이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고하는 정신적 외상은 일반적인 외상후 스트레스의 특성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특수하게 다른 점을 지니고 있다. 성과 관련된 행동, 인지, 감수성의 변화가 그것이다.

본 연구는 DSM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포괄하되, 성폭력 피해 후 성과 관련된 행동, 인지, 감수성의 변화를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항들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설문조사 이전에 시행된 성폭력 피해자 심층면담을 분석하여 총 18문항으로 구성된 성폭력 트라우마 척도를 개발하였다. 성폭력 트라우마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은 “나는 성이 더럽게 느껴졌다”, “피해 당시 성적 느낌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죄책감이 들었던 적이 있다.”, “성욕을 느끼는 내가 싫었던 적이 있다”, “남자들이 무섭고 되도록 피하고 싶었던 적이 있다” 등이다. 성폭력 트라우마 척도는 성과 관련된 심리의 변화 외에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종종 보고하는 자기비난, 자기 혐오감,

자기 불확신감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여 성폭력 피해가 가지는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하였다. 자기 비난과 관련한 문항들은 5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비난을 매개변인으로 사용함에 따라 종속변인으로서의 성폭력 트라우마는 자기비난 문항들을 제외한 13문항이며, 신뢰도 검사 결과 Cronbach α 는 .850이다.

▪ 외상후 성장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하고 김교현(2007)이 변안한 한국판 외상후 성장 척도를 사용하였다. 외상후 성장 척도는 총 21문항, 6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검사이며, 문항의 내용 구성에 따라 네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뉜다. 요인 1은 ‘자기지각의 변화’ 로 “생각했던 것보다 내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매일 매일에 대해 더 감사하게 되었다”,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등 5문항이며, 요인 2는 ‘대인관계 깊이의 증가’ 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큰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정이 더 깊어지게 되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 등 5문항이다. 요인 3은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으로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내용은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내 삶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생겼다”,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이다. 요인 4는 ‘영적·종교적 관심의 증가’ 로 2문항이며 “종교적인 믿음이 더 깊어졌다”, “영적·정신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더 커졌다” 이다. 구성타당도 확인 결과, 21문항 중 5문항은 4요인 모두와 관련성이 높아, 4가지 하위요인 중 하나로는 속하지 않지만 외상후 성장 척도 총점에는 포함된다(김교현, 2007). 한국판 외상후 성장 신뢰도 α 는 .94이며,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의 외상후 성장 신뢰도 α 는 .95이다.

▪ 자기비난

최근의 연구들이 성폭력 피해와 피해 후유증을 매개하는 변인으로서 피해자의 자기비난을 보고하고 있으며, 자기비난을 피해자의 내적 귀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설문조사 이전에 진행된 29건의 성폭력 피해 경험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많은 성폭력 피해 경험자가 피해 발생에 대해 자기 자신으로 귀인하는 경향 외에도 자기 혐오, 자기 불확신을 경험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자기 혐오와 자기 불확신은 내적 귀인과 구별되는 성격을 지닌다. “내가 강하게 거절하지 못했다.”, “술을 마셔서(혹은 그 사람을 따라가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와 같이 피해자가 사건의 원인 자기에게 있

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적 귀인으로 볼 수 있다. 자기 혐오감은 “내 몸이 더러워졌다.”, “나는 이제 버린 몸이다.” 등 사건 원인과 관계없이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 자아에 대한 지각 혹은 자기 이미지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자기 불확신은 “내 판단에 대한 확신이 없어졌다.”, “내가 이상한 건가 싶다.” “피해가 아닐 수도 있다.” 와 같이 피해자 자신의 정체성, 주체성, 인지 능력에 대한 의심이며, 이는 1차 피해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고, 사건에 대한 귀인, 자기 이미지에 대한 변화와는 상이한 개념이다. 본 연구는 1, 2차 피해와 피해 후유증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서 내적 귀인, 자기 혐오감, 자기 불확신이라고 가정하고, 이 세 매개변인을 합하여 자기비난이라고 칭하였다.

자기비난 문항은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나 자신이 한심했던 적이 있다.”, “그런 일을 겪어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내 자신이 혐오스러웠던 적이 있다.”, “어떤 이를 믿어도 되고 안되는지를 모르고 혼란스러워졌다.”, “나의 판단력, 상황통제력에 대해 자신이 없어졌다.”, “내가 귀하게 생각되지 않아 상대방이 함부로 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이다.

IV. 연구 결과

1. 피해경험의 구성과 맥락

1) 성폭력 피해의 구성

성폭력 트라우마에 영향을 미치는 성폭력 피해 구성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형1은 피해 피해 연령, 피해의 반복/지속성 여부, 성기 삽입피해 여부, 당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신뢰도를 포함한 1차 피해(사건 변인)만 설명변수로 투입하였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뢰할수록 유의한 수준으로 피해 후유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피해 연령이 낮을수록, 피해 지속인 경우, 성기 삽입 피해인 경우에 성폭력 트라우마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모형 2는 모형 1의 1차피해 변인과 함께 사건 당시 피해자의 대응 여부를 설명변수로 투입한 모형이다. 피해자의 대응 여부는 사건 이후 피해 발생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해석과 주변의 피드백 등 2차 피해와 관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차 피해, 2차 피해와의 공변량을 통제하기 위해 모형에 포함하였다. 결과적으로 1차 피해를 통제했을 때, 피해자가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 성폭력 트라우마를 높이는 경향은 있지만,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모형 3은 앞의 사건변인, 피해자 대응여부와 더불어 피해 노출 후 주변에서 성폭력 통념을 경험한 정도(2차 피해)를 설명변수로 추가한 것이다. 2차 피해 투입 후, 성폭력 트라우마에 영향을 미치던 가해자 신뢰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후유증을 설명하는 유일한 변수는 2차 피해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뢰할수록 피해 후유증이 클 수 있지만, 이 관계는 2차 피해를 적게 경험한다면 피해 정도가 훨씬 경감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모형 3은 모형 1, 모형 2와 비교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종속변인인 성폭력 트라우마에 대한 설명력이 월등하였다(F: 6.86***, R2: 0.20).

모형 4는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성폭력 피해 경험 여부(없음:0, 있음:1)를 합산한 생애 성폭력 경험(범위:1-3)과 피해 후 기간(년), 소득 변수가 포함된 개인 변인을 앞의 모형 3에 추가하여 성폭력 트라우마를 설명하였다. 1차 피해, 대응여부, 2차 피해의 영향력을 통제하면, 개인 특성 변인 중 유의한 수준으로 피해 후유증을 설명하는 것은 없었으며, 개인 변인을 고려하더라도 2차 피해는 여전히 피해 후유증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표 1 성폭력 피해의 구성 (회귀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S.E	B	S.E	B	S.E	B	S.E
(상수)		39.89***	2.64	38.44***	2.79	35.97***	2.66	39.79***	4.20
1차 피해 (사건 변인)	피해 연령	-.07	.09	-.04	.09	-.11	.09	-.20	.11
	피해 지속	2.49	1.49	2.30	1.49	1.81	1.39	1.58	1.38
	성기 삽입	1.73	1.49	1.78	1.49	2.09	1.39	1.87	1.40
	가해자 신뢰	1.31**	.53	1.11**	.54	.50	.52	.58	.52
사건 대응	대응 못함			2.48	1.61	2.40	1.50	2.13	1.49
2차 피해	성폭력 통념					.78***	.15	.71	.16***
개인 특성	생애 성폭력 피해							1.07	.90
	피해 후 기간							-.11	.08
	소득							-.97	.60

모형 1 F, R2: 2.855**, .063, 모형 2 F, R2: 2.779**, .076
 모형 3 F, R2: 6.861***, .198, 모형 4 F, R2: 5.356***, .227

2) 피해경험과 자기비난, 그리고 성폭력 트라우마

1차 성폭력 피해와 피해자의 대응여부, 2차 피해가 성폭력 트라우마에 미치는 영향에 자기비난(내적 귀인, 자기 혐오, 자기 불확신)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가설 모형을 세웠다. 가설모형은 1차피해(사건변인)와 피해자의 대응여부, 2차피해(성폭력 통념 경험)가 피해자의 자기비난에 영향을 주고, 자기비난이 성폭력 트라우마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와 성폭력 트라우마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를 모두 고려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시 필요한 가정을 충족하기 위해 단순회귀 분석 결과 성폭력 트라우마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변수들만 설명변수로 투입하였으며, 그 결과 1차 피해는 피해 지속여부와 가해자에 대한 신뢰 정도 두 변인이 포함되었다. 피해자의 대응여부는 앞서 분석에서 1차 피해와 2차 피해, 개인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성폭력 트라우마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으나, 다른 변인들의 영향을 통제하지 않으면 성폭력 트라우마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에 그대로 포함하였다. 앞서 분석에서 성폭력 트라우마를 가장 잘 예측하였던 2차 피해 변인인 성폭력 통념 경험도 그대로 모형에 포함하였다.

자기비난 매개 효과에 대한 결과를 보면, 1차 피해, 대응여부, 2차 피해가 모두 매개 변인인 자기비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자기비난 역시 성폭력 트라우마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분석의 가정을 충족하였다. 1차 피해는 성폭력 트라우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기비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대응여부가 성폭력 트라우마에 미치던 영향은 자기비난에 의해 완전히 매개되었다. 2차 피해는 성폭력 트라우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자기비난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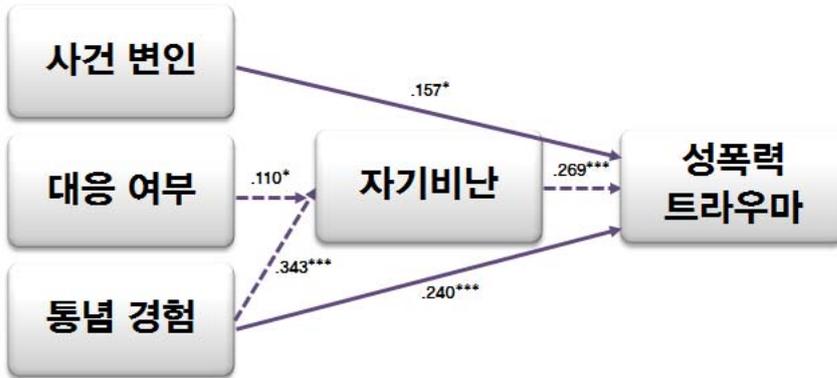


그림 1 성폭력피해-자기비난-성폭력트라우마 결과

2. 외상 후 성장, 회복 구성과 맥락

다음은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1차피해, 2차피해, 개인변인을 설명변수로 하여 예측한 결과이다. 성폭력 트라우마 회귀 모형에서 설명변수로 포함되었던 피해자의 대응은 외상후 성장과는 상관이 약하여 본 회귀모형에서 제외하였다.

1차피해(사건변인)이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모형 1은 피해 피해 연령, 피해 지속 여부, 성기삽입 피해 여부, 가해자 신뢰 모두 외상후 성장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1차 피해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2차 피해(성폭력 통념 경험)의 영향을 살펴본 모형 2에서 2차 피해는 외상후 성장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할 점은 성폭력 통념 경험 정도가 심할수록 외상후 성장 척도 점수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의 정도와 외상후 성장의 관계가 1차 선형 관계가 아니라며, 피해가 극단적으로 심하거나 인지/기억능력과 감정표현 능력에 심각한 훼손을 입은 경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 외상후 성장 척도 점수가 낮아지며, 피해가 극단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상처가 심할수록 피해로 인해 회복하고 성장할 가능성도 크다는 선행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Tedeschi & Calhoun, 2004). 본 설문조사에서는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답변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등 인지, 기억 능력의 훼손이 의심되는 대상자의 응답은 제외하였기에 극단적 피해와 외상후 성장 간의 관계는 알 수 없다. 모형 3에서 개인 특성을 추

가로 투입한 결과 개인 특성 중 피해 후 기간이 외상후 성장을 유일하게 잘 설명하였으며, 성폭력 통념 경험의 예측력을 완전히 통제하였다.

외상후 성장을 설명하는 위의 3가지 회귀 분석 결과를 통해 사람의 자연 치유능력을 확인하였지만, 자연 치유 외에 사회적 조력을 위한 함의를 가진 보호요인의 영향을 알아 볼 필요가 있었다. 상담기관의 도움은 1차피해와 비공식적 2차피해, 개인특성 외에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 변수로서 이론적, 경험적 근거가 존재한다. 본 설문조사는 피해 경험자가 사건 이후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조사하였다. 다중응답 분석 결과, 총 395 응답 중 88명(22.3%)의 피해 경험자가 상담소에 피해경험을 노출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였으며, 65명(16.5%)이 친구/학교 선후배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 다음 엄마(58명, 14.7%), 경찰 등 공공기관(48명, 12.2%)이었다. 도움을 요청 대상에 따라 각 집단을 더미 처리하여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상담기관과의 접촉만이 외상후 성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설명변인으로 추가하여 모형 4를 구성하였다. 결과를 보면, 자연치유의 영향을 통제하더라도 상담기관의 도움은 외상후 성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 적합도와 모형 설명력이 가장 좋았다(F: 2.758**, R2: 0.393)

자기비난과 외상후 성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관련성이 보이지 않아, 이에 대한 분석은 생략하였다.

표 2 피해 경험의 외상후 성장 구성 (회귀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S.E	B	S.E	B	S.E	B	S.E
(상수)		64.64***	4.52	62.78***	4.53	38.66***	9.02	40.70***	8.94
1차 피해	피해 연령	-.04	.15	-.10	.15	.39	.20	.30	.20
	피해 지속	.28	2.52	-.07	2.49	-.46	2.43	-.84	2.40
	성기 삽입	.13	2.52	.28	2.49	-.42	2.46	-.68	2.43
	가해자 신뢰	1.02	.89	.48	.91	.36	.89	-.03	.90
2차 피해	성폭력 통념			.64**	.28	.44	.29	.43	.29

개인 변인	생애 성폭력피해 피해 후 기간			2.35	1.58	2.55	1.56
	소득			.47**	.15	.51**	.15
	PTSD			.50	1.06	.51	1.05
				.15	.14	.11	.13
도움	상담기관				6.16**	2.71	

모형 1 F, R2: .367, .096, 모형 2 F, R2: 1.339, .203
 모형 3 F, R2: 2.425**, .354, 모형 4 F, R2: 2.758**, .393

3. 부정적/긍정적 피드백의 효과

1) 부정적 피드백과 자기비난, 그리고 성폭력 트라우마

다음의 주변의 부정적 반응이 어떻게 자기비난 요소와 성폭력 트라우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매개효과 분석 모형이다. 앞서 회귀모형과 매개효과 분석에서 2차 피해는 성폭력 통념 경험으로 한정하였다. 이와 별개로 본 연구는 사건 이후 피해 경험을 견디거나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원망스러웠던 사람(기관)과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질문 특성상 합산하여 연속 변수화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모형에서는 총 18문항으로 구성된 원망스러웠던 주변 반응 중 성폭력 트라우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세 반응과 성폭력 트라우마의 관계를 알아보고 자기비난 요소인 내적귀인, 자기 혐오, 자기 불확신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성폭력 트라우마를 높이는 주변반응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내가 도움을 청하면 안 될 것 같은 처지에 있었다” ; “내가 뭔가 망가진 존재이며, 예전과는 다른 존재인 것처럼 대했다” ;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무시했다” . “내가 도움을 청하면 안될 것 같은 처지에 있었다.” 의 경우 피해자에게 직/간접적 비난은 실제로 없던 경우이지만, 이로 인해 피해경험자가 피해에 대해 도움을 구하고 아픔을 공유하고자 한 상대방으로부터의 지지를 원천봉쇄당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내적 귀인, 자기 혐오, 자기 불확신으로 구성된 자기비난 요소 중 내적 귀인은 단순 회귀 결과 위의 세가지 주변반응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본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주변반응과 성폭력 트라우마를 매개하는 변인으로서 자기 혐오와 자기 불확신에의 효과에 관한 이 모형은 주변반응이 성폭력 트라우마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자기비난에 통해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모두를 가정하였다.

아래의 결과는 세 가지 주변반응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음” , “내가 망가진 존재인 것처럼 대함” , “나의 요구 무시” 모두 자기 비난을 매개하여 성폭력 트라우마

우마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중 “내가 망가진 존재인 것처럼 대함”은 자기비난을 매개하는 것 외에도 성폭력 트라우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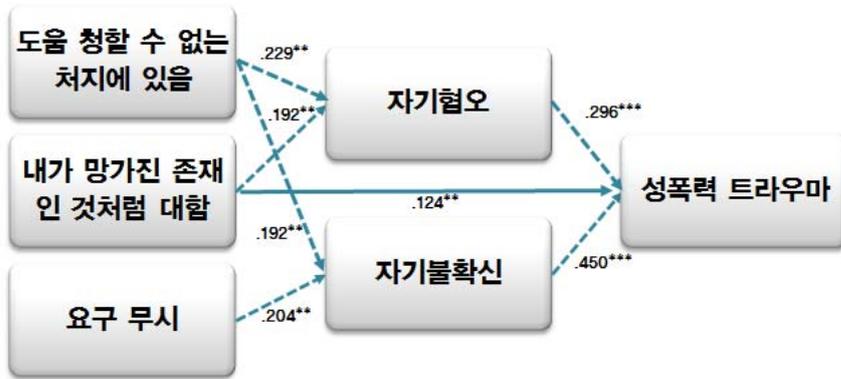


그림 2 주변반응-자기비난-성폭력 트라우마 결과

2) 긍정적 피드백과 외상후 성장

피해를 견디어 내거나 이겨내는데 가장 도움이 된 사람 혹은 기관에 대한 다중 응답 질문에 101명(37%)이 상담소가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그 다음 순으로 친구/학교 선후배 39명(17%), 도움된 사람/기관 없음 26명(12%), 엄마 21명(9%), 아빠 6명이었다. 성폭력 피해가 가장 노출이 되지 않고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범죄피해임을 감안하면, 235명 중 절반 가량인 101명이 상담기관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는 여전히 많은 성폭력 피해 경험자들이 마음을 나누고 싶은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지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의 반응에 의해 2차피해를 경험하고 피해경험을 자신의 인지도식과 균형을 맞추며 재해석하고, 이로 인해 심리적 불편감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바람으로 상담기관을 방문하여, 그들이 원하던 것 중 무언가를 얻었음을 의미한다. 피해 경험자가 상담기관에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 그 것이 다른 사람/기관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담기관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집단과 그 외의 사람/기관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집단을 나누어 외상후 성장 척도의 평균 총점수와 요인별 점수를 비교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상담기관으로부터 가장 큰 도움을 받은 집단은 외상후 성장척도 총점이 69점으로 그 외 집단과 비교하여 6점 정도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요인별 평균 점수를 비교하면, 요인 2 대인관계 깊이의 변화, 요인 3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에서 상담기관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집단이 유의확률 .05 수준에서 점수가 높게 보고되었으며, 요인1 자기지각의 변화, 요인 4 영적·종교적 관심의 증가 점수가 유의확률 .10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상담기관이 전반적으로 피해 경험자의 피해 이후 자기신뢰감을 높이고, 믿을 만한 사람도 있다는 점을 알려주며, 삶의 중요한 가치를 재정립하도록 돕고, 더 큰 존재에 대한 믿음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3 가장 도움이 된 주변 사람/기관: 상담기관의 외상후 성장 척도 평균 비교

	가장 도움이 된 사람/기관	N	평균	F	t
외상후 성장 총점	그외	119	62.92	1.257	-2.76**
	상담기관	96	69.06		
요인1	그외	122	3.18	1.391	-1.78†
	상담기관	98	3.39		
요인2	그외	125	2.84	1.725	-2.61**
	상담기관	98	3.14		
요인3	그외	124	3.36	.000	-2.34**
	상담기관	99	3.65		
요인4	그외	124	2.59	.820	-1.69†
	상담기관	99	2.83		

1요인(자기지각의 변화), 2요인(대인관계 깊이의 변화), 3요인(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4요인(영적·종교적 관심의 증가)

다음의 분석은 가장 도움이 된 사람/기관으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응답한 상담기관, 친구/학교 선후배, 엄마 집단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른 사람/집단과 다르게 피해자에게 힘이 되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엄마, 친구/ 학교 선후배, 상담 기관 모두 성폭력 피해임을 설명해주고, 피해대처법을 알려주어 피해자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엄마가 도움이 컸던 집단은 특히 엄마가 내편에 서서 어떤 판단도 않은 점이 좋았다고 보고하였다. 친구가 도움이 컸던 집단은 다른 이들보다 친구가 피해와 관련한 심리적/신체적 증세 완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상담기관은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기관보다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정서적, 심리적, 법적, 신체적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기관보다 상담기관은 피해자에게 여전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편안하게 기대게 해주며, 설명을 믿어주고, 성폭력 피해 사실과 대처방안을 알려주고, 심리적/신체적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었다. 상담기관의 위기 개입과 상담 신체적, 심리적 지원까지의 체계적인 일련의 과정을 통한 지원과 조력이 피해 후 회복,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인다.

표 4 가장 도움이 된 주변 사람/기관: 상담기관의 도움내 비교 분석

도움내용	가장 도움이 된 사람/기관	N	F	t
내가 잘못된 점이나 비난받을 이유 없다고 말해줌	엄마/그외집단	19	15.400	1.034
	친구/그외집단	37	2.060	-.537
	상담기관/그외집단	85	.016	-1.97†
내가 여전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줌	엄마/그외집단	19	1.974	.245
	친구/그외집단	37	.115	1.086
	상담기관/그외집단	85	5.651	-2.15**
편안하게, 기대게 해줌	엄마/그외집단	19	5.734	1.256
	친구/그외집단	37	.701	.323
	상담기관/그외집단	85	6.224	-2.49**
내 설명 믿어줌	엄마/그외집단	19	8.117	1.603
	친구/그외집단	37	.945	-.170
	상담기관/그외집단	85	3.064	-2.61**
내 감정 듣고 이해해줌	엄마/그외집단	19	7.351	1.750
	친구/그외집단	37	3.134	-.084
	상담기관/그외집단	85	.074	-.92
성폭력 피해임을 설명해줌	엄마/그외집단	19	.711	3.840***
	친구/그외집단	37	7.419	2.167*
	상담기관/그외집단	85	19.761	-3.79***
내편에 서서 어떤 판단도 않음	엄마/그외집단	19	8.630	1.882*
	친구/그외집단	37	1.924	-.212
	상담기관/그외집단	85	.317	-.33
피해대처법을 알려줌	엄마/그외집단	19	.010	3.399**
	친구/그외집단	37	2.180	2.580*
	상담기관/그외집단	85	15.481	-4.04***
피해와 관련한 심리적증세 완화에 도움	엄마/그외집단	19	3.209	.966
	친구/그외집단	37	1.614	2.517*
	상담기관/그외집단	85	3.485	-2.41**
피해와 관련한 신체적 문제 해결에 도움	엄마/그외집단	19	1.009	.084
	친구/그외집단	37	.338	2.753**
	상담기관/그외집단	84	.028	-3.94***

VI. 논의

조사 대상자와 조사에 포함된 성폭력의 유형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여성의 약 17% - 65%가 생애 한 번 이상 성폭력을 경험한다(Russell, 1984; Wyatt et al., 1993; Abbey, 2001; 권해수, 2005).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인구의 10% - 33% 중 일부는 사건 이후 오랫동안 아파하고 고통에 잠식당하기도 하고, 일부는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기도 하며, 일부는 자아와 사회에 대한 인지도식의 변화를 거쳐 더 성장하기도 한다. 혹은, 피해 이후 생존과 회복, 성장이 서로 배타적으로 경험되기 보다는 동시에 공존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대적 크기가 변화하는 것일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첫째, 성폭력 트라우마를 구성하는 맥락을 살펴보면서 사건 발생 자체의 특성보다는 사건 이후 경험하는 성폭력 통념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혐오하고 믿지 못하게 하여 성폭력 트라우마를 형성하게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피해 당시 연령, 피해의 지속성, 성기 삽입 여부, 가해자 신뢰 정도로 구성된 사건특성 중에서 피해자의 성폭력 트라우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해자의 가해자 신뢰 정도였다. 신뢰하던 가해자에 의한 성폭력이 피해자에게 더 큰 아픔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신뢰하던 사람에게 당한 성폭력이라도 이후 성폭력 통념을 덜 경험하였다면, 성폭력 트라우마는 높지 않았으며, 신뢰하지 않던 가해자(예, 비면식)에게 당한 성폭력이라도(완벽한 피해자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크더라도), 사건 이후 성폭력 통념을 많이 경험했다면 성폭력 트라우마가 높아졌다.

자기비난과 성폭력 트라우마에 관한 분석을 통해 피해상황에서 가해자에게 대응을 하지 못한 피해자는 자기비난을 더 많이 하고, 이 점이 성폭력 트라우마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건 이후 주변에서 성폭력 통념을 많이 할수록 자기비난이 커지고, 성폭력 트라우마가 커졌다. 사건 특성은 성폭력 트라우마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만, 자기비난을 높이지는 않았다.

둘째, 성폭력 피해와 외상후 성장의 맥락을 살펴보면 사건 자체의 특성은 외상후 성장을 설명하지 못했다. 특이하게도 성폭력 통념을 많이 경험할수록 외상후 성장도 높아졌는데, 이는 성폭력 통념이 사건의 발생 그 자체보다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며, 부러지지 않을 정도의 고통은 그 크기가 클수록 성장의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피해 후 시간의 경과를 고려하면, 시간이 경과할수록 외상후 성장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이 경과하면, 성폭력 통념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나

적게 경험한 사람 간에 차이가 없이 외상후 성장을 하였다. 성폭력 피해 경험자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대부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맞지만, 이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고통에의 잠식을 저지할 수 있는 사회적 개입을 찾고자 추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외상후 성장이 눈에 띄게 높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변의 반응이 피해자의 성폭력 트라우마와 외상후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피해자를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부정적/긍정적 피드백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주변에서 경험한 부정적 피드백 중 “내가 도움을 청하면 안 될 것 같은 처지에 있었다”, “내가 뭔가 망가진 존재이며, 예전과는 다른 존재인 것처럼 대했다”,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무시했다” 는 특히나 피해자의 성폭력 트라우마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세 가지 모두 피해자의 자기비난을 높이고 성폭력 트라우마를 심화시켰다. 이중 피해자가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그 대상이 그럴만한 위치에 있지 않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피해자는 자기혐오와 자기불확신이 높아지고, 이 점이 성폭력 트라우마에 영향을 미쳤다. 피해자를 망가진 존재인 것처럼 대한 경우 피해자는 자신을 더 많이 혐오하였고, 피해자의 요구가 무시한 경우 피해자는 자기 불확신이 높아져 성폭력 트라우마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

주변의 긍정적 피드백으로 인해 피해자가 도움을 받은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을 때, 235명의 피해자 중 101명(37%)이 상담기관으로부터 가장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여, 상담기관의 도움이 다른 사람/기관과 어떤 점이 달랐는지 분석하였다. 상담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피해자들은 특히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등 대인관계의 깊이가 성장하였고, 새로운 계획이나 목표가 생기는 등 새로운 가능성의 더 많이 발견하였다. 엄마, 친구/선호배, 상담기관에게 가장 큰 도움을 받은 피해자 모두 자신의 경험이 성폭력 피해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피해자들은 엄마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 점, 친구가 심리적/신체적 고통을 완화시키는 안식처가 되어준 점을 높이 샀다. 상담기관은 피해자가 여전히 좋은 사람임을 확인시켜주고, 편안하게 기대게 해주었고, 설명을 믿어주었고, 심리적/신체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해준 점이 다른 사람/기관의 도움과 달랐다.

이 결과가 상담기관이 역할을 매우 잘 하고 있음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본 연구의 설문대상 235명 중 성폭력 상담센터를 통해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117명(52.0%)이므로, 101명이 상담기관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한 빈도결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로 4명은 피해 이후 가장 원망스러운 사람/기관으로 상담기관을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기관의 도움이 피해자의 외상후 성장을 유의하

게 높이고, 피해자의 정서적/신체적 기능을 향상시켰다는 결과는 그만큼 피해자 주변의 지지가 미약했다는 사실의 반증일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고한 가장 컸던 주변의 도움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피해자의 편에 서서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믿어주고, 성폭력 피해임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피해가 심할수록 외상후 성장도 높은 경향이 있다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의 생각을 뒤엎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피해가 심하면 더 움츠려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움츠리면 더 높이 뛸 수도 있다. 통념 약화를 통해 2차 피해, 자기비난 요인을 지속적으로 줄여야 할 것이지만, 문화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강간신화를 지지하는 기조가 여전한 이상 성폭력 상담기관이나 위기관리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지를 통해서나마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 성폭력 피해 경험자의 말을 끝으로 본 장을 마치도록 한다.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데 전 거의 20년이 걸렸습니다.”

“당시 정신분석의는 저에게 그 상황에 대해 직면하게 해주었을 뿐 그것이 성폭력이라는 것을 이야기 하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이 제가 초래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제 잘못일 수 없다는 말 같은 것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성폭력으로 규정한 것도 나였으며, 성폭력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한 것도 나였고,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님을 밝혀 낸 것도 나였습니다.”

“초등학교시절 이종사촌에 의해 지속적인 성폭행 피해를 당했고, 어머니께 피해사실을 고백했으나 어머니께서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고, 아버지께는 절대 말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들으며 외면당했습니다. 어머니께 외면당하고 난 후 세상사람 모두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었고, 저도 또한 저의 피해사실을 외면하고 축소하며 홀로 고통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제 관계 안에서도 한 줌이지만, 가해자와 2차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비난하고,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도 힘을 내고, 정말 나쁜 마음은 안 먹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비운 뒤에 땅이 굳는다고 많이 강해졌습니다. 싸우면서 강해졌고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강해졌습니다. 앞으로 계속 강해질 자신도 생겼습니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인 나와 또다른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경험과 힘들었던 시간,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신뢰의 부재 속에서 마음으로 의지할 데 없이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 예전에는 몰랐던, 보지 못했지만 내 곁에 있고 내게 도움을 줄 손을 가지고 있고,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기억들을 되짚는 것이 편안한 일은 아니었으나, 곧 극복하고 차분하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신뢰해 주는 사람에게 힘든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던 것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끝내고 나니 한 단계 더 진전한 기분이에요.”

“설문에 답을 하는 동안 그 동안의 다양한 경험, 상처, 상처, 기억들이 나고 재정리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과거의 사건을 재명명하는 과정을 통해 편안한 기분을 느낍니다.”

“설문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성폭력 사건과 그 이후의 인생과 가치관,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금 알게 되었고, 답하면서 뭔가 후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 피하기보다 성폭력에 대한 사건이나 반응 정도, 극복하게 된 객관적인 이야기들을 용기 내서 접근하는 것이 더 건강한 삶을 위해 좋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모든 피해자들이 사고 직후 움츠러들거나 하는 약한 존재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사건 해결을 능동적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경찰, 검찰의 틀에 박히고 단면만 보는 생각들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라고 해서 안쓰럽다거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피해를 충분히 이겨낼 만큼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피해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고 극복할 수도 있다. 모두가 고통 속에 사는 것은 아니다.”

“제 자신의 상처, 그리고 피해를 극복하는 과정을 잘 밟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행운이었고,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 저 또한 제가 겪은 피해를 제 삶의 일부로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고, 지금은 그 피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피해 경험 그 자체에 집착하기보다, 그 경험으로 인해 제가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것들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 용기 내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는, 아니면 어딘가에 혼자 앓고 있을 다른 피해경험자들이 밖으로 나와서 그들의 피해에 대해 조금 더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성폭력이 씻어지지 않는 피해일 것 같아, 내 평생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 같아 두려웠지만, 평생 ‘정상’이 되지 않을까 겁이 나서 계속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만 조금이라도 ‘깨끗하고’ 그나마 ‘인간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정상이나 극복이 꼭 중요하지도, 성폭력이 평생 따라다니는 씻을 수 없는 피해이기만 하지도 않았습
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최악의 불행한 시나리오를 떠올리며 성폭력을,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피해경험에 대해 말하는 것을, 트라우마를 인정하는 것을, 자기치
유를 하는 것을 망설이거나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만드는 성폭력 피해의 의미

가

추지현(울림 객원연구원)

I. 서론

연구 과정에 인터뷰이로 참여했던 30명의 피해자 중 동거 가족에 의한 폭력(이하 “가정폭력”¹⁾) 피해 경험을 언급한 사례들은 전체의 90%에 가까운 26명에 달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서도 성인기 이전에 가족 구성원에 의해 폭력을 직접 경험하거나 부부간의 폭력을 목격한 비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성폭력과 가정 폭력 피해를 동시에 혹은 시간차를 두고 반복하여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우연으로 보기는 힘들다. 범죄피해조사 등을 통해 전 생애에 걸쳐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를 반복해 경험하거나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피해자들의 비율이 상당하다는 점이 보고되고 있고, ‘중층피해’, ‘다중피해’ 혹은 ‘재피해’²⁾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들이 발전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성/폭력을 중층적으로 경험하는 여성들에게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해명하는 것이 주된 관심이 되고 있으며 가정폭력의 결과로 형성되는 피해자의 무기력, 분노, 우울, 자존감 등 심리적 장애요인들을 그 ‘원인’으로 진단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피해 발생의 상황적, 사회적 맥락을 소

-
- 1) 본 연구에서 가정폭력은 아내폭력에 국한되지 않으며, 가족 내 구성원으로부터의 물리적, 언어적 폭력 및 방임의 직간접 경험을 모두 지칭한다.
 - 2) ‘중층피해’와 ‘재피해’는 개념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다만 성폭력과 가족 내 신체적 폭력, 폭언, 학대, 협박 등이 서로의 직접적인 수단이 되면서 특정 시공간적에서 동시 발생하는 경우, 두 폭력의 관계를 ‘중층overlapping, multi-layered’이라는 언어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 한 개인의 생애 속에서 전혀 다른 상황, 다른 가해자들에 의해 부모 폭력, 아동기 학대, 성인기 강간 등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는 사례들과 같이 그 시간차를 상징하는 연구들은 주로 ‘재피해revictimiz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재피해’가 시퀀스를 강조한다면 ‘다중피해poly-victimization’라는 용어는 피해 내용의 이질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중층피해’로 표현하였다.

거한 채 성폭력 피해에 특별히 취약한 피해자가 있다는 식의 논의는 성폭력의 ‘피해자 유발론’ 과 결부될 위험이 매우 크다. 페미니스트 범죄학자들의 경우,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가 이후의 성폭력 피해로 이어지는 경로를 설명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처해 있는 사회, 경제적 조건에 주목해왔다. 성/폭력이 발생하는 이러한 조건이 변하지 않는 한 피해는 지속될 수 밖에 없고 그것이 여성들을 피해자 뿐만 아니라 ‘범죄자’ 로 만들기도 한다는 점을 폭로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피해자들의 행위성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를 그저 ‘당하는’ 무엇으로 상정하고 있어 이들이 중층피해의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이후 현실에 대한 저항, 순응, 타협 등 피해 극복의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학계 밖에서도 피해자 지원이나 극복 과정의 관점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간의 연관성에 주목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애당초 가정폭력 특히 아내폭력과 성폭력의 연속선을 출발로 삼았던 반성폭력운동에서도 아내 강간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면 중층폭력 피해에 관한 담론은 부재한 형편이다. 대중담론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대해 각각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디어 혹은 국가의 “4대 사회악” 캠페인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연관성이란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조두순, 유영철과 같은 극단의 성폭력 가해자를 만든다는, 이른바 폭력의 세대전이에 대한 논의 정도이다. 더구나 이러한 논의에서 주목받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철저히 남성이다. 그들 사이 코패스와 같이 사회적 해악이 될 가능성도 그렇다고 국가나 사회의 입장에서 유용할 것도 없는 가정폭력의 여성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비가시화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혹은 어떤 피해자들이 가정폭력의 피해와 성폭력의 피해를 반복, 중층적으로 경험하는지를 해명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것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의미화, 극복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의 삶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중층 피해 경험이 어떻게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자 했다. 이를 통해 일련의 폭력 경험들 속에서 성폭력은 어떻게 의미화 되는지, 이 과정에 가정폭력의 피해 경험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해명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의 의미는 개인마다 다르다”, “가정폭력이 성폭력에 취약한 피해자를 만든다” 는 식의 논의를 넘어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개입의 지점을 고민하는 데에도 중요한 선행 작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II.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본 성폭력 피해자들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

자신을 성폭력 피해자로 정체화한 235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반성폭력 운동단체의 연계와 온라인, 대학 강의 등을 통해 참여자가 확보되었다. 가정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만 18세 이전에 동거 가족으로부터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등 심한 말을 들은 경우(‘언어적 폭력’), 손발로 때리거나 물건으로 위협을 당하거나 맞은 경우(‘물리적 폭력’), 도움이 필요할 때 오랜 시간 방치된 경험(‘방임’)에 대하여 직접 피해를 당한 정도와 부부간의 폭력을 목격한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토록 하였다.

1. 성폭력 피해자의 가정폭력 피해 실태

아래 표2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들의 50% 이상이 만 18세 이전에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물리적, 언어적 폭력과 방임을 경험했다고 답하고 있다. 부모간의 언어적 폭력과 물리적 폭력을 목격한 비율 역시 50%를 넘는다.

표 1 성폭력 피해자들의 가정폭력 경험 비율

피해 유형		응답자	빈도	비율(%)
직접 피해	물리적 폭력	217	113	52.1
	언어적 폭력	226	156	69.0
	방임	218	119	54.6
부부간 폭력 목격	언어 폭력	197	134	68.0
	물리적 폭력	195	104	53.3
	아내 강간 등	180	27	15.0

각 폭력 피해들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3과 같이 모든 유형의 폭력들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해 각각의 유형이 가족 내에서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물리적 폭력에는 언어적 폭력이 수반되며, 부부간 폭력이 목격되는 곳에서는 자녀에 대한 폭력과 방임 역시 동반되고 있다.

표 2 가정폭력 경험들간 상관관계

	언어폭력	물리폭력	방임	언어폭력 목격	물리폭력 목격	아내강간 등 목격
언어폭력	1					
물리적폭력	.711***					
방임	.536***	.532***				
언어폭력(목격)	.460***	.509***	.391***			
물리폭력(목격)	.411***	.526***	.327***	.755***		
아내강간등(목격)	.284***	.355***	.225**	.407***	.517***	1

* $p < .05$, ** $p < .01$, *** $p < .001$

물리적, 언어적 폭력에 있어서는 그 주된 가해자가 아버지인 경우가 49.1%와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방임의 경우에는 어머니인 경우가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상 도움에 대한 기대는 1차적으로 엄마를 향해 있으며, 폭력의 주된 가해자가 아버지라는 점에서 그에게는 애당초 도움을 기대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친족성폭력의 경우에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동반되는 경우가 더욱 많았다. 아래 표3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와 그렇지 않은 피해자들간의 가정폭력 피해의 정도를 비교한 것이다.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피해자들에 비해 가정폭력을 경험한 빈도가 모든 유형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물리적 폭력에 대한 경험 빈도나 ‘도움이 필요한 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방임에 대한 응답 비율에 있어서는 친족성폭력 피해자와 그렇지 않은 피해자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단,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성폭력 피해에 대한 도움을 가족 내 구성원에게 기대했을 가능성, 그리고 이것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경우 ‘방임’으로 평가하여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다.

표 3 친족성폭력 여부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정도의 차이

	친족성폭력	N	평균	표준편차	t 값
언어적 폭력	해당없음	165	3.19	1.377	-1.641
	해당	51	3.55	1.361	
물리적 폭력	해당없음	160	2.72	1.476	-2.134*
	해당	48	3.25	1.631	
방임	해당없음	160	2.67	1.478	-4.216***
	해당	48	3.63	1.347	

* $p < .05$, ** $p < .01$, *** $p < .001$

2. 성폭력 피해 경험 시기와 가정폭력 피해의 영향

많은 여성들은 생애 전 시기에 걸쳐 폭력 뿐만 아니라 다종의 성폭력 피해 역시 반복해 경험한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생애 전체를 통틀어 경험한 성폭력 피해의 종류와 그 시기를 물었다. 설문에 참여한 235명의 피해자 중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등 생애의 특정 시기에만 피해를 경험한 경우는 전체 피해자의 48.2%에 해당한 반면, 둘 이상의 시기에 걸쳐 피해가 반복된 경우는 전체의 52.4%를 차지하고 있었다. 친족성폭력과 같이 피해가 생애 시기에 지속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물론 특정 시기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질적인 성폭력 피해를 반복하여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들의 성폭력 중복 피해 경험은 더욱 높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아래 표4와 같이, 성인기에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집단과 비교할 때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에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집단에서는 성장기(아동 및 청소년기)에 물리적 폭력을 직접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기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집단은 부부간의 물리적 폭력 발생을 목격한 빈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물리적 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가족 환경일수록 성폭력 피해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4 생애 시기별 성폭력 피해의 경험 여부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 경험 여부

생애 시기 성폭력 피해 경험여부			N	평균	표준편차	t 값
직접 피해 (물리적 폭력)	아동기	없음	118	2.55	1.424	-2.777**
		있음	99	3.13	1.620	
	청소년기	없음	103	2.43	1.411	-3.629***
		있음	114	3.17	1.574	
	성인기	없음	52	2.62	1.623	-1.076
		있음	165	2.88	1.513	
간접 피해 (물리적 폭력)	아동기	없음	102	2.57	1.411	-1.924
		있음	92	2.98	1.555	
	청소년기	없음	92	2.42	1.439	-3.072**
		있음	102	3.07	1.478	
	성인기	없음	52	2.62	1.623	-1.076
		있음	165	2.88	1.513	

* $p < .05$, ** $p < .01$, *** $p < .001$

아래 표5는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생애 시기의 범위span에 따라 이들이 경험한 가정폭력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표 5 성폭력 재피해 경험 집단별 가정폭력 경험 정도의 차이

생애 성폭력 피해 시기		N	평균	표준 편차	F 값	사후검증 (Scheffe)
언어적 폭력 피해	1집단	105	2.96	1.393	6.497**	3집단>1집단
	2집단	67	3.31	1.293		
	3집단	52	3.79	1.377		
물리적 폭력 피해	1집단	103	2.43	1.459	10.948***	3집단>2집단>1집단
	2집단	61	2.82	1.420		
	3집단	51	3.61	1.563		
방임 피해	1집단	102	2.49	1.426	7.673**	3집단>1집단
	2집단	63	3.06	1.447		
	3집단	51	3.43	1.578		
언어적 폭력 목격	1집단	88	2.85	1.410	8.423***	3집단>1집단
	2집단	61	3.34	1.365		
	3집단	46	3.87	1.343		
물리적 폭력 목격	1집단	88	2.42	1.452	4.825**	3집단>1집단
	2집단	59	3.00	1.390		
	3집단	46	3.15	1.563		
아내강간 등 목격	1집단	81	1.54	.881	1.739	
	2집단	55	1.85	1.026		
	3집단	43	1.70	1.013		

* $p < .05$, ** $p < .01$, *** $p < .001$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의 모든 시기에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집단을 ‘3집단’, 이들 중 특정 두 시기에만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집단을 ‘2집단’, 어느 한 시기에만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집단을 ‘1집단’으로 나누었다. 아래의 결과에서는 부부간 강간에 대한 목격을 제외하면, 생애 전 시기에 걸쳐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3집단이 1집단에 비해 폭력의 직접 피해 정도나 부부간 폭력의 목격 정도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의 경험 정도가 높을수록 피해자들이 생애 전 시기에 걸쳐 반복적인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의 표4와 표5가 말해주듯이 폭력이 발생하는 가족 환경은 청소년기의 성폭력 피해 뿐만 아니라 생애 전 시기에 걸쳐 반복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성폭력 피해의 대응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의 영향

가정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성폭력 피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특징이 있을까?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직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데 가정폭력 피해의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아래 표6과 같이 성폭력 피해 직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에 성장기 가정폭력 피해의 경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방임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피해자들의 경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방임은 성폭력 피해에 대한 발화를 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임’의 정도는 그 자체로 성장기 성폭력 피해 과정에 대한 가족의 대응 과정에 따라 사후적으로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두고 일상적인 방임이 이뤄지는 가정에서 자라난 피해자들이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 혹은 국가기관에 성폭력 피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미흡한 대응능력을 가진 것이라 단언하기는 어렵다.

표 6 성폭력 피해 직후 도움요청 유무에 따른 가정폭력 경험 정도의 차이

	도움요청유무	N	평균	표준편차	t 값
언어적 폭력 피해	도움요청않음	91	3.24	1.344	-.092
	도움요청	135	3.26	1.435	
물리적 폭력 피해	도움요청않음	87	2.90	1.525	.632
	도움요청	130	2.76	1.554	
방임 피해	도움요청않음	88	3.14	1.440	2.104*
	도움요청	130	2.70	1.543	
언어적 폭력 목격	도움요청않음	79	3.39	1.400	1.264
	도움요청	117	3.13	1.459	
물리적 폭력 목격	도움요청않음	76	2.91	1.471	1.088
	도움요청	118	2.67	1.502	
아내강간 등 목격	도움요청않음	74	1.72	.929	.512
	도움요청	106	1.64	.987	

* $p < .05$, ** $p < .01$, *** $p < .001$

성폭력 피해 당시의 대응유무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도 친족성폭력 피해 유무만이 유의한 설명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이때 방임을 비롯한 가정폭력의 직간접 피해 경험은 모두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친족 성폭력을 제외하면 성

폭력 피해자들이 피해와 관련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정폭력 피해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성폭력 피해의 특성이나 당시의 상황 등이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가정폭력이 피해자들을 무기력함과 인지능력의 결여 상태로 만들어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는 기존의 연구들은 반박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Ⅲ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지속적인 가정폭력의 피해 경험은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참을 수 만은 없다는 분노와 적극적 대처를 자극하는 동인이 되기도 한다.

4. 가정폭력 피해의 효과로서 젠더를 수용과 성폭력 통념 경험

페미니스트들이 강조해온 바, 여성에 대한 물리적, 언어적 폭력 등과 성폭력은 여성의 남성성에 대한 의존과 두려움을 강화시키고 피해 여성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젠더화되어 있다. 이에 피해자들이 현재 갖고 있는 젠더 관념의 형성에 가정폭력 피해의 경험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아래 표7과 같이 성장기에 직접 폭력을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전통적인 젠더롤을 더욱 수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것은 아니었다. 다만 부부간의 물리적 폭력이나 성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들의 경우 젠더롤에 대하여 더욱 보수적인 경향을 띠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아내폭력이 여성에 대한 통제를 행사하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한 자녀들에게도 불평등한 성역할 모델을 제공하여 여성과 남성으로서의 사회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표 7 가정폭력 경험여부에 따른 젠더롤 수용 차이

가정폭력 피해 경험 여부		N	평균	표준편차	t 값
가폭 언어 여부	없음	68	2.10	.672	-.765
	있음	154	2.18	.704	
물리	없음	100	2.06	.646	-1.680
	있음	113	2.22	.725	
방임	없음	96	2.05	.656	-1.619
	있음	118	2.20	.723	
언어폭력 목격	없음	60	2.02	.635	-1.465
	있음	132	2.17	.676	
물리적 폭력 목격	없음	88	2.00	.636	-2.509*
	있음	102	2.24	.675	
아내강간등 목격	없음	149	2.08	.655	-2.579*
	있음	27	2.43	.648	

* $p < .05$, ** $p < .01$, *** $p < .001$

이에 반해 아래 표8과 같이 성폭력 피해와 관련해 피해 여성의 부주의와 피해 유발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그들이 ‘더럽혀진’ 여성으로서 수치스럽다는 등 성폭력에 대한 통념에 기반한 비난을 직접 경험한 비율은 부부간 폭력을 목격한 집단 보다는 성장기에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직접 경험한 집단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Ⅲ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많은 경우 언어적, 물리적 폭력의 가해자인 아버지는 자녀의 성폭력 피해를 알게 된 이후 이들에 대한 비난으로 폭력을 더욱 강화하기도 하고 가해자의 폭력 자체가 성적 이중규범을 내포하며 성별화 되어 있기도 하다.

성폭력에 대한 통념으로 자신에게 가해지는 비난들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이후 불평등한 젠더 관계에 대한 자각을 통해 자신의 젠더롤을 수정해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경험하는 정도와 현재의 젠더롤 수용 태도가 반드시 선형의 관계를 이루지는 않는다.

표 8 가정폭력 경험 여부에 따른 성폭력통념갈등 경험의 차이

가정폭력의 피해경험 여부		N	평균	표준편차	t 값
언어적 폭력	있음	148	.36	.221	3.126**
	없음	63	.26	.201	
물리적 폭력	있음	110	.39	.230	4.071***
	없음	93	.26	.193	
방임	있음	113	.35	.213	1.749
	없음	90	.30	.230	
언어적 폭력 목격	있음	106	.34	.230	.582
	없음	79	.33	.207	
물리적 폭력 목격	있음	79	.35	.237	.895
	없음	106	.32	.209	
아내강간 등 목격	있음	27	.34	.247	-.023
	없음	44	.34	.222	

* $p < .05$, ** $p < .01$, *** $p < .001$

표 9 젠더를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B	β
(상수)		1.492***	
현재연령		.085	.105
성폭력 피해 관련 요인	피해 연령	.105	.158
	피해 지속여부	-.201	-.152
	성기삽입 피해여부	.129	.097
	상황대응 여부	.169	.122
	생애별 성폭력 피해총합	-.222	-.273**
가정폭력 피해 관련 요인	방임의 직접경험 정도	.031	.070
	물리적 폭력의 직접경험 정도	-.024	-.056
	물리적 폭력의 간접경험 정도	.129	.297**
R ²		.211	
adjusted R ²		.154	
F		3.731***	

* $p < .05$, ** $p < .01$, *** $p < .001$

위의 표9는 피해자들의 현재 젠더를 형성에 가정폭력의 피해 경험과 성폭력 피해의 경험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시기, 피해의 결과 성기 삽입이 있었는지 여부, 피해의 지속여부, 피해 당시 가능한 저항이나 대응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당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등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특성들은 현재의 젠더 관념 형성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비해, 생애 경험한 성폭력 피해의 횟수, 부부간 물리적 폭력의 목격 정도 두 가지는 이것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생애 성폭력의 반복된 피해 노출은 더욱 평등한 젠더 관계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부간 폭력의 목격은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었다. 성장기의 아내 폭력 목격의 정도가 갖는 β 값이 .297로 생애 성폭력 피해의 경험 정도의 상대적 설명력인 .273보다 더욱 커 위 두 가지 요인 중에서는 아내 폭력의 목격 경험이 젠더를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성폭력 피해 극복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의 영향

총래의 PTSD 측정 문항에 성폭력 피해에 대한 자기 비난 요소들을 포괄하여 성폭력 피해 이후의 부정적인 느낌과 무의식적인 몸의 반응의 경험 정도(이하 ‘성폭력 트라우마’)를 물었다. 위 표10은 성폭력 피해자들 중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의 성폭력 트라우마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이다.

성장기 가정 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집단에서는 성폭력 트라우마가 모두 높게 나타나며 특히 직접 폭력을 경험한 경우와 부부간 물리적 폭력을 목격한 경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많은 연구들은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성폭력 피해자 집단 간의 트라우마 차이를 두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낮은 자존감, 무기력감 등이 이후 성폭력 피해의 원인인 것처럼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모두를 경험하면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가정폭력의 어떠한 측면이 성폭력 피해에 대한 트라우마를 강화시키는지 설명되어야 한다.

표 10 가정폭력 경험여부에 따른 성폭력 트라우마 차이

가정폭력 피해 경험 여부		N	평균	표준편차	t 값
언어적 폭력	없음	62	3.03	.845	-4.745***
	있음	150	3.58	.727	
물리적 폭력	없음	94	3.11	.835	-5.214***
	있음	110	3.67	.693	
방임	없음	90	3.14	.856	-4.389***
	있음	115	3.62	.700	
언어폭력 목격	없음	56	3.29	.850	-1.153
	있음	127	3.49	.779	
물리적 폭력 목격	없음	83	3.25	.895	-2.815**
	있음	98	3.59	.684	
아내강간등 목격	없음	142	3.39	.835	-1.681
	있음	26	3.68	.701	

* $p < .05$, ** $p < .01$, *** $p < .001$

성폭력 피해 이후 경험하는 성폭력 트라우마에 있어 가정폭력 피해의 상대적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성/폭력 관련 변수들을 단계적으로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11이다.

표 11 성폭력 트라우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B	β	B	β	B	β	B	β
(상수)	3.363***		3.109***		2.932***		2.694***	
지속여부	-.262	-.171	-.219	-.143	-.175	-.114	-.176	-.115
당시연령	-.006	-.069	-.005	-.056	-.003	-.028	-.007	-.081
성기질 내삽입여부	.241	.157	.232	.151	.186	.121	.168	.109
상황대응	.426	.269**	.433	.274**	.415	.262**	.355	.225**
생애별피해총합	.045	.047	-.015	-.016	-.027	-.028	-.051	-.053
물리적 폭력			.110	.218*	.062	.122	.023	.046
물리적 폭력 목적			-.002	-.004	-.011	-.022	.013	.026
방임					.121	.234*	.110	.214*
도움요청유무							.034	.021
주변반응_도움							.027	.028
성폭력통념경험							1.040	.297**
R ²	.148		.189		.226		.307	
adjusted R ²	.110		.138		.171		.236	
F	3.955**		3.724**		4.061***		4.346***	

* $p < .05$, ** $p < .01$, *** $p < .001$

1단계 모형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 연령이나 피해의 지속여부 보다는 성폭력 피해 당시의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을 했는지 여부가 피해 이후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피해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비난요인이 주변의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결합하면서 가져오는 결과로 보인다. 다른 변수들을 추가한 최종 단계의 모형에서도 이것은 계속하여 유의한 변수로 남게 된다. 2단계 모형에서 물리적 폭력의 직접 피해 경험은 성폭력 트라우마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방임 피해 변수를 추가한 3단계 모형에서는 더 이상 성폭력 트라우마의 정도를 설명하는데 유의한 변수가 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방임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물리적 폭력 피해를 함께 경험하며, 절대적인 물리적 폭력의 경험 강도 그 자체보다는 성/폭력 피해 당시 도움을 주지 못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원망(‘방임’)이 남아 있는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한 무의식적인 반응들을 더 경험하게 된 결과로 보인다. III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물리적 폭력 피해의 상황에서 피해를 함께

한 가족 구성원과의 연대감 혹은 자신을 보호해준 보호자의 존재 여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의미를 구성하는데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모든 변수를 투입한 4단계 모형의 결과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트라우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폭력 피해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경험한 정도이며 가정폭력 중 ‘방임’ 피해의 정도는 이보다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성폭력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 이후 더 큰 트라우마와 부정적 감정들을 경험한다고 하여 이들이 지속적인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는 것만은 아니다. 아래 표12는 성폭력 피해 이후 피해자들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피해라는 ‘불행’의 경험을 새로운 삶에 대한 긍정적 계기나 의식적인 변화의 동인으로 해석하는 회복력의 정도를 측정하여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집단 여부에 따라 비교를 한 것이다.

표 12 가정폭력 경험여부에 따른 회복력 차이

가정폭력 피해 유무		N	평균	표준편차	t 값
언어적 폭력	없음	61	2.9977	.74690	-1.595
	있음	146	3.1875	.79427	
물리적 폭력	없음	94	2.9438	.72649	-2.967**
	있음	106	3.2677	.80808	
방임	없음	90	3.0661	.70427	-1.121
	있음	111	3.1918	.85291	
언어적 폭력 목격	없음	57	3.1153	.72066	-.630
	있음	123	3.1940	.80441	
물리적 폭력 목격	없음	82	3.1487	.77478	-.443
	있음	97	3.2008	.79117	
아내강간등 목격	없음	142	3.0798	.75528	-2.117*
	있음	24	3.4286	.69007	

* $p < .05$, ** $p < .01$, *** $p < .001$

물리적 폭력 피해를 경험하거나 부부간 성폭력이라는 극단적인 부부 폭력을 목격한 피해자들의 경우 회복력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 피해가 성폭력 피해 이후의 혼란을 가중시키거나 피해에 대한 취약함을 만든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성/폭력의 피해 경험이 피해자들을 오직 고통 속에만 가둬두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피해자들은 중층피해의 경험을 통해 현실에 유연하게 적응하기도 하고 새롭게 자신을 구성해나가기도 한다.

Ⅲ. 생애 이야기를 통해 본 성폭력 피해자들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

Ⅱ장의 결과들은 가정폭력 피해의 경험이 어떻게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거나 회복력을 가져오는지 그 매커니즘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못한다. 이하에서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함께 경험한 피해자들의 생애 이야기를 통해 일련의 폭력 피해 속에서 성폭력 피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피해자들의 생애 이야기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폭력이라면 물리적, 언어적 폭력 뿐만 아니라 방임과 유기, 학대 등 그 형태를 불문하고 분석에 포함시켰다. 가족구성원에 의한 이와 같은 폭력 피해 경험을 언급한 사례들 중 초기 이야기에서 그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가 동반되지 않은 경우, 폭력이 존재했으나 “체벌”, “가정불화” 혹은 쌍방간 폭력으로 가볍게 의미화하고 있는 경우들은 제외하고 12명의 사례가 분석 대상이 되었다.

표 13 인터뷰이 정보

사례 번호	현재 연령	성폭력 피해	가정폭력 피해
1	29	- 어린시절. 외삼촌의 키스. - 10-11세. 오빠에 성기 노출 - 25세. 소개팅남에 의한 준강간 - 27세. 진보정당 당원에 의한 준강간	- 어머니의 지속적 폭력과 방임(정신 지체 3급) -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폭력 - 오빠의 폭력
2	25	- 유치원. 아버지가 목욕시키며 초행 - 22세. 채팅남과의 데이트 강간	- 4살때부터 아버지의 폭력
4	24	- 23세. 대학남자선배들의 성희롱발언	- 7살때까지 아버지의 폭력
5	25	- 5-17세. 할아버지 강간 - 10세. 아버지의 키스. 오빠의 만짐 - 13-17세. 오빠의 강간 - 14세. 오빠 친구 강간	- 22세 가출시까지 아빠, 오빠, 할머니의 폭력
6	26	- 11-15세. 아버지의 강간	- 아버지의 어머니 폭력(빈도 크지 않음) - 아버지의 폭력
14	33	- 16세. 단전호흡 관장의 강제추행 - 17세. 담임 준강간 - 18세. 채팅남의 강간 - 19세. 낯선남자 강제추행 - 28세. 키스방 사장 유사강간	- 20세까지 아버지의 폭력과 아내폭력 목격
16	35	- 5세. 동네 아저씨 추행 - 13세. 삼촌 추행 - 어린시절-14세. 아빠 추행 - 15세. 성매매 업주, 매수자 강간. - 24세. 대학선배 준강간	- 14세까지 아버지의 폭력과 아내폭력 목격
18	25	- 13세, 21세9와 의붓아빠의 강간	- 12세까지 친아빠의 폭력, 아내폭력
19	52	- 9-12세. 셋째오빠 강간 (5회가량) - 11-12세. 둘째오빠 강간(3회가량)	- 4세 아빠 사망 - 22-23세. 동거남의 폭력 - 30-39세. 두 번째 남편의 폭력

22	28	- 10-16세: 오빠의 폭력	- 9세: 오빠가 팬티벗겨 성기만짐 - 11세: 오빠가 키스 - 11-16세: 잠든새 오빠가 만짐
24	29	- 27세. 고향 오빠의 준강간	- 8-16세. 새아빠의 엄마에 대한 폭력
28	34	- 10세. 낯선아저씨 2명의 “성폭행”	- 31-32세. 재혼남의 폭력

1. 성/폭력의 피해 경험

가정폭력의 피해 경험이 성폭력 피해의 의미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보기에 앞서 이들의 ‘살았던 생애사’ 를 중심으로 이질적인 성/폭력들이 상호 어떻게 연관되어 발생하고 있는지 그 양상을 정리해보자.

(1) 성폭력으로 인한 가정폭력의 강화, 중단, 약화

① 성폭력 피해에 대한 부정과 비난 행위로서 가정폭력

Ⅱ 장의 표2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물리적 폭력이 난무한 가정 내에서는 언어적 폭력 역시 높게 동반된다. 그리고 남성들의 언어적 폭력은 여성에 대한 비하나 통제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담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자녀의 성폭력 피해는 그들이 성폭력을 유발했다는 식의 비난으로 쉽게 발전한다. 나아가 자녀를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강화되면서 보호력이 아닌 폭력이 성폭력 피해 발생에 대한 해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사례14는 아버지가 “엄하신 편” 이어서 항상 “눈치를 보고 위축되어 있던 나” 라는 관점에서 생애 이야기를 시작한다. 사례14의 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사례를 “이 새끼” , “저년” 등으로 부르거나 짧은 치마를 입으면 “창녀” 같다는 등 언어적 폭력을 지속 해왔다. 사례14에 대한 물리적 폭력 역시 중학교 3학년때 같은 반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이유로 시작되었다. 이 시기, 사례는 동네 단전호흡의 관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아버지가 피해 얘기를 듣고 더욱 폭력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당시 사례 14는 엄마에게 자신의 피해를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할 정도로 아버지의 폭력성은 성폭력 피해를 발화하는데 장애요인이 되었다. 엄마를 통해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아버지는 “관장이 성추행 하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은 왜 가만히 있냐, 왜 너 혼자 예민하냐” 며 사례14를 또 때렸다. 사례14는 아픈 것을 치료해달라며 자신을 다시 관장에게 데리고 가던 아버지의 모습을 “인신매매룸에 넘기는 것 같은 기분” 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관장의 추행은 6개월간 지속되었다.

이후 고등학교 1학년때, 사례가 교사로부터 강간을 당하면서 “온전한 정신”이 아닌 채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남자를 만나는 등 방향이 시작되자 아버지의 폭력은 더욱 심해졌다. 사례14는 성폭력 피해 당시 자신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사실로 인해 피해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기도 했지만 “더더군다나 이런 일을 아버지가 알면 더 나한테 마치 어디 중동이나 이런데 명예살인 있는 것처럼” 폭력을 가할 것 같은 두려움도 컸다고 이야기한다. 성폭력 피해를 이해하고 지지망이 되어 줄 가족의 부재로 인해 사례14의 방향은 더 심화되었고 이것을 명분으로 아버지의 폭력 역시 강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때문에 사례14는 그 시절을 “집에 가면 가족폭력, 학교가면 그놈인 인생이 지옥” 이던 상황, “버리고 싶은 과거” 로 이야기한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에 대한 발화가 힘들어지거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으로서 가정폭력이 강화되는 경우는 사례5에게서도 발견된다. 사례5는 초등학교 입학식날 새벽, 할아버지와 “성관계” 를 나누던 광경을 할머니에게 들켰다. 할머니는 이후 사례5가 머리만 감아도 색기를 부린다며 견제를 했고 “니가 유혹한다” 며 비난했으며 명이 들 정도로 때렸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나도 안우는데 니가 왜 울어, 니가 정부냐” 라고 말하며 사례5를 때렸다. 사례5는 엄마의 가출로 할아버지, 아빠, 오빠 등 자신에게 성폭력을 가한 모든 가해자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유일한 보호막이 될 수 있었던 할머니는 사례5가 할아버지를 “유혹” 한 것으로 간주하고 학대했다. “여자가 서울가면 다 갈보년 된다” 며 전통적인 젠더 관념을 갖고 있던 할머니는 사례5의 가족 내 폭력 피해를 더욱 강화시켰다. 사례가 성적인 존재로서 남성을 유혹한다는 비난은 사례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오빠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할머니는 “여우년” 이라며 피해자를 나무랐다. 할머니 뿐만 아니라 아빠 역시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하며 피해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했으며 오빠 역시 사례5가 유혹해서 “뺏겼다” 며 소문을 내고 다녔다. 이로 인해 사례5는 학교에서 왕따와 폭력의 피해에 노출되기까지 했을 정도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은 사례의 생애에서 폭력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② 성폭력 피해가 계기가 된 이혼과 가정폭력의 중단

성폭력 피해가 가정폭력을 강화시키기도 하지만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동시에 발생하고 이 상황에 개입해줄 또 다른 보호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성폭력을 계기로 가정폭력의 상황이 중단되기도 한다. 자녀를 남겨 두고 폭력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나쁜 업

마’로 생각하는 모성 이데올로기로 인해 남편의 폭력을 감수하며 살아오던 여성들에게 자녀의 피해는 폭력으로부터의 탈출을 감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사례16의 아버지는 의처증에 알콜중독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칼로 위협하는 등 엄마와 오빠, 사례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성적 접촉도 계속되었다. 중학교 1학년때 엄마가 이혼을 결심하면서 더 이상 아버지의 폭력은 경험하지 않게 되었다. 사례는 당시 엄마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아버지의 사례16에 대한 성적 접촉이 점점 강해져 왔기 때문이라고 기억하고 있다. “맞고는 살 수 있지만 이걸 아니다”라는 엄마의 결정에 따라 나머지 가족들이 도망치듯 아버지를 떠났게 되었다. 사례16은 당시에 대한 기억이 없지만 엄마가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분명히 계기가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아버가 옛날의 모습으로 날 때리고 강간하는 꿈”을 꾸는 적도 있었다는 사례의 이야기를 감안하면 어린 시절 아버로부터의 성/폭력 혹은 그에 대한 공포는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게 엄마와의 동반 가출이 시작되면서 사례의 추가적인 성폭력 피해는 차단될 수 있었고, 함께 탈출한 가족과의 연대는 사례가 이후에 경험하는 성폭력 피해의 극복에 있어서도 신뢰망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사례6의 엄마 역시 아버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당해오다가 딸의 성폭력 피해를 알게 된 직후 빠르고 단호한 대처로 남편과 이혼을 했다. 사례는 기억도 나지 않는 시기부터 아버지의 추행이 계속되어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4학년때 첫 강간이 있었다. 아버지의 모습은 “무서운 존재”, “폭군”, “술먹었던 것, 때렸던 것, 나한테 나쁘게 한 것”으로 기억된다. 성폭력에 대한 회상에서도 엄마한테 말하면 죽는다는 아버지의 위협이 “진짜 무서웠고,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무서움”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실제로 그가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한다. 아버지의 폭력성은 성폭력의 수단이기도 했기 때문에 성폭력에 대한 기억에는 항상 “무서운” 아버지의 모습이 동반된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엄마와 동생에게도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해왔고 아버지가 자신과 동생에게 ‘체벌’의 형식으로 가했던 폭력은 성폭력보다 더 수치스러웠던 것으로 기억할 정도이다. 이러한 성/폭력의 상황은 사례가 중학교 2학년때까지 계속되었고 성폭력 현장을 목격한 엄마가 그 즉시 아버지를 내쫓고 이혼하면서 성/폭력의 상황은 모두 종료될 수 있었다. 하지만 유사한 상황의 사례16과 달리 사례6은 자신을 “사랑받지 못한 아이”로 의미화하면서,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더 빨리 알아채주지 못한 엄마에 대한 원망을 중심으로 성폭력 피해가 이야기된다. 그런데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사례6의 초기 이야기나 엄마의 폭력 피해에 관한 이야기에서 아버지의 폭력성은 구체적으로 묘사되거나 평가를 담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엄마에게 못되게 군 것” 정도로 표

현된다. 때문에 사례16과 비교할 때 사례6의 아버지가 행사한 폭력의 강도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이 사례로 하여금 엄마를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기 보다는 자신을 보호해주었어야 할 존재로 이해하게 만들면서 기대와 실망을 가져오게 만든 여지로 보인다.

③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저항과 가정폭력 피해의 약화

보호자들에 의해 성/폭력 피해의 상황이 중단 혹은 강화된 위의 사례들과 달리 피해자들 스스로 자신이 경험해온 성/폭력 상황에 대응하면서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여기서 중층 폭력의 피해 경험은 더 이상 참고 살수만은 없다는 의식과 함께 피해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시키기도 한다.

사례22는 초등학교 3학년 무렵, 엄마가 밖으로 일을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빠로부터 가혹한 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시작된 오빠의 폭력은 기본 따라 사례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이방 저방으로 끌고 다니는 방식으로 계속되었다. 부모는 분란을 일으킨다며 사례를 나무랄 뿐 이러한 상황을 종료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사례는 자신을 때리는 이유를 “재미있어서” 라고 말하는 오빠를 보며 그가 사람이 아닌 “괴물”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 오빠 뿐만 아니라 부모 등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도 무너졌고 사람은 “돌변할 수 있고 항상 내재된 위험” 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공포 역시 느끼기 시작했다. 사례가 초등학교 4학년때쯤 부터는 오빠의 성폭력이 동반되기 시작했고 사례는 이것을 “남다른 발육” 이 가져온 자신의 여성화된 몸, 2차 성징의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 사례는 당시 오빠의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추측” 으로 제시하는 정도이지만 그에 대해 느꼈던 불안감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길게 이야기를 진행한다. 이와 같은 오빠에 대한 공포는 사례가 초등학교 6학년쯤 키스를 당하면서 더욱 강해진다. 이전의 폭력과 달리 성폭력은 더럽고 답살스러운 것은 물론이고 오빠의 “괴물” 성이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에 불안이 심화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사례는 일부러 몸을 더럽게 하거나 방문을 잠그는 등의 소극적 방어 뿐만 아니라 오빠가 때리는 경우에는 똑같이 머리채를 잡거나 종아리를 무는 등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냥 센 애” 가 되어갔다. 오빠의 폭력에 처음으로 “죽어버린다” 며 저항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오빠의 폭력은 예전처럼 “샌드백 마냥” 때리는 식은 아니게 되었다.

(2) 가정폭력으로 인한 성폭력 피해의 노출, 강화와 성폭력 피해 대응

① 가정폭력으로 인해 노출되는 성폭력 위험

청소년의 가출이나 성매매 유입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듯, 가정폭력으로부터의 탈출 이후 성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자원이 없는 여성들은 불안정하고 취약한 성매매 업소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성매매가 아닌 노동의 현장에서도 이들의 취약성을 빌미로 한 성폭력이 발생하기도 한다. 사례14 역시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피해 가출하면서 어린 나이에 성매매 업소에서 남성들의 갖은 “진상”에 노출되었다.

사례16의 경우, 오히려 아버지의 폭력이 중단된 이후 “방황”이 시작되면서 성매매 업소에 유입되게 된다. 사례는 그곳에서 경험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아버지의 폭력을 벗어난 직후에 “평생 마구 울고불고 뭐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뭔가 이제는 평화, 가난하지만 평화가 찾아왔지만 이 평화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망가지고 싶은 욕구로 뭔가가 분출된 결과중의 하나로 이해하고 있다. 엄마와의 동반 가출 이후 이사와 전학이 반복되고 1년을 쉬게 된 “덕”에 재입학한 중학교에서는 많은 나이로 쉽게 “짱”을 먹을 수 있었고 이때 “노는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친구들과 혼숙하며 밤을 새어 놀거나 유흥업소에 나가 돈을 벌어 노는데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생활을 그만두고 자 마음먹었던 중학교 3학년 즈음, 밀린 돈을 받기 위해 단란주점의 사장을 찾아갔다가 모텔에서 그에게 강간을 당했다. 성폭력을 통해 여성의 성매매 선택과 용인을 부추기는 이들 업소의 전형적인 전략처럼, 사례16 역시 피해 직후 처음으로 손님과 2차에 보내졌고 거기서 또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물론 성폭력 피해의 위험은 유흥업소와 같이 불온해 보이는 특정 공간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사례18의 경우,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엄마가 집을 나간 후 자신도 “도저히 살 수 없어” 가출을 하게 되었고 친척집과 친구집, 교회 사람들 집을 전전하다 엄마가 있다는 섬마을로 찾아가 한달여를 함께 살았다. 하지만 그곳에서 엄마와 사귀고 있던 남자에게 2회 가랑 강간을 당하면서 홀로 그곳을 떠나왔고 그 결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10여년간 홀홀단신으로 가출생활이 계속되었다. 스스로의 선택처럼 보이는 청소년기의 ‘일탈’ 행위 속에서 동반된 성폭력 피해에 대해 그 의미화가 미처 진행되지 않은 사례16과 유사하게, 사례18 역시 이 시기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는 아직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아무튼 이 시기 “힘든 일”을 겪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엄마와 다시 연락이 닿았고 이로서 사례의 불안정한 삶이 종료되는 듯 했지만 엄마를 따

라간 집에는 예전의 성폭력 가해자가 엄마와 함께 동생까지 낳고 살고 있었다. 가해자와 함께 지내는 것이 두려웠지만 어린시절 성/폭력의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본 경험도, 받아볼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며 자라온 사례18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가출이나 집이나 힘든건 마찬가지” 였지만 그렇다고 다시 이전의 가출생활이나 폭력을 가할 것이 뻔한 친아빠에게로 돌아갈 수도 없었기에 가해자와의 동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가해자가 다시 자신에게 성폭력을 행사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다.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시작된 가출생활, 이로 인해 강화된 외로움은 가해자와의 불편한 동거를 감수하도록 만들었다.

② 가정폭력의 안전망이 된 성폭력 가해자와 성/폭력의 경계로서 “금기”

친족 성폭력에 있어 물리적 폭력 피해가 동반되는 경향은 II 장의 표3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성폭력의 가해자가 물리적 폭력의 가해자와 동일할 가능성 뿐만 아니라, 물리적 폭력이 난무한 가정이 친족 성폭력의 피해를 지속시키는 환경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은 성폭력 피해에 대한 발화를 막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방식으로만 작동하지는 않는다.

사례5는 5세에 엄마가 가출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이때부터 할아버지가 사례5를 만지고 강간하는 것이 일주일에 서너번씩 반복되기 시작하였으며, 초등학교 4학년때 엄마가 다시 집으로 들어오고 조부모와 떨어져 살게 되면서부터는 아빠와 오빠의 추행, 강간이 시작되었다. 아빠와 오빠는 파이프와 벽돌, 각목을 사용해 사례5를 때릴 정도로 폭력성이 강했다. 사례는 “집안에 있는 손에 들 수 있는 건 전부다 흥기”가 되는 극단적인 폭력 상황 뿐만 아니라 성적 규범이 부재한 가족 문화 속에서 자랐다. “밖에서 온지 3년이 지나도 외지 사람”으로 간주되는 폐쇄적인 마을 공동체에서 사례5의 가족을 통제할만한 아무런 이웃도 없었고 도망갈 곳도 없었다.

위 사례5는 ‘성폭력’이라는 언어와 ‘성관계’라는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할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는 ‘성폭력’ 보다는 ‘성관계’라는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아빠나 고모부의 성추행, 오빠와 그 친구에 의한 피해는 ‘성폭력’으로 명명한다. 사례5는 방탕한 생활을 하고 집을 늘상 비우는 무능한 아빠와 달리 할아버지는 깔끔하고, 막노동을 하고, 일없으면 낚시하고 나물을 캐와 손주들에게 갖다 주며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노력했던 보호자로 평가한다. 또한 “할아버지와 살 때에는 최소한 굶지는 않았”다며 엄마와 살던 시절과도 대비시킨다. 할아버지는 사례5에게 “되게 많

은 사랑”을 주셨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자리가 사례5의 자리가 될 것이라 누차 이야기해왔다.

이와 같이 사례5에게 자신의 “유일한 편”이었던 할아버지와 성폭력을 거부하는 것은 폭력이 난무한 가족 내에서 “이 관계가 끊기면 나는 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이었다. 사례는 할아버지와 ‘성관계’를 지속한 것이 오빠, 아버로부터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아 남을 수 있었던 원천으로 생각하고 있다. 적어도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사례5에 대한 폭력을 목격할 때에는 “첫째 부인이 둘째 부인 괴롭히는 걸 막는” 것과 같이 통제를 했으며, 아버지와 오빠 역시 할아버지 면전에서 자신을 때리지 않았다. 오빠의 성폭력 역시 할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에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례5는 지금도 할아버지를 “알렉스” 같은 로맨스의 상대로 기억하고 있다. 무규범의 공간 속에서도 가부장의 지위와 남성들간의 위계는 철저히 지켜졌고 때문에 사례5에 대한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신뢰는 계속될 수 밖에 없었으며, 이것은 향후 피해자가 할아버지와 관계를 성폭력으로 인지하는 것에 장애로 작동하게 된다.

2. 가정폭력의 피해 경험과 성폭력 피해의 의미 구성

(1) 성적 이종규범과 여성에 대한 통제 기제로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연속성

그렇다면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를 중층적으로 경험한 피해자들에게 성폭력 피해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 급진주의 페미니즘을 필두로 반성폭력 운동에서 성폭력과 아내폭력은 그것이 여성에 대한 지배와 통제의 수단이자 남성에 대한 의존이라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젠더폭력으로서의 공통적인 기반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남편 뿐만 아니라 아버나 오빠로부터 그와 같은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 역시 남성 권력의 행사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발전시키게 되고 그 결과, 성폭력을 성적인 수치심이나 순결상실 혹은 신체에 대한 침해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젠더폭력으로서 가정폭력과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도 한다.

① “남성적인 폭력”으로서 성폭력

많은 사례들이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진료 과정에서 획득된 언어들에 기대어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가정폭력과 연관지어 이해하려는 것과 달리, 사례4는 성폭력 피해를 경험

하기 이전에 이미 일상의 경험들을 통해 자신에게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지했다. 사례4는 “남성들의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온 나”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엄마와 자신을 때리는 아빠, 고등학교와 대학내 선배들의 군기 잡기 등을 경험하면서 “마초적”인 남성 문화에 대한 거부감과 예민함이 만들어져 왔음을 이야기한다. 대학에서 선배들이 혼내는 폭력적인 모습은 아빠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였고 그로 인해 남성들의 위계적인 태도들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 사례4는 이것이 그들의 성희롱을 학내 성폭력 상담소에 신고하게 만들 수 있었던 동인이 되었던 것으로 이해한다. 어린시절부터 누적된 남성들에 의한 폭력 피해의 경험은 사례4가 성폭력 피해를 문제화할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며, 때문에 성폭력 피해는 성적 수치심이 아닌 남성들의 인격적인 무시 행위로서 사례가 경험해왔던, 아빠를 비롯한 남성들의 폭력과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의미화된다. 이러한 남성 폭력에 대한 최초의 저항이 위 사건을 계기로 이뤄지게 되었기에 성폭력 사건 이후 경험하고 있는 사례의 혼란은 온전히 가해자들의 행위와 그것에 대한 주변 반응만으로 환원될 수 없게 된다.

② 성적 이중규범에 대한 “반항”과 “분노”의 표출 계기로서 성폭력

앞서 언급한대로 사례14는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시작된 가출에서 처음으로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20대에는 집안 형편으로 다시 성매매 업소를 찾게 된다. 키스방에서 일하기로 마음 먹은 당일, 키스방 사장에게 감금되어 그가 요구하는 “변태적 성행위”에 “노예”가 되는 성폭력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강간 피해의 경험을 갖고 있지만 이 시기의 성폭력에 가장 분노하고 있으며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례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참으면서 살아야지” 하던 것이 “진짜 너무 쌓여서 압력밥솥처럼 정말 터지기 일보직전”까지 왔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했던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 그녀는 자신을 통제해오던 아با나 오랜 유흥업소에서의 노동 경험을 통해 여성에게 순결함을 요구하면서도 성구매를 하는 이중적인 남성들에 대해 강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다. 그녀는 성매매 여성들을 “더럽다”고 얘기하는 것에 “분노”하면서 당시 함께 일했던 언니들은 물론 “홀복”에 대해서도 강한 애착을 보이며 자신은 주점에서 실명을 사용하며 “땃땃하게” 일했다고 말한다. 물론 사례는 “성매매나 이런 쪽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성폭력에 되게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안전망”을 갖춘다면 예방될 수 있는 문제라 말하면서 자신

의 성매매 경험과 성폭력 피해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한다.

“억눌리고 보수적이었던 가정환경” 과 일련의 성폭력과 성매매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남성들에게만 관용적이고 자신에게는 통제적이었던 성별화된 섹슈얼리티 규범에 대한 비판의식 속에서 아버지의 폭력과 키스방 사건은 연속선상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범에 대한 “반항” 은 성폭력 피해라는 “부당함” 에 대한 공적 대응의 계기가 되었다. 피해에 대한 사건화 이외에도 남성들과 자유로운 스킨십을 즐길 수 있는 클럽과 SM을 통해 이러한 저항의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반항” 으로서의 “이상한 여자” , “헤픈 여자” 되기 역시 “폐쇄된 공간” 과 “삽입” 을 피하는 경계 내에서 이뤄질 정도로 남성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크다. 사례14는 막상 자신이 반항을 하고 강한 의사표현을 하면 가해자들이 더 심하게 폭력을 가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이다. “반항하면 반작용으로 더 크게 온다는 것” 을 “몸소 느껴서” 인지 가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대응은 어려웠으며 지금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반항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자기방어의 효과에 대하여는 회의적이다. 때문에 사례가 정말 성매매 현장에서의 성폭력 예방을 가능하게 하는 “안전망” 의 존재를 믿고 있는 것인지는 의문스럽다.

남성의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로 피해 여성들은 자신을 보호해줄 남성에 대한 의존이나 일상적인 불안 그리고 여성의 섹슈얼리티나 몸에 대한 스스로의 통제를 강화시키기도 하며, 이것 역시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여성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서 연속선상에 있다고 주장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례의 경우와 같이 아버지의 폭력은 단순히 이중적인 성적 규범을 강요하는데 그치지 않았으며 그것이 남긴 결과로서 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의 행위가 남성 권력에 저항하는 의식적이고 전복적인 것이라 생각하는 순간에서조차도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저항은 남성의 폭력성을 수용하고 그의 “화” 를 둔구지 않을 젠더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역설적인 시나리오가 연출되는 것이다.

(2) 가정폭력의 “결과”로서 “무기력”한 성폭력 피해 대응 담론의 수용

많은 연구들은 어린 시절 폭력에서의 노출은 무기력감이나 인지능력, 주도적인 의사소통 능력에도 결함을 가져와 성폭력 피해의 상황이나 이후 적극적인 대응을 가로 막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여성으로서의 강한 자의식을 갖고 있는 위의 사례14는 자신의 생애에 반복된 성/폭력의 피해 경험을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사회복지사의 말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다. 그러한 요소들이 성폭력의 ‘원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례14 역시 그러한 담론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 자신을 강간했던 고등학교 담임이 걸어온 전화에 화를 내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당시 자신의 모습을 “바보” 같았다고 기억하면서 그와 같이 아무런 대응도 화도 내지 못하며 무기력했던 모습을 “아버지한테 무기력했던 것처럼, 내가 반항하면 더 맞았던 것처럼 그게 몸 속에 박혀가지고 담임한테도 똑같이”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아버지의 폭력이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과정에 미친 영향력을 이해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가정폭력 피해의 영향은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자원이 되기도 했는데, 키스방 사장의 유사강간 행위를 경찰에 신고했을 때도 왜 반항하지 않았냐는 형사의 질문에 “과거에 성폭력 당한 것도 있고 가정폭력도 있다”는 것을 통해 설명하기도 했다.

실제로 여성의 무기력함이 성폭력에 대한 대응능력을 얼마나 훼손시키는지의 별론으로 하더라도, 성폭력 피해자들은 상담과정에서 경험하는 전문가 집단의 언어를 권위 있는 자원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피해를 의미화하기도 한다. 위 사례14 뿐만 아니라 많은 사례들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유발이나 적극적인 저항의 부재를 문제 삼는 비난과 의심에 대하여 자신의 어린 시절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자존감 저하, 타인의 눈치를 보며 주도적인 의사표현법을 배워오지 못한 결과라는 방식의 자기 이해를 선택했다. 사례24는 취업 준비 중 알고 지내던 고향 선배와 모텔에 함께 갔다가 강간을 당했다. 어릴 적부터 사례는 “불쌍”하게 남자들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하기만 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엄마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도 없었고 솔직한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부담을 주고 싶어하지도 않았다. 사례는 모텔에서 치킨을 먹자고 제의했던 모텔 사건의 가해자 요구를 뿌리치지 못한 것도, 현재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힘들게 들어간 직장에서 부당한 행동을 하는 직원에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져 온 화를 내지 못하는 자신의 성향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것이 현재의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을 못하는 패배자”로 만든 것으로 말하고 있다.

사례1 역시 가족 성원 그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상황에서 홀로 경험한 폭력과 그

것이 동반했던 스스로에 대한 비하와 굴욕감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자신의 대응을 미흡하게 만든 원인으로 이해하고 있다. 사례1은 피해 직후 성폭력 상담소와 연계되어 받고 있는 심리치료에 관한 것으로부터 자신의 생애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관계중심적이고 타인의 요구에 맞추려는 소통 유형인 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나”가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지배하는 주요한 구조인데, 이러한 자신에 대한 진단은 심리치료 과정에서 듣게 된 상담의 언어들에 기반해 있다. 사례1은 27살에 활동 중이던 모정당의 당원인 선배로부터 준강간을 당했다. 피해 직후 동아리, 지역사회의 대학생 연합회 차원에 조사위가 꾸려지고 가해자가 속한 정당에서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지만 이 과정에서 친구들과 가해자측 운동단체 성원들에 의한 2차 가해자가 계속되었다. 사례1에게 호소되고 있는 성폭력 피해는 2차 피해에 집중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주변의 판단으로 자신의 피해를 의심하며, “해석이 거꾸로 되는 경험”이 계속되었고 사례는 이것을 어린 시절 엄마의 폭력과 방임으로 인한 결과로 의미화 한다. 사례1은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나섰던 대변인이나 처음 연계되었던 성폭력 상담소의 소장 역시 “피해자의 얘기는 존중하지 않고 가면서 자신들의 화를 키워 가는 방식”을 택했다고 보고 있다. 자기주도적인 이들과 달리 자신은 “주체가 되지 못하고 동지 대접을 못받아서”, “내가 주체가 아니었던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숨기고 감추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버려 이제는 감정 조차 없어진” 자신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야기 하지만 구체적으로 사례1이 당시 하고 싶었던 “자기 주장”이 무엇인지는 이야기되지 않는다.

그런데 가정폭력 피해의 결과 사례에게 그런 성향이 만들어진다는 것과, 그것이 성폭력 2차 피해를 강화시킨다는 것은 층위가 다른 문제일 수 있다. 사건을 둘러싼 관계자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막” 했던 데에는 피해자 개인의 의사소통 능력이나 혼란을 넘어서서 운동 진영간의 정치적 정당성과 이해 관계를 둘러싼 요소들이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강한 자의식과 정치적 신념을 갖고 사회운동 경험해왔던 사례16조차도 트라우마를 경험하며 돌파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2차 피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1은 자신이 경험한 피해를 “감추고 이런 거에 너무 능숙해져버린” 자신의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와 어린 시절의 폭력 피해에 기인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중층 폭력의 피해가 여성의 무기력함과 의사소통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고,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자신을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지만 이와 같이 성폭력의 원인이 이들을 둘러싼 환경이나 관계의 문제보다 개인적 차원의 결함과 상황대처의 문제로 축소되는 것은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유효하지 않아 보인다.

(3) 섹슈얼리티에 대한 거부/활용과 성폭력 피해의 의미

가정폭력에서의 지속적인 노출은 극심한 외로움과 불안, 그리고 이것을 보충해줄 수 있는 대안으로서 새로운 이성애적 가족에 대한 환상을 갖게 만들기도 한다. 특히 어린 시절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례들의 경우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통해 외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규정하는데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역으로 가정폭력 피해 이후 형성된 인간에 대한 불신과 고립감이 성폭력 피해로 인해 극화되면서 성적 존재로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되기도 한다.

① 사랑의 대체물로서 섹스에의 집착과 성폭력 피해의 혼란

사례19는 “얼마나 어렵게 태어났는지”,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 엄마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생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엄마는 첩을 둔 남편에 의해 사랑받지 못하고 폭력을 당하던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다. 사례의 엄마에 대한 묘사는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과의 관계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는 방식에서도 반복하여 등장할 정도로 사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엄마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사례19는 초등학생 시절 둘째, 셋째 오빠로부터 간헐적으로 강간을 당했다. 하지만 사례의 이 피해경험은 딸이 강간을 당한 직후, 사례19가 신이 다 되어야 처음으로 세상에 발화되었고 이후로 폭식, 불면 등의 신체화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이러한 현재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 살아있는 유일한 가해자인 셋째 오빠를 “미워하려고 노력” 하고 있는 단계이다. 그 때문에 “흠집 난 여자”가 돼서 “총각”한테 시집도 못갔고, “출발이 그랬기 때문에 가정폭력 하는 남자도 만나게 됐다”는 “핑계”를 대고 싶어한다. 하지만 이것이 “핑계”와 “변명”일 뿐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다. 즉, 사례19에게 어린 시절의 성폭력은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의 하나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결혼 후 겪은 가정폭력은 어린 시절의 성폭력 피해의 결과만으로 환원하여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을 사례19도 알고 있다.

중학교 때, 성폭력 피해자라면 “흠집 난 여자”라 수근거릴 시골 동네도 엄마와 함께 떠나왔고 더 이상의 성폭력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례19는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는 바로 이 시기, 자신이 섹스에 중독되어 갔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18세, 검정고시 학원을 다닐 때 연애했던 남자와도 섹스를 했고, 안내양을 하면서 동거했던 남

자와의 사이에서는 아이도 낳았다. 사례19는 이들이 모두 나이 많은 남성들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엄마 잃어버려서 나이 많은 사람한테 자꾸 기대고 싶은 그 성향이 발동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며 엄마의 존재와 결부시켜 이야기한다. 결혼 후 두 번째 남편의 심한 폭력을 경험했지만 가족이라곤 성폭력의 가해자인 셋째 오빠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조차도 없으면 어디 허허벌판”에 놓일 것만 같은 외로움과 홀로 되는 것에 대한 불안은 남편의 폭력을 감수하고 살도록 만들었다. 두 번째 남편은 늘 매질을 해서 농사일을 나가기 힘들게 만들기 일쑤였지만 10년간의 결혼생활 내내 그녀는 남편에게 섹스를 요구하며 “중노동”을 시켰다. 사례19는 “섹스를 하는 것도 사랑받는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폭력적인 남편에게 섹스를 요구한 자신의 모습을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엄마를 대신해 엄마의 한을 풀어주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한다. “엄마를 못 농쳐서 그 매를 맞아가며” 섹스를 했다는 것이다. 남편의 폭력이 심해지고 이혼을 한 이후로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는 “명목”으로 전화방, 맛사지샵을 통한 “섹스 테라피”에 집착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섹스 테라피”는 생계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 이후 사례19가 삶을 버텨오게 만든 힘이다. 자신은 “가슴이 느껴질 사람”을 찾아 섹스를 통해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들에게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칭찬”을 받던 경험이었으며 이 시절을 “안정감”을 느꼈던 때로 말하고 있다. 즉, 그녀에게 섹스는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통해 사례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방편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이 남성에게 해야 할 “봉사”이기도 했다. 폭력 피해자인 엄마의 모습을 남편과의 섹스를 통해 사랑이 필요했던 존재로 의미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례 역시 섹스를 여성의 불행한 삶의 하나의 돌파구이자 해법으로 생각했다.

이와 같이 아내 폭력의 목격자이자 피해자였던 사례에게 각인된 것은, 여성이 외로움을 보상받을 수 있는 수단은 “섹스=사랑”이라는 도식이었고 이것은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게 복수하는 방법이자 그를 떠나오기 힘들게 만들었던 이유이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례가 성폭력 피해로 인한 “더럽혀진 몸”이라는 부정적 언어 대신 “섹스 테라피”라는 자신만의 의미화를 통해 현실에 적응할 수 있게 해준 것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사례에게 성폭력 피해란 무엇이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몸의 반응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까? 사례는 자신의 섹스에의 집착을 오빠들의 성폭력과 연관지어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다. 둘째 오빠로 인한 성폭력 피해 당시에는 좋았기에 자신이 먼저 찾아간 적도 있었고, 굳이 성폭력으로 명명하려 애쓰는 셋째 오빠와의 그것은 “그냥 아프고 너무 아픈” 것 이상으로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를 대신하여 섹스 중독이 된 자신을 설명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외로움과 자신의 “타고난 몸”의 문제라는 이

야기이다. 사례에게 성폭력 피해는 “섹스”의 문제일 뿐이고, 자신은 성폭력 피해로 “더럽혀진 몸”이 아니라 “타고난 몸”이 이끈 대로 살아온 것일 뿐이라 믿어왔으며, 오히려 “섹스”는 외로움을 극복할 “테라피”로 기능했던 것으로 이야기되는 것이다. 성폭력의 피해자로서 자신이 입은 피해를 구성해내야 하는 상황이 된 지금, 사례는 “더럽혀진 몸”과 “섹스 테라피”, “섹스 중독”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섹스가 아닌 성폭력 피해를 통해 사회적 도움을 받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그 혼란과 외로움은 가중되고 있다. 성폭력 피해를 누군가에게 호소하기 보다 자신을 온전히 성적 존재로서만 구축하며 살아왔던 사례에게, “성폭력” 피해자로서 자신의 상황을 이해받고 사회적 지지를 얻고 있는 딸의 모습은 낯선 것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엄마의 폭력 피해를 목격하면서 사례는 여성이 사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철저히 섹스에 국한시켜 이해했고, 추구했고, 살아왔으며 이로 인해 남편의 폭력까지 감수하게 되었지만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이러한 삶이 “타고난 몸”에서 시작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시작하고 있다.

② 이성애가족에 대한 환상과 외로움의 돌파구로서 성적 자원

사례2 역시 엄마의 통제와 아버지의 폭력 등 가정폭력의 상황이 가져온 상시적인 외로움을 이야기하며, 생애 이야기 역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묘사에서 시작된다. 사례는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 만성적인 통증을 호소했었고 오빠가 아버지에게 맞는 소리에 잠을 깰 정도로 아버지의 자녀들에 대한 폭력은 극심했지만 공부와 성공, 명예에의 집착이 강했던 “샌님”인 엄마는 “너도 공부 안하면 오빠같이 맞고 산다”, “네 아빠 성격이 원래 그런 걸 어떡 하겠니” 정도로 대응해버렸다. 사례는 철저히 고립된 상태에서 지속된 가정폭력의 경험이 대학에 와서도 인간관계를 맺는 법에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말한다. 대학 입학 후 “외로운 것보다 차라리 죽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심각한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서 ‘네이트 판’의 채팅을 통해 첫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그는 협박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그 결과 사례2는 성병까지 얻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자살 시늉과 협박으로 헤어지길 거부하여 사례2의 “노예”와 같은 생활이 반복되었다. 사례2는 성병 치료와 전 남자친구의 방탕한 생활로 “땡전 한푼 없게 된” 상태에서 외로움에 다음 남자친구를 만났지만 몸을 만질 때의 역겨움과 발작 때문에 학내 성폭력상담소를 찾게 되었고 그곳을 통해 전 남자친구의 행위가 “강간”인 것을 알게 된다. 현재까지도 외로움을 심하게 타고, 남자친구와 헤어져도 “애도의 시기 없이” 바

로 다른 남자를 만나고, “공허감을 혼자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바로 소개팅” 할 기세이지만 병원에서 당분간 데이트를 하지 말라고 한 상태이기에 참고 있다.

사례2는 자신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하는 엄마에 대한 분노도 없으며, 오히려 아빠의 실직 이후로 힘들어 하는 엄마를 위해 되도록 걱정 안끼치는 딸로 살고자 한다. 남자친구가 가져온 성폭력의 피해 역시 “어디 팔다리가 찢려 나간 것도 아니고”, “인생 사단날 일이 아닌” 정도로 이야기되고 있다. 사례2의 이야기에서 성폭력으로 인해 극복해야 할 것, 상처로 남은 것은 거의 없다. 다만 그녀는 현재 당면한 문제로서 외로움을 호소한다. 남자친구와의 교제에 집착하는 이유도 “사랑받는 느낌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를 깨닫게 해주고, “무뚝뚝하고 차가운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을수록 그 성취감이나 기쁨은 10배” 가 되기 때문이다. 원망도 기대도 없는 나머지 가족들에게는 이와 같은 사랑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부모님이나 오빠는 동반자라는 느낌은 아니며 “같이 아이 낳아서 키우고 애들 다 결혼시키고 늙었을 때 같이 이렇게 오순도순 그런 게 중요” 하며 “결혼은 상상만 해도 좋은 것”, “아빠랑 애기랑 껴안고 가는 그런 이미지가 되게 행복해 보인다” 라 말한다. 가족을 통해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례는 이성애가족에 대한 환상과 기대를 통해 현실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사례는 상시적인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을 “노예” 처럼 다룬 전 남자친구를 만났던 그 방법, 채팅에 다시금 유인된다. 하지만 인터넷 채팅은 단순히 외로움의 해소하기 위해 선택하게 되는 위험한 공간을 넘어 “여자라고 하면은 다 이렇게 떠받들어 주고 그러는”, “제가 힘이 있다는 느낌” 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아빠의 폭력 속에서 “외롭고, 불안하고, 우울” 하던 아이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강한 사람” 임을 확인받으려 한다. 어린 시절의 폭력과 무관심 속에서 커진 외로움과 가족에의 환상은 “강한 사람” 이 된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채팅의 공간 속에서 실현될 수 있을 것만 같이 느끼고 있다. 하지만 그녀 역시 그곳에서 만나게 될 상대의 대부분이 “육체적인 그런 거를 원하는 남자” 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는 독립된 여성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해 주었지만,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일한 자원으로 삼는 불안정한 관계를 통해 사례가 바라는 진정한 독립성과 사랑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③ 폭력피해에 대한 예측불가능성과 불신을 증폭시키는 계기로서 성폭력

앞서 사례2와 사례19가 성적 주체로서 자신을 구축해가며 가정폭력이 남긴 외로움을 돌파하고자 했다면 사례22는 그것이 성폭력 피해를 가중 시킨 요인이라 생각하며 인간관계의 단절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자 했다.

오빠는 사례22가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해왔고 그녀의 부모들은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오빠는 사례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즈음 부터는 몸을 만지기 시작했다. 사례는 당시를 가슴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신에게 “너무나 빠른” 성장 발육이 있었고 학교 안에서도 남학생과의 성별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때로 기억하고 있다. 그녀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몸의 변화가 오빠의 성폭력을 불러일으킨 “원인”이나 “여지”를 준 계기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여성의 몸에 대한 혐오도 이때부터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사례22는 오빠의 이러한 성폭력이 이전에 그가 행사해오던 폭력과는 다르다며 현재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성폭력과 연관지어 이해하려 하고 있다. 그 사건을 기점으로 오빠의 폭력으로 인해 죽을 것 같다는 “공포” 보다는 자신이 성적 대상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일상적인 긴장이 더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행동을 주시하고 그 변화를 인지해내기 위한 노력이 더욱 많아졌고, 오빠 뿐만 아니라 남성이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자신이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을 느끼면서 “벼랑 끝에 몰린 기분”,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사례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여자”를 꿈꾸기도 하지만 이것은 가상의 세계에서만 존재할 뿐이며 현실의 남성은 “예측안되는 사람”이며 이들에 대해서 “더 안전한 선택”을 하기 위해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항상 머릿속으로 항상 “시뮬레이션”을 돌린다. 성폭력은 “실제로 상황이 닥치면 할 수 있는게 없는” 것이라는 생각에 불안감과 예측불가능성에 대한 무력감은 커졌고 “그 상황이 안이뤄지게끔 계속 회피”하는 행동들이 시도되었다. 때문에 그녀는 현재 일상적인 불안과 무기력감 뿐만 아니라 이성과의 관계 맺기 역시 두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사례의 타인의 행동과 상황에 대한 기민성, 불안은 이미 그 이전 시기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사례22는 오빠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집박을 나돌았고, 집 안에서는 숨어 있기도 했으며 때리면 더 아픈 척을 하는 방식으로 상황에 “적응”해갔다. 항상 이 사람의 카드가 먼저 오면 그 카드에 맞춰서 난 이걸 꺼내야 돼”라는 식의 긴장을 하고 살던 사례는 힘든 상황에 대한 이해와 지지

를 가족들에게 전혀 기대할 수도 없었고, “나는 그때그때 살고 있는 거니까” 라는 이유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거나 준비할 “여력” 조차 없이 청소년기를 보내야만 했다. 그 결과, 성인이 되어서도 “쌓아 놓은 것도 없고 제대로 된 대학을 가서 학력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가 된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다시 무기력감과 자살충동을 느낀다. 즉, 사례22는 미래를 꿈꾸며 준비할 에너지와 시간을 모두 빼앗긴 채 항상 타인의 반응을 예측하며 준비해야 했던 긴장된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다. 여기에 오빠의 성폭력은 알 수 없는 성적인 것에 대한 불안을 더욱 강화시켰다. 성폭력과 함께 폭력은 잦아들었지만 “그저로는 해결될 그제 아니게” 되었고 새로운 상황을 부모가 믿어줄 것 같지도 않았다. 항상 사례22에게 책임을 물으며 “니가 어떻게 했으면” 이라는 방식으로 보여왔던 평소 부모의 반응을 생각하면 성폭력 피해를 발화한 이후에는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나는 진짜 더 모르겠는” 것이 되어 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이 생긴다.

사례22는 성적 대상으로 비취진다는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과 성적인 폭력의 예측 불가능성을 호소하며 성/폭력 사이에 경계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경험된 폭력은 피해자를 상시적인 불안과 타인에 대한 불신을 만들었고 이것이 그녀가 “예측 가능성”에 더욱 기민하도록 만든 요인이 되었으며 사례에게 성폭력의 의미 역시 이것을 중심으로 의미화 되고 있다.

(4) 가정폭력이 남긴 외로움과 성폭력 피해자라는 정체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폭력의 상황에서 지속적인 외로움과 고립 상태에서의 불안을 느낀 피해자들은 그것을 떨칠 수 있는 돌파구로 자신을 성적으로 주체화하거나 반대로 이를 거부하기도 하면서 자신이 입은 성폭력 피해를 의미화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에게 성폭력의 피해는 가족이 대신해주지 못했던 사회적 지원과 사랑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 결과, 자신이 경험한 아내 폭력과 불운한 결혼생활의 결과를 성폭력 피해로 환원하면서 중층 피해자라는 정체성을 자원으로 사회적 지지를 구하기도 하고, 실제로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얻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그러한 피해자 정체성을 놓은 이후 다시 느끼게 될 외로움에 대해 불안감이 또 다시 호소되기도 한다.

① 성폭력 피해의 결과로 환원되는 삶과 사회적 자원으로 피해자 정체성

사례19가 이혼과 아내폭력의 피해, 힘든 경제적 조건 등 현재의 상태를 어린 시절 성폭력 피해를 통해 구성해 내려 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과 달리 사례28은 성폭력 피해가 없었더라면 “공주처럼 살았을 것”이라며 현재의 모습이 성폭력 피해가 갖고 온 결과라는 점을 확신한다. “나는 성폭력 피해자, 미혼모,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서사를 통해 성폭력 피해가 자신을 미혼모가 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도록 한 것이라 연결 지으며 자신의 삶을 성폭력 피해의 결과로 환원하고 있다. 때문에 사례28은 “인생의 절반이 사라지게” 만든 그러한 성폭력의 가해자와 경찰 등 “진짜 누구 원망의 대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그들과 자신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한 부모에 대한 원망 역시 확고하다. 사례28은 초등학교 3학년때쯤 2,000원을 주겠다고 피인 아버지를 따라가서 동네 뒷산에서 성폭력을 당했다. 이후 탈장 및 정신과 치료로 병원을 자주 오가는 생활을 했고, 24살에 동거남과의 사이에 아이를 낳은 직후로는 강한 설사를 동반하는 크롬병을 앓고 있다. 이후부터 인생에 대한 기억이 “몽탕몽탕” 사라졌다고 묘사나 주장 모두에서 “기억이 안나”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사례28은 스물 네 살에 아이를 갖게 된 것은 물론이고 이후 결혼에서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남성을 만나게 된 것이 성폭력 피해의 결과로 만들어진 잘못된 남성상에 기인한 것으로 이야기한다. “늙은 남자한테 당하니깐 젊은 남자한테 위로를 받고 싶어” “불나방” 처럼 확 뛰어 들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적 순결에의 강박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 이후 정상적인 남성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남성을 통해 새로운 삶을 기대하는 것은 사례19와 마찬가지로이다. “누가 내 같은 녀를 델고 갈까, 돈 많고 잘 생긴 남자들은 벌써 다 내보다 더 잘난 여자들 막 S 라인에 얼굴 막 이쁘고 막 데리고 벌써 꺾치고 있지”라고 생각하며 “무턱대고” 동거하게 된 남자와의 사이에서 현재의 딸을 낳았고, 그의 술주정과 무위도식에 2년만에 헤어지게 된다. 그리고 7년여 후인 31세에 경남의 작은 도시에서 전남의 한 시골마을에 사는 하반신 마비의 이혼남과 결혼했지만 장신의 거구인 남편은 사례에게 폭력을 가했다. 결국 그의 폭력으로 인해 가정폭력 쉼터에 기거하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다.

사례28은 성폭력 피해와 가정폭력 피해와의 연관성을 사례19와 같이 순결을 상실한 여성, “버려진 몸”의 정해진 수순으로만 이해하지는 않는데, 남성들이 선호하지 않는 자신의 외모가 불행한 삶의 원인이 된 것처럼 이야기되기도 한다. 예쁜 “공주”였던 자

신은 피해 이후 여러 가지 질병을 겪으며 살이 쪼갠고,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러워야 남자들이 접근을 안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잘 씻지도 않는 “천민” 이 되어 갔다. 여성적인 외모는 돌아가고 싶은 성폭력 피해 이전의 삶이기도 하며, 피해로 인해 더 이상 추구할 수 없는 것으로 이야기 된다. 지금도 이쁘지고 싶은 생각을 가지면 서도 다른 한편 그럴 경우 “남자 홀리는 것 밖에 더 있나” 라며 그러한 여성성에 대한 양가감정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례가 여성성을 잃어버린 “천민” 이 겪을 수 밖에 없는 불행한 결혼 생활이라는 방식으로 현재의 삶을 성폭력 피해의 결과로 환원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를 성적 순결의 상실이나 여성성에 대한 거부라는 측면에서 의미화한 결과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피해 직후부터 계속된 탈장과 크롬병 등 질병은 현재 그녀가 딸을 혼자 키우며 생활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는데 실제로 제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28이 바라는 “누구한테도 손 안벌리고 아쉬운 소리 안해도 되고 스스로도 좀 당당” 해지는 삶에 당장 필요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얻는 것이다. 때문에 성폭력 피해와 현재의 상황을 계속하여 연관 지으며 “성폭력 피해자고, 가정폭력 피해자고, 미혼모” 라는 정체성으로 호소하며 이러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아무런 사회적 지지망이 없는 상태에서 중층 피해자라는 정체성은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의 경로가 불가피한 것이었음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해자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원망과 부정적인 피해 경험을 고수할 수 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② 성폭력으로 환원되지 않는 방임 피해와 성폭력 피해자의 정체성

사례6 역시 “나는 사랑받지 못한 아이” 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외로움을 호소하는데, 어린 시절 엄마의 방임에서 비롯된 그것이 성폭력 피해 이후의 외로움을 더욱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 근원적인 문제라 이야기하고 있다. 그녀는 초등학교 4학년때 부터 아버로부터 강간을 당했다. 엄마는 사례가 중학교 2학년때 그 사실을 알고 아버를 내쫓은 후 사례를 데리고 여러 상담소를 전전했지만 사례는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모두 성폭력 피해에 기인한 것처럼 생각하는 엄마의 태도를 일방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사례6은 고등학교 3학년때 분노조절에 장애와 폭식증을 경험하면서 아버의 성폭력으로 인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엄마와의 문제가 자신에게 남아 있음을 인지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현재 사례6에게 성폭력 피해 역시 항상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화 된다.

가해자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수치심”으로 이야기 되는데, 그것은 언젠가부터 그가 돈을 쥐어 주면서 요구 사항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야기된다. 사례는 그가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한들 마찬가지로 상황이 펼쳐졌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하고,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성폭력이 아닌 자율적인 성관계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도 결코 아니라고 하지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펼쳐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사례는 당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기에 그 돈이 꼭 필요했었고, 그 동네에서 엄마가 밖에서 일을 하며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집은 자신의 경우 밖에 없었기 때문에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엄마의 사랑이 부족하여 자신이 따돌림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을 모면하려 친구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기 위해서는 아빠가 주는 돈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엄마에 대한 원망이 이야기된다. 사례는 자신의 성폭력 피해로 이혼을 경험하면서 가족들이 느꼈을 고통도 이해하지만 성폭력은 어디까지나 자신만의 상처라 생각한다. 때문에 이혼 후 사례의 명의로 입금된 양육비 역시 자신만의 피해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이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이 돈의 처분에 동생이나 엄마가 관여하고 소비한 것에 강한 분노를 드러낸다. 즉, 사례에게 성폭력 피해는 엄마의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자, 그토록 원했던 엄마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만 사랑 대신 사례의 외로움이 더욱 가중되는 경험이기도 했다.

사례가 성폭력 피해를 외로움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있는 것은 다른 성폭력 사건에 대한 평가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녀는 학생 운동 내에서 발생했던 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은 채 떠들썩한 대응 후 혼자 남게 되는 성폭력 피해자를 염려한다. 반대로 페미니즘을 통해 만난 친구들과 같이 자신의 이야기에 반응하는 인적 자원이 주어졌다는 것은 성폭력을 “씻고 싶지 않은” 피해로 만드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사례에게 성폭력 피해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자 더 큰 외로움을 남기기도 하는 불안한 자원이며 때문에 사례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성폭력”으로 의미화할 경우 더 큰 외로움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현한다.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엄마의 방임에 의한 결과이자 외로움으로 의미화하고 있기에 피해를 이해받고 엄마와의 감정적 소통이 확대될수록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자원으로써 자신의 성폭력 피해는 점점 “씻겨”져 버리고 다시 혼자 남겨질 것만 같은 두려움도 생긴다. 하지만 사례는 이러한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면서 피해자라는 정체성을 고수하지 않고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사랑, 사람들의 이해와 관심을 지속시키면서도 좀 더 독립적인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노력 중에 있다.

(5) 함께 남은 가정폭력피해자들에 대한 연민, 신뢰와 성폭력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보호망이 되어 주지 못한 남은 가족에 대하여 원망을 갖기도 하지만 고통을 함께 느끼며 버텨온 가족들에게 연민과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며 그들과의 신뢰가 더욱 공고히 되기도 한다. 하지만 서로의 고통을 나누지 않은 채 각자의 몫을 감수해왔거나 그들에 대한 연민이 자신의 감정보다 우선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들은 자신의 성폭력 경험을 오히려 발화하지 못하거나 의미화를 포기하기도 한다.

① 가정폭력 피해 극복을 위한 긴장된 삶이 무너지는 계기로서 성폭력

사례24는 엄마가 “맨날 맞는” 모습을 보며 자라왔다. 친아빠도 엄마를 때렸고 초등학교 2학년때 엄마와 재혼한 새아빠 역시 항상 엄마를 때렸기 때문에 엄마와 함께 도망다니며 여관에서 자거나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불안정한 생활은 엄마가 새아빠와 이혼한 고등학교 1학년때까지 반복되었다. 사례24는 엄마가 “너무나 착한” 사람으로서 세상 물정도 잘 몰라 엄마와 함께 해야 했던 과제도 자신이 엄마에게 다 가르쳐줬던 것을 기억한다. 즉, 사례에게 엄마는 불쌍하고 보호해야할 대상이었지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었다. 사례24는 취업 준비 중 알고 지내던 고향 선배와 모텔에 함께 갔다가 강간을 당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사례는 성폭력 피해를 지속적으로 경험해 왔지만 “위기는 있었지만 당한 적은 없었던” 피해를 굳이 엄마에게 이야기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 어릴적부터 사례는 “불쌍” 하게 남자들로부터 당하기만 하고 세상을 잘 모르는 엄마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도 없었고 솔직한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사례24는 이 사건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사건”으로 의미화하면서 현재 자신이 얼마나 “무너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생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으며, 이것을 엄마에 대한 “미안함”과 관련짓고 있다. 피해가 남긴 것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말을 믿어 주지 않는 주변 사람들과 가해자에 대한 불신, 그로 인한 인간관계의 상실과 외로움 등 “배신감”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트라우마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력단절”과 “성공”의 기회를 놓친 채 나이를 먹어버린 상황이다. “자신감” 넘치며 “강하고 밝은 아이”였던 자신은 성폭력 피해 이후로 “폐인”이 되었고 “지금까지 아등바등하게 살아왔는데 아무 것도 남는게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

결과 엄마의 소망인 “행복한 가정에서 이제 남자가 돈 벌어서 주면은 좀 편하게 살아라, 이런 거” 를 수행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불안함을 호소한다. 사례24는 성폭력이 남긴 피해의 의미와 엄마에 대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연관 지어 이야기 하지도 않지만 사례24가 피해 이후 겪는 어려움이나 생애 이야기는 항상 엄마와의 관련성 속에서 구성되었다. 항상 맞고 우는 불쌍한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엄마에게는 자신을 돌봐줄 것을 기대조차 할 수 없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사례24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엄마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공부만이 내가 살길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기에 성공에 대한 열망이 컸다. 중학교 3학년때부터 알바를 하면서 엄마의 용돈과 빚을 해결했으며 성적도 우수하여 국립대 공대에 입학하였고 대학 등록금도 오롯이 사례24가 스스로 해결했다. 사례24는 자신의 삶을 엄마를 “대리만족” 시켜줄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했다. “내가 잘못되면 엄마는 삶의 의미가 없는 것”, “난 정말 가진게 없는데 내가 똑바로 안살면 내가 진짜 끝인 것” 과 같이 자신의 성공이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믿어 왔다.

사례24에게 엄마는 아무런 능력 없이 세상에 내던져진 측은하고 돌봐야할 대상이자 자신을 “성공” 이라는 꿈을 갖고 버텨오도록 만든 원천이 된 사람이지만 또한 닮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가정 폭력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던 엄마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으려고 “독” 으로 살아온 사례24에게 성폭력 피해는 3년간의 사회생활의 공백과 경력단절을 가져왔고, 긴장으로 점철되었던 피해자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 더욱이 엄마 역시 성폭력 피해로 폭력을 일삼은 두 번째 아빠와 결혼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는 엄마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과 엄마가 이미 닮은 꼴이 되어 버린 것 같은 생각에 한숨을 쉬기도 한다. 사례24에게 성폭력 피해는 단순히 순결 상실로 인해 정상가족을 만들 수 없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성폭력 피해 직후 인간에 대한 불신과 외로움 속에서 동반되었던 몸의 반응은 그간 가정폭력의 상황에서 외롭고 고립된 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온 자신의 목소리이기도 했다.

②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엄마에 대한 연민과 성폭력 피해 발화 거부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비롯한 자신의 고통을 공유하지 않는 데에는 이들 사이에 형성된 상호 배려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사례18의 경우 자신의 성폭력 피해가 알려지면서 엄마가 겪게 될 곤란을 염려해서 뿐만 아니라 지속되는 가정폭력의 상황에서 그 누구로부터의 도움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를 이해

받고 자신의 혼란이 덜해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사례18은 자신의 생애 이야기를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 “봉사” 하며 “장녀 노릇” 했던 아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하고 있다. 현재 지체장애인인 오빠는 신생아일 때 아빠가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른 후 언어장애까지 얻게 되었고 아빠의 폭력을 피해 잦은 가출을 했던 엄마를 대신해 사례18은 몸이 불편한 오빠를 돌봐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례는 21세에 엄마와 다시 만나 함께 살게 되면서 어린 시절 자신을 강간했던 엄마의 동거남에게 또 다시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례의 이야기에서 “성폭력을 당하고” 라 표현될 때에는 항상 이전의 피해가 아닌 21세의 동일 가해자에 의한 그것이 지칭된다. 어린 시절의 피해는 “어쩌다 한번씩” 생각나는 것이라면 성인이 되고서 경험한 피해는 항상 머리에 맴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다. 사례는 해당 피해 당시 자신의 대응과 그에 대한 감정을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반반” 이었다고 답한다. 사례18은 당시 소리내어 저항하지도 못했던 나름의 이유를 “이래도 안되겠고 저래도 안되겠고” 라며 상황을 옆 방에 있을 동생에게 들켰을 경우의 부끄러움이 아닌 동생이 받을 충격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그와 같이 매순간 타인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이 된 것은 오빠의 장애 때문이라며, 오빠를 그렇게 만든 아빠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다. 아빠에 대한 분노는 자신이나 엄마를 때린 사실보다 오빠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것과 관련하여 이야기되고 있고, 오빠는 사례를 “좀 더 이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싶지만 바뀌지 않아서 답답” 한 상태로 만든 존재라는 점에서 아빠의 폭력이 자기 주도적이지 못한 사례의 현재 모습을 만든 원인으로 이해되고 있다. 두 번째 성폭력 피해에서도 사례가 저어했던 것은 성폭력 피해가 알려지면서 가해자와 서로 좋아 지내던 엄마가 힘들어질 상황에 대한 것이다. 가해자는 “엄마가 좋다고 하시는 아저씨”, “그 분” 이라 표현되고 있으며, 그의 행동을 묘사할 때에도 경어를 사용할 정도로 가해자에 대한 비난도 거의 표현되지 않는다. 중학교 때의 피해 당시에도 사례는 엄마가 자신의 피해를 눈치 챌 것을 느꼈지만 가해자와 엄마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자신이 그곳을 떠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두 번째 피해로 인해 가해자와 헤어지게 된 엄마가 “억울” 할 것, “열받을” 것이라며 자신의 감정이 아닌 엄마의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례18 역시 사례24와 마찬가지로 아버로부터의 같은 폭력 피해자로서 엄마에 대해 강한 애착을 보인다. 엄마나 자신 모두 아프고 힘들었으며 같은 상황을 함께 경험해왔기 때문에 “서로 힘든 내색은 하지 않는 것”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패턴이 되었다. 현재 사례18의 이상형은 무엇보다 “엄마한테 잘해줄 분” 일 정도이다.

하지만 사례의 대응 방식을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 피해로부터 오빠를 돌보며 만들어진, 체화된 ‘배려’의 결과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 사례는 당시 저항할 수 없었나, 도망갈 수 없었냐는 경찰의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나며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당시의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이야기 하는 것은 “나만 손해”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성폭력 피해 역시 “잘못되면 임신할 수 있으니까” 정도로 이야기된다. 엄마에게 피해 이야기를 하면서 사건이 경찰에 신고되기 전까지는 피해를 외부에 알릴 “그럴 의도” 역시 없었다. 성폭력이 가져온 자신의 혼란과 피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왜 “나만 손해”인 것일까? 사례는 자신의 피해는 어차피 공감이나 이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성폭력과 관련한 질문에는 “힘들다고 생각해봤자 저만 힘드니까”, “말을 해도 저한테 이득이 되는 건 없고 하니까”, “내가 얘기하려고 해도 얘기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차피 내가 얘기해봤자”라는 식의 답변이 반복된다. 그녀는 자신이 성폭력 피해와 관련해 할 “얘기”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생각조차 않고 있다. 사례에게 상담소 역시 “와서 지내면 시간가는 줄 모르는” 곳 일뿐이며 상담을 받고 싶은 욕구는 없다.

즉, 지속된 친아빠의 폭력은 그 자체로 사례가 자신의 감정에 직면하거나 주도적인 의사표현을 하도록 하는 것을 가로막았을 뿐만 아니라 오빠에 대한 부양을 일찍이 도맡게 되면서 자신의 감정보다 타인의 그것을 우선시 하는 법을 가르쳤다. 때문에 성폭력 피해의 상황에서도 사례는 자신의 상황보다 엄마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를 먼저 생각했다. 또한 어린 시절의 그 어떤 성/폭력 피해에 있어서도 주변의 도움이나 이해를 받아본 경험을 가져보지 못하면서 자신의 피해를 누군가와 공유하는 것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사례는 자신이 경험한 성폭력 피해를 여전히 언어화하지 못한 채 그저 잊으려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고 있다.

③ 가족에 대한 신뢰와 증충피해 경험이 만든 삶에 대한 성찰

사례16은 폭력 피해의 상황 속에서 가족들로부터 홀로 버려진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피해자들과의 유대감과 신뢰가 뚜렷한 유일한 사례이다. 사례16은 엄마가 이혼을 결심하던 순간의 장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아빠와 헤어지면 학교를 못다니거나 배를 곯을 수도 있다며 엄마가 오빠와 사례에게 집에 남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했다. 그렇게 시작된 엄마와의 동반 가출은 함께한 가족들과의 지지와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엄마가 늘 자식들에게 미안해하며 이들을 보호하려고 “아

바로부터 한 대라도 더 맞아온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사랑과 애착도 크다. 더구나 사례16은 엄마의 결단을 통해 아빠로부터의 추가적인 성폭력 피해 뿐만 아니라 폭력의 상황에서 떠날 수 있게 되었다.

사례16은 대학에서 학생회장을 꿈꿀 정도로 사회참여에 대한 의식과 적극성이 강했다. 하지만 학교 선배의 준강간에 대해 형사 절차가 마무리 된 이후부터 2차 피해를 겪으면서 그 트라우마가 4-5년 가량 지속되었다. 사례 역시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합의를 요구하며 쫓아다니는 가해자로 인해 오빠와 엄마가 그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이들은 사례에 대해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며 사건을 진행하는데 발 벗고 나섰다. 오빠는 생업을 중단하며 소송을 도왔고, 엄마는 자신으로 인해 사례가 힘들게 된 것은 아닌지 늘 미안해 했다. 사례는 피해 이후 “망가지고 바뀐” 것들을 생각하며 상당 기간 힘들어 했지만, 자신의 피해가 이정도까지 힘들어야 하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의 상태가 가진 원인을 찾아내고자 했다.

이와 같이 중층피해가 갖는 긍정적인 효과는 많은 피해자들에게서도 발견된다. 사례1에게 성폭력 피해는 자신의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무의식적 증상들을 발화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이전의 무기력한 상태와는 다른 새로운 성취감을 맛보기도 했다. 사례2는 아바의 폭력과 성폭력 피해를 함께 겪으면서 여성으로서의 자의식을 깨우쳐가기 시작했으며, 사례6과 사례14는 불평등한 젠더관계에 대한 분노를 사회 정의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사례3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아바의 폭력으로 인해 민감해진 남성들의 폭력과 권위에 대한 저항의식, “내가 나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사례16의 경우에도 아바의 폭력과 일련의 성폭력 피해는 무엇 하나로 환원될 수 없는 자신의 삶을 설명하고자 하는 “폭발적인” 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때문에 사례는 일련의 피해들 중에서 가정 폭력이 자신의 삶에 가장 근원적이고 강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후 성폭력과 그것이 “콜라보레이션” 되지 않았다면 자신의 삶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례는 “1등 피해자”라는 자학을 반복하면서 피해들에 대한 모든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 말한다. 여러 피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특히 믿음과 안전감을 준 엄마에게 “뭔가 잘 돼야 한다”는 생각은 “그냥 병자 같이” 살아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었다. 물론 여기에는 폭력 피해의 동지였던 엄마에 대한 고마움과 지지도 작용을 하지만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멋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자신감”과 “영웅주의” 역시 작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성폭력

피해 “들” 에 대해서도 부끄러움을 느낀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말한다. 언제나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억울함” 의 경험이 많은 것이 갖는 강점을 이야기하면서, 웬만한 억울함은 그냥 좀 넘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할 수 있는 한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언제나 고군분투하는 뭔가를 해왔던 자신의 대처를 가능하게 만든 원동력이라 생각하고 있다.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약간 내가 1등 피해. 물론 너, 너 뭐 너무 이제 감안하고 여러 가지 막 여러 환경 속에서 …… 막 가정 폭력도 그렇지만 막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인식론적 우월성이 약간 있고 아유 저 어린 것들. (질: 그렇지, 나는 뭘 알고.) 응. 니네가 고통을 알아? 이래가지고 그런 걸 아니? 약간 그런 식의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뭐 피해자가 되고 했지만 어떤 시기에는 분명히 너무 사람들이 이제 지지하고 도와주지만, 어떤 시기에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어 이거 (1'05'00) 안 되겠다. 내가 그럼, 너무 이렇게 피해자로만 살면 내가 되게 고립된 삶을 내가 살 수 밖에 없겠다고 되게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사례16, 2차:20)

사례16은 아버지의 폭력 및 이후 시작된 “방황” 과 함께 그 어떤 사례보다 중층적인 성/폭력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피해자라는 정체성을 고수하지도 않았으며, 이것을 자신 혹은 타인에 대한 미련이나 원망, 나아가 타인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도 않았다. 일련의 성/폭력 경험을 통해 젠더를 이해하고 자신을 재해석하면서도 앞으로 자신이 추구해야 할 삶을 상상하며 피해에 압도되지 않았다. 사례의 성/폭력 중층피해가 젠더 폭력에 대한 이해와 회복력이라는 “콜라보레이션” 의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인간과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정폭력을 함께 경험한 피해자인 오빠와 엄마와의 연대감과 상호 신뢰가 뒷받침이 되고 있었다.

IV. 나가며

많은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가정폭력은 여성에 대한 통제와 남성에 대한 의존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때문에 이중적인 성역할규범이나 여성 혐오와 결부된 가정폭력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가중시키기도 하고, 피해를 발화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하면서 성폭력 피해의 극복을 지연시키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폭력 피해에 대한 분노나 그 안에서 느낀 불안, 고립감을 성관계나 연애, 결혼에 대한 환상과 같이 이성애적 관계 속에서 자신을 성적 존재로 재구축 하는 방식을 통해 해소하려 하거나 정반대로 여성혐오와 성적 존재로서의 불안감으로 인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방어적인 방식을 취하기도 했으며 이것이 자신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의미화 방식의 차이를 가져오기도 했다. 물론 피해자들은 이러한 중층 피해의 경험을 통해 이중적인 성적 규범에 대한 저항으로서 성폭력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도 하고 자신이 경험한 성폭력 피해가 남성중심적인 관계가 만들어 낸 것임을 자각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경험하는 외로움이나 불안, 공격성의 문제는 남성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 성적 이중규범이나 여성의 몸에 대한 수용과 거부, 자녀 양육자로서 엄마에 대한 원망과 이해 등 젠더화 된 요소들과 깊게 결부되어 있으며 성폭력 피해 역시 이러한 생애 경험 속에서 의미화 된다. 성폭력을 모든 폭력들보다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상정하거나, 중층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들의 문제를 부모와의 애착이나 심리적 문제로 환원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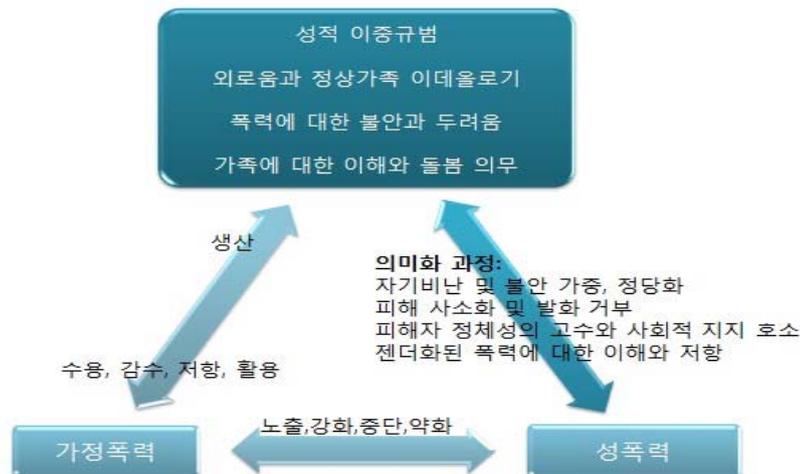


그림 1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성폭력 피해 경험

대다수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정폭력 피해의 결과로 초래된 자신의 무기력감이나 주도적인 의사소통의 문제, 남성예의 의존 등이 성폭력 피해를 초래하거나 피해를 강화시킨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는 이러한 자신의 삶을 재해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가 성폭력 피해를 자신의 불운한 ‘가정사’ 혹은 어머니 아버로부터의 애정 결핍에 기인한 문제로 축소시키고 그 결과 성폭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자기 비난을 강화시키거나 혹은 정당화하며 타인을 원망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우려스럽다. 중층피해를 통해 자신의 젠더화된 삶을 이해하면서도 ‘1등 피해’라는 정체성을 고수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남은 삶을 꾸려나간 사례16과 같이, 필요한 것은 누적된 성/폭력의 피해자로서 자신을 이해하되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균형감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서조차 사회적 인정과 지지를 기대할 수 없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성찰은 쉽지 않다. 지속적 폭력에 노출되면서 그 누구로부터의 도움도 받아본 경험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하고 이해받는 작업은 선택지로 존재하지도 않았다. 폭력의 상황에서 함께 살아 남은 피해자에 대한 연민과 부양에의 책임감 역시 자신의 성폭력 피해나 혼란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이기적인 행위로 치부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성폭력 피해는 이들이 겪어온 긴장과 불안 등의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외화할 수 있는 계기와 가족이 마련해주지 못한 사회적 인정과 지지망을 제공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한편 긍정적이기까지 하다.

폭력이 지속되는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불안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에의 노출이나 비난, 폭력이 강화되는 상황도 달라지기 어렵다. 또한 가정폭력의 피해 경험 이후에도 새로운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못한다면 피해자들은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인 과거의 피해 경험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가정폭력에 대한 조기개입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지지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중요한 일임에 틀림 없다. 무엇보다 가정폭력의 피해는 성폭력 피해에 더하여 단순한 사건의 누적으로서 중층폭력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피해자들의 인생에서 상당한 시간을 삼켜 먹어 버리며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점, 그로 인해 이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성의 빈곤이나 불안정한 노동지위의 문제 역시 성/폭력의 의미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 역시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생애사적 맥락에서 분석한 성폭력피해의 의미화

유현미(울림 책임연구원) · 김다미(울림 객원연구원)

I. 서론

1. 문제의식

이 장에서는 성폭력피해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 자료를 통해 성폭력피해가 개인의 삶의 맥락에서 어떻게 의미화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려 한다. 성폭력피해 ‘사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전체 삶의 지평과 조건, 생애인식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드러냄으로써 피해의 의미를 유형화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 성폭력 문제는 피해의 치명성과 피해자보호, 가해자 엄벌주의를 강조하는 담론에 갇혀 점차 구획화, 전문화된 지원체계나 법정책의 문제로만 환원되고 있다. (최근에는 4대약의 하나로) 개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제도화된 대응 매뉴얼과 대책은 일정 부분 유용하지만 한편으로 젠더를 매개로 한 폭력의 복합적 생산과 효과를 단선적으로 파악하고 접근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반성폭력 운동과 이론은 젠더폭력으로서 성폭력이 표피적, 개별적, 개인화되어 다뤄지는 것에 반대해왔다. 체계적 사회구조 문제로서 여성억압과 섹슈얼리티 억압, 젠더 차별로서 성폭력의 문제의식, 그리고 성폭력의 양상, 피해정도나 의미는 개인마다 다르고 맥락을 살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러한 노력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개별 사건들이 다양하게 가시화될수록 상담이나 운동의 현장에서는 실제적인 유용성과 법/정책의 규정 및 대책에 영향을 받아 성폭력을 피해 시기나 피해자-가해자 관계, 가해양태라는 사건의 객관적 특징을 중심으로 ‘유형화’ 하여 이해하고 다뤄왔다. 아동성폭력, 친족성폭력, 데이트성폭력, 공동체성폭력 등으로 분류되어 피해의 원인, 특징, 후유증, 대응/상담법, 법/정책 적용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접근의 유용성과 현실적합성을 부

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연구 역시 상담일지와 설문조사 분석에서는 많은 부분 사건/피해특징에 따른 유형화를 따라 피해인식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려 했다. 심층인터뷰 역시 참여자 모집과 초기 분석은 피해유형별 차이를 전제로 이뤄졌다. 그러나 심층인터뷰 결과를 재차 분석할수록 우리가 마주했던 궁지는 참여자들의 피해 양상과 그에 대한 해석, 실제적 영향력의 지평이 유형별 특징에 따른 기존의 분석에 다 포섭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가 만났던 참여자들은 1회의 성폭력피해보다는 다양한 시기의 다양한 양상의 피해를 겪었으며, 가정폭력, 성매매, 왕따/학교 폭력 등 다양한 폭력 경험이 삶에서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여러 피해를 의미화하는 내용과 정도가 다 달랐다. 혹은 1회의 성폭력피해를 겪었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유형분류에 포함되기 힘든 객관적 특징과 주관적 의미화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는 이런 자료의 특성과 현실을 살리는 분석은 무엇인지 고민했다. 그래서 분석의 관점을 전환해 피해유형별 의미화의 내용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의미화의 내용적 특징 및 그 형성조건과 결과를 드러냄으로써 피해의미의 유형화를 초월적으로 시도했다. 이는 인터뷰의 방법론적 시도를 살리는 것이기도 한데, 우리는 생애사재구성 방법론을 참조해 성폭력피해의 의미화에 개별 사례의 생애사적 맥락이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탐색해보고자 했다. 개별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성폭력을 문제시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 가능할까?

생애사, 구술사의 방법론적 전통은 인간에 대한 총체적 이해, 두꺼운 기술을 목적으로 주로 재현되지 않고 분석되지 않은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를 다룬다. 학제나 연구대상, 자료에 따라 역사적 증언으로서 ‘사실적 진실성’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연구도 있고 왜,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가라는 ‘서사적 진실성’을 풀어내는데 집중하는 연구도 있다. 어쨌든 생애사를 다루는 연구들은 생애사가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구성물이자 행위와 구조를 매개하는 창발적 텍스트이며 열려있는 해석과 실천을 이끈다는 전제를 공유한다. 이는 개인의 생애사적 서술이 그 자체로 고유하지만 그 고유성은 사회구조의 보편화된 틀을 매개, 반영, 생성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것임을 함의한다(이희영, 2005, 2006).

거창한 이론적 정당화를 거치지 않더라도 성폭력피해를 생애사적 맥락에서 분석하는 것이 유용한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마주치는 어떤 곤란을 다루기 위해서이다. 어떤 피해자들은 피해나 사건 특징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되기 힘들거나 그것과는 다른 방식의 피해의미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피해의미나 피해의 영향이 피해사

건보다 ‘크게’ 이야기되거나 ‘작게’ 이야기된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심증은 피해자의 입장과 목소리를 공감하거나 경청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자기의심 속에서 본격적으로 이해되거나 다뤄지지 못한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피해자를 피해자 정체성으로만 묶어두거나 개별 피해의 영향 속에서만 다루려는 인식들 아닐까? 성폭력의 영향이나 의미가 개인마다, 맥락마다 다른 것이라면 그것은 선언적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탐색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 하에 이 장에서는 개별 사례의 생애사적 맥락 속에 성폭력 의미화를 위치짓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이 목적을 위해 우리는 생애사재구성 방법론의 원칙을 참고해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서술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내용 이해를 위해 이 원칙과 적용을 간단히 제시하고자 한다. 생애사재구성 방법론은 주제와 형식 제한 없이 “살아온 이야기를 자유롭게 해 달라”는 개방형 질문을 시작으로 사례의 생애에 대한 현재적 의미화를 밝히고 분석한다. 이것이 초기이야기를 통한 ‘이야기된 생애사’ 분석이다. 인터뷰 참여자의 구술은 모두 현재의 관점과 특유의 서사구조를 통해 ‘재구성’ 되고 ‘재해석’ 된 자료로서 그 자체가 과거와 현재의 ‘사실’을 그대로 지시하거나 반영하지 않는다. 생애사재구성 방법론은 사례가 살아온 이력을 시간 순으로, 사실/정보 위주로 구성된 ‘생애이력’을 앞의 ‘이야기된 생애사(a life as told)’, 즉 개인의 생애인식과 비교함으로써 구술 당시의 현재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거리를 둔 특정 시점의 ‘체험된 생애사(a life as experienced)’를 재구성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된 생애사와 체험된 생애사를 비교함으로써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사회구조를 재구성하고자 한다(이희영, 2005, 2006).

우리의 인터뷰와 분석은 생애사재구성 방법론을 엄밀히 적용하지는 못했다. 여러 상황적 제약이 있었는데, 우선 방법론에 대한 숙지와 훈련이 다른 여러 연구자가 여러 참여자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고, 여러 유관기관과 상담소의 연계를 통해 이뤄진 연구이기에 이미 ‘성폭력피해’로 좁혀진 이야기가 기대되는 인터뷰 상황이 연출되었다. 생애사 인터뷰에서 핵심이 참여자가 자유롭게 구술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과 자율적 구술 상황의 확보라면, 이는 어느 정도 제약된 채로 시작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최대한 생애이야기를 끌어내려고 했고, 생애이력을 재구성했으며 전체 삶 속에서 피해의 의미에 대해 물었다.

방법론을 엄밀히 적용하지 않은 것은 연구목적과도 관련이 있는데 우리는 생애사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야기된 성폭력의미’와 ‘체험된 성폭력의미’를 드러내고 비교해보고자 했다. 그리고 둘 간의 차이나 공통점을 생애적 조건과 인식 속에서 이해해보고자 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설명은 각 사례의 서서구조의 고유성과 특징 때문에 체계적으로 적용되지는 못했지만 대략 다음의 틀로 진행될 것이다.

- 피해 특징과 사건 개요 기술.
- 사례가 호소하는 피해 의미 내용 서술.
- 피해로 당시 체험된 내용과 사후에/현재 의미화하는 것에 차이나 공통점을 드러내고 그 조건이나 과정을 서술.
- 이런 피해구성의 함의는 무엇인지 평가.

다음에서 설명될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먼저, 인터뷰한 총 29사례를 일차적으로 분석하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와 의미항목, 키워드를 묶어서 이것들이 여러 개 나타나고 그 결합이 ‘의미있게’ 분석될 수 있는 대표사례를 추출했다. 여기서 대표사례란 연구 주제의 관점에서 충분한 해석을 담지할 수 있는 유형적 사례라는 의미이지 객관적 대표성의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앞의 연구를 통해 가정/중층폭력과의 연관성으로 성폭력 의미화가 충분히 설명되거나 다뤄진 사례는 제외하되, 그럼에도 성폭력 의미화에서 발견되는 일반화된 함의를 제시할 필요성이 클 때는 다시 다뤘다.

이런 기준을 통해 선택된 사례는 총 9개이며 사례 3,5,7,10,15,20,21,25,27번이다. 각 사례에 대한 기본정보는 앞의 7-8쪽의 <표2 심층면접자 기본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I. 본론

1. “엄마 없는 외로움이 만든” 피해: 정상가족 추구의 동력이자 걸림돌로서 성폭력

① 외로움과 “잘해준” 사람들: 극복의 서사구조

사례20은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동네아저씨에게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하다 10세경부터 14세까지 강간피해를 입었다. 14세에 교사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고 고소를 한 후 가해자는 징역형을 받았으나 출소 후 현재 고향에 거주하고 있다. 14세에 큰아빠에게 1회 강간피해를 입었으나 자신을 양육하고 있던 할머니의 반대로 고소를 취하였다. 동네아저씨에 의한 피해를 신고한 후 학교, 이웃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몇 차례의 자살시도와 단기가출을 경험했고 전학과 여러 쉼터 생활을 반복하며 고향을 떠나게 된다. 고등학교 선배와 사귀다 임신, 낙태 경험이 있고 22세경에 다시 만나 결혼해 현재 자녀를 양육하며 전업주부로 살고 있다.

4세에 부모가 이혼해 조부모에게 맡겨져 주로 할머니가 양육했던 사례는 이로 인해 자신이 “외로움도 많이 타서 누가 조금이라도 잘해주면, 그 사람을 많이 의지하고 했던 것” 같다고 초기이야기에서 말한다. 사례는 농사일로 바쁜 할머니로 인해 어릴 때부터 집에 혼자 있었고 그 때 찾아온 동네아저씨가 돈과 과자를 주며 “잘해주었기”에 자신이 “더 따랐던 거 같다”고 피해의 원인을 평가했다. 친밀감과 신뢰를 이용해 발생하는 아동성폭력 피해에 따라올 수 있는 전형적인 해석이다.

사례가 성폭력피해의 원인으로 이야기하는 외로움과 타인의존성은 남편과의 이른 결혼 선택을 설명해주기도 하고 의지하는 자신에게 “잘 해준” 사람들-피해사실을 최초로 말한 여자교사, 편안하게 진술하게 해준 여자경찰, 방황할 때 도와준 여러 쉼터, 상담소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사례는 자신을 양육하고 동네아저씨에 의한 피해 때 믿어주고 고소한 할머니에 대한 감사와 이해를 표현하고 있었다.

“애기 낳고 키워보니까 그 때 부모님 마음, 할머니 마음, 알 것 같” 다는 표현은 현재 ‘엄마’인 자신의 입장과 경험에서 과거 할머니의 행동을 이해해, “너무 힘들고 바쁘게 살았던” 과거에 비해 지금은 “정말 행복”하다는 ‘극복’의 서사구조 속에 통합되어 있었다. 현재 삶의 지평에서 과거의 피해와 그 영향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의미있는 타자들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관점에서 풀어가는 사례의 이야기는 주체의 적극적인 행위성이자 서사적 노력이다.

② 체험된 2차 피해와 전가되는 원망

그러나 극복의 서사구조가 온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몇 가지 생애사적 사실과 이야기가 있다. 이 균열은 “잘 해준”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례의 생애인식과 성폭력피해 의미화가 가지는 특징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큰아빠에게 불시에 당한 피해는 동네아저씨에 의한 피해를 드러낼 때 함께 할머니에게 말하고 신고했지만, 할머니는 “식구니까” 묻으라고 요구했다. 할머니가 어린 시절 잘 해줬다는 긍정적 평가가 반복되는 것에 비해 “좀 황당하긴 했어요. 할머니가 그런 그때는 좀 많이 속상하고 맘 아팠” 다는 언급은 한 번이지만 당시 사례가 체험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사례는 또래였던 사촌이 친부인 큰아빠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지 않았을까 의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사례는 당시 할머니의 요구를 수용했고 현재에도 큰아빠에 의한 피해를 드러내거나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침묵, 단답, 대답회피의 형태로 이 피해는 외로움과 타인의존성이란 생애이해에 통합된 동네아저씨에 의한 피해에 비해 충분히 의미화되어 있지 않았다.

사례는 동네아저씨에 의한 피해가 동네에 알려지면서 “어떻게 몸관리를 해서 그렇게 당하냐”, “좋았냐” 라는 비난을 듣고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배려받지 못한다. 15세의 나이에 혼자 “교복 입고 산부인과 갔다 오” 고 “재판 받을 때도 아무도 없었던” 경험은 “제일 힘들었던 것” 으로 남아있다. 이처럼 고소 이후 폐쇄적인 지역 공동체 내에서 홀로 겪었던 2차 피해와 재판과정은 사례가 3번이나 정신과 약을 과다복용해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힘든 경험이었다. 이 과정에서 할머니와 아버지는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할머니는 당시 아팠고 아버지는 재혼 후 따로 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사례는 당시 “제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아무도 제 얘기 안 들어주니까 힘들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 기에 자살시도와 가출을 감행했다고 말한다. 할머니나 아버지의 대응이 충분치 않게 체험되었으며 이를 사례가 표현하기도 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가출할 때마다 아버지가 찾아왔고, 2차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원한 심터 이동과 전학을 반대하기도 했다. 할머니와 아버지가 피해를 “믿어줘서” 고맙다는 현재의 평가는 이런 사실들을 고려했을 때 당시 체험과 결부되어 있지는 않아 보인다.

사례는 어린 시절 할머니나 아빠에게 강한 친밀감을 느끼거나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속된 피해를 할머니에게 말하지 않고 중학교 교사에게 최초로 말한 이유에 대해서 사례는 “할머니가 저 여태 키워줬어도 좀 거리감은 있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말을 하기가 힘들었다고 해야 되나?” 라고 설명했고 아빠에 대해서도 “아빠랑 거리가 좀 멀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빠랑 같이 살아본 기억이 없거든요” 라고 말한다.

큰아빠에 의한 피해를 덮고 2차 피해의 고립된 상황에 별다른 도움을 제공하지 못한 할머니나 아빠에 대해 사례가 원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네아저씨에 의한 피해 발생도 관점에 따라 집을 비운 할머니와 아빠로 인한 것이라고 원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고생해서] 원망은 별로 안 했고 엄마를 원망했죠”, “엄마가 나 버리고 가서 나쁜 일이 일어나고 엄마가 옆에만 있었어도 든든하고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라는 언급에는 보호에 대한 기대, 자신의 외로움과 성폭력피해에 대한 귀인 및 원망이 엄마에게 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는 어린 시절 전면적인 돌봄이나 적절한 피해 대응을 제공할 수 없었던 할머니와 아빠의 사정은 이해하려고 했다. 그럼에도 체험된 후유증과 2차 피해로 인한 원망의 감정은 쉽게 해소될 수 없는 문제로 그 대상을 찾게 된다. 최초/최종 보호자이자 양육책임자로서 사회적 기대를 받는 ‘모성’ 이 사례의 생애사적 작업에도 호출되고 있었다.

부재하는 엄마에게 투사된 감정이 물론 원망만은 아니다. “애기 낳고 막 산후조리 할 때 다른 사람은 다 친정엄마가 와서 해주” 는 것을 볼 때처럼, 자녀를 양육하면서 현재는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하면서 보고 싶기도 하고” “정말 그리워” 지고 있다. 현재의 ‘어머니노릇’ 을 통해 엄마에 대한 감정과 평가는 변화하고 있기도 하다. 이것이 과거 성폭력피해 의미화나 생애인식에 어떤 변화를 미칠 지는 아직 미지수다.

③ 서사적 노력의 한계: 남편과의 관계

요약하자면 사례는 외로움을 키워드로, 자녀를 낳아 기르는 엄마 역할과 입장으로 생애와 성폭력피해, 주변 관계를 엮어내 이해함으로써 극복의 서사를 직조하고 있었다. 이는 씬터 같은 사회적 지지망을 경험하고 독립하면서 자책하지 않고 “똥똥하게” “제 노력” 으로 살려는 태도를 배운 사례의 행위성이다. 당시 체험된 감정이나 관계와 다르더라도 현재의 입장에서 할머니나 아빠를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나가려는 적극적 실천의 의의 역시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그 행위성과 실천이 어느 방향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는 남는 문제이다. 사례의 서사적 노력은 엄마에 대한 원망처럼, 고정된 성역할의 정상가족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현재 남편과의 관계도 이를 잘 드러낸다. 사례는 고등

학교 때 여자가 거의 없는 공업고등학교에 다니며 힘들어하던 자신에게 “잘 해준” 선배와 “운명적 만남”으로 결혼해 지금도 “너무 잘해줘” 이른 “결혼하길 잘했던 생각”을 한다며 “가정적”인 남편에 대한 애착을 드러낸다.

그런데 사례는 남편에게 성폭력피해를 “숨기고 살고” 있으며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는” 할머니의 조언처럼 “평생 묻고 살려고” 한다. 피해 후유증이 클 때 진단받았던 지적장애에 대해서도 숨기고 있다. 사례는 남편도 남자라 솔직히 다 믿지는 못한다고 인식하면서 자녀를 많이 낳기를 원하는 남편과 달리 양육이 전부 자기 책임으로 오기 때문에 “몰래 피임”도 하고 있었다. 이는 “남편은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고 “고지식하”게 생각하는 남편과의 갈등을 피하는 전략이지만 항상 노출의 위험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순응전략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엿보인다. 아는 사람에 의한 지속적 피해를 경험했음도 자녀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이 밤길과 모르는 사람 조심하라고 교육시키는 정도에 그치며, “밤에 잘 나갈 일도 없고, 아줌마라서, 또 나가더라도 애아빠 동행해서 나가게 되는” 수준에서 성폭력 두려움을 없애려 하고 있는 실천도 이 한계를 고민하게 만든다.

현재 사례를 지배하는 가장 큰 두려움은 출소하고 고향에 거주 중인 가해자나, 고향 사람들에 의해 자신의 피해가 남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다. 그래서 사례는 할머니와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으면서도 고향에 오래 머무를 수 없다. 또한 피해가 남편에게 알려질까 봐 고향 친구들을 가족행사에 부르지도 않고 친구 없는 서울 생활을 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와 관계를 가족 내에 한정시키고 남편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정상가족을 추구하는데 성폭력 피해는 동력이자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었다.

2. 인생과 자아의 “무너짐”으로서 피해: 성공해야 하는 딸의 위치

① 엄청난 후유증과 확대되는 피해의미

사례25는 30대 초반에 야근을 마치고 돌아가다 집근처 골목에서 모르는 남성이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끌고 가려한 경험이 있다. 목격자로 인해 가해자가 도망가고 즉각적으로 신고를 했지만 가해자를 잡지는 못했다. 사례는 이후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환청환영, 불면증 등의 여러 신체증상이 나타나 자살의 위험이 우려된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병원에 입원을 했으며 실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리고 계속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나 휴식을 반복하다가 결국 오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

사례에게 당시 체험된 피해는 “죽음의 공포”였다. 목이 졸리는 악몽을 꾸고 성별에

관계없이 뒤에서 누가 다가오면 공포스러워 진다는 이후 반응은 사례의 체험이 성적인 의미보다 신변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왔음을 보여준다. 비오는 골목길 갑자기 습격을 당한 사례는 “얼굴 보지 못한 상태에서 뒤로 끌려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소리를 질러 목격자를 오게 한다. 이처럼 불시의 습격에 대응을 했고 무사히 벗어났음에도 사례는 “사고가 난 게 다 저 때문인 것 같” 은 자책감이 심했다. 이 자책감은 몸과 정신 상태를 더 악화시켜 “전환장애” 진단을 받는 수준으로 까지 나아가게 했다.

사건 이전까지 사례는 여러 고객을 상대하고 매장 직원을 관리하는 판매직 중간관리자로 유능한 직장인의 삶을 살아왔다. 사례는 여자직원이 적고 여러 “진상 손님” 을 상대해야 하는 업무환경에서도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 했으며 다른 직원들의 “시샘” 과 “무섭다” 는 평가를 크게 신경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성과중심적인 사람” 이었다고 자신을 평가했다. 그러나 사건 이후 찾아온 후유증은 일의 “결과물이 좋질 못하게” 만들어 일에 대한 자신감을 빼앗았으며 회사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쓰게 만들어 사례를 “작아지게 만들었” 다. 이 작아진 자신을 스스로 견디지 못해 회사를 그만두고 난 후 상담소와 병원 이외의 사회적 관계나 대외활동은 중단된 상태에 이르렀다. 사례는 이를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은 인생의 최대 위기, 전체 삶의 무너짐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인터뷰 내내 보여진 사례의 잦은 한숨과 눈물, 흐느낌, 침묵, 가라앉은 목소리는 삶의 무너짐을 이야기로뿐 아니라 몸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사례는 피해 직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불면, 우울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처럼 사례는 비면식 추행피해 이후 심한 자책감과 후유증으로 직장 내 인정과 직업을 잃었다. 이 결과는 다시 피해의 의미화에 영향을 미쳐 당시에는 “그냥 단순한, 사건 그-행동 안에서 그게 되게 싫었다면”, 지금은 “제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 “되게 못한 사람처럼 느껴지” 게 만들어 “지금 행복하지 않” 은 삶을 만든, 즉 인생의 부정적 전환점으로 피해의미가 확대되어 있었다.

② 드러내지 못한 과거 피해의 영향력

자책감은 이 사례의 체험된 피해와 이후 확대된 피해의미를 매개한다는 점에서 그 형성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왜 다른 길 있는데 밤늦게”, 외진 골목인 “그 길을 갔냐” 는 경찰의 질문을 제외하고, 사실 사례에게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비난을 한 주변인은 없었다. 친척행사 때문에 당시 집을 비운 것을 미안해하는 어머니 친척

들의 반응은 자신들의 부재 여부가 골목길에서의 사건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합리적이진 않지만 오히려 사례에게 지지적이기까지 했다. 또한 사례가 병가를 내기 위해 직장에 사건을 이야기했을 때도 부정적 반응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건 대응을 못한 것도 아니고 주변인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비난한 것도 아닌데 심한 자책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사례는 2차 인터뷰에서야 과거의 다른 피해경험을 말했는데 최근까지 이를 드러내 대처하지 못하면서 내면화했던 피해자비난의 사회적 통념이 최근 피해의 지나친 자책감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례는 20대 초반에 첫 직장 동료들과 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자에게 준강간 피해를 입는다. 술에 약물을 탄 것으로 짐작될 정도로 아예 정신을 잃은 사례는 피해 직후 직장을 그만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 준강간 피해는 최근 1년간의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에서도 말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집단상담에서 다른 참여자의 준강간피해를 듣고 “그 사고가 너무 많이 생각이 나면서” “자살 충동이 막 생길” 정도로 힘들어져 상담소 활동가에게만 피해를 이야기하게 된다.

사례는 과거 준강간 피해에서 자신이 너무 “바보 같다”고 생각되며 술을 먹어서, 정신을 차리고 처신을 똑바로 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남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 것 같은” 비난을 두려워했기에 “내가 왜 조신하지 못했을까 이런 자책을 되게 많이 했”다고 말한다. 이 묻어둔 피해와 자책감은 이후 주변인들이 보이는 성폭력피해에 대한 통념을 강하게 의식하게 만들면서 사례를 붙잡고 있었다.

사례는 최근의 비면식 피해를 직장 내 누구에게도 “끝까지 얘기를 안 하고 싶었”고 병원 입원을 위해 직속상사에게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를 듣”고 “너무 많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불시에 일어난 피해가 알려지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냐는 질문에 사례는 “성폭력 사고가 일어나면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인식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저를 되게 안 좋게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며 사건이 “성추행을 당한 게 아니라 성폭력[강간]을 당했다”고 “부풀려”져 소문이 날 것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전 회식자리 때 남성 직원들이 여성의 노출 심한 옷차림, 늦은 귀가 때문에 성폭력이 일어난다고 말하거나 TV의 성폭력 보도를 보며 피해자에게 “시집은 다 갔다”, “참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이 너무 싫다고 의식하고 있었다.

자신의 피해에 대해 회사 내에서 직접 비난을 들었거나 소문의 내용이 확인된 것도 아닌데 그 가능성을 예상하며 심한 자책과 두려움을 갖는 이 “뽀족한” 반응은 비면식 피해사건의 특성과도 매끄럽게 일치가 되지는 않는다. 노출 있는 옷을 입은 것도 아니

고, 늘 가던 퇴근길에 당한 불시의 습격에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통념적 비난이나 시선이 적용되기는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사례는 “사고가 난 자체가 수치스럽고” “일이랑 별개의 문제”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싶지 않다고 논리를 전환했다.

③ 직장 내 성취의 생애사적 중요성과 피해 인정받기

이처럼 직업경력에 “흠집” 나는 것 자체가 걱정된다는 설명은 사례에게 ‘일’과 ‘성취’가 가지는 생애사적 맥락을 이해하면 타당한 면도 있다. 사례는 초기 이야기에서 “스무살 때까지는 좀 부유했”던 집의 가정형편이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인해 “힘들어진” 상황을 묘사한다. “부러울 것 없이 제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았”던 “그냥, 모든 게 완벽했”던 삶에서 아버지의 사업실패는 부모의 이혼을 낳은 삶의 큰 변곡점이었다. 엄마, 고등학생이던 남동생과 함께 살게 되며 경제적 부양부담을 느낀 사례는 대학 휴학 후 일을 시작했다가 결국 대학을 마치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게 된다. 어릴 때부터 “눈에 띄는 성과 나는 거를 좋아”했고 미술대회 입상과 좋은 성적이라는 ‘성과’를 통해 미대 진학을 한 사례에게 학업중단은 속상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그 마음을 모른 척” 해야 했던 일이다.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기대하고 의존하는 엄마에 대한 부담감도 생겼다.

성취지향적인 성격과 행동은 이후 직업에 적용돼 회사에서 “좀 높은 직위까지 올라가”는 것에 이른다. “실적을 잘 낳아서도 있지만 뭔갈 계속 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사람이라서” 자신이 상사에게 “늘 좋은 평가”와 “늘 예쁨 받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결혼 생각도 없었고, 남자친구도 없었기 때문에 뭇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었”다는 사례의 이야기에는 직장에서의 인정이 사례의 자아실현을 결정짓는 유일한 영역이었음을 드러낸다. 그런데 비면식 피해사건의 후유증은 성취를 통한 직장에서의 인정을 어렵게 만들었고 이는 일에 대한 자신감을 넘어 자아 전체와 인생에 대한 위협이 되었다.

비면식 피해 사건이 사례를 더욱 힘들게 만든 것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인 회사조직에서 성취가 아닌 고통의 경험을 “이해” 받고 “배려” 받을 수 없다는 데 있었다. 사례는 비면식 피해를 일종의 “산재”로 의미화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견딜 수 없이” 커졌다고 호소했다. 사례가 보기에 자신은 “회사 업무를 깨끗이 끝내기 위해서 야근을 한 거”였고 퇴근길에 일어난 사고였는데도 “산재처리가 되는 건 아니”였다면서 택시비 지급도, 업무시간 조정도 해주지 않던 회사 시스템에까지 문제의식을 확장해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떻게 보

면 좀 웃길 수도 있” 고 일종의 “보상심리” , “피해의식” 이라고 스스로도 평가한 이 의미화에서 중요한 것은 “물질적으로나 [병가, 휴직을]유급으로 처리해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말만이라도 회사 일을 하다가 그렇게 돼서 얼마나 미안한지 모른다는 한마디” 였다. 그 한 마디를 안 해주고 “이렇게 길게 쉴 만큼 큰일인가?” 라던 상사의 언급은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회사에서는 모르는 척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을 줬고 사례의 후유증을 더 확대했다. 나아가 이 서운함은 그런 회사를 선택해서 “꾸역꾸역” 일만 한 나에 대한 자책을 심화했다.

이런 측면에서 사례는 비면식 피해를 전혀 “일이랑 별개의 문제” 로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 후유증을 일과의 연관 속에서 인정받고 싶어 했고, 체험하고 있었다. 이 ‘산재’ 의 측면을 인정받으려면 피해에 대해 직장 내 활발한 드러내기가 오히려 필요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전의 준강간피해는 성폭력피해자 비난을 스스로 더 내면화해 최근의 피해에도 적용되게 하고 있었다. 직장내 소문에 대한 두려움에서 반복돼 이야기 된, ‘강간’ 피해로 확장돼 “그런 사고를 당한 아이” 로 바라보는 시선에 포섭되는 두려움이 환기하는 사건은 이전의 준강간 피해에 가깝다. 사례 역시 2차 인터뷰에서 “[비면식 피해에서] 되게 너무 제가 수치스럽고 사람들이 저를 욕할까 겁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어저께. 그 사고[준강간피해]가 있어서 제가 좀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라고 깨닫고 있었다.

④ 의지하는 엄마에 대한 딸의 부담과 원망

과거 준강간피해의 숨김으로 내면화된 자책감과 통념을 매개로, 생계와 자아실현의 유일한 수단으로서 직장 내 인정이 가진 생애사적 중요성은 비면식피해의 후유증과 의미화, 결과를 확대하고 있었다. 놀라운 점은 사례의 엄마에게도 이 확대된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사례는 자신의 심한 후유증을 바라보는 엄마도 힘들어하면서 “또 내 딸 해코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불안장애, 우울증, 불면증, 환영” 을 동일하게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과 비슷하게 “활동적이고 되게 강한 분이었던” 엄마의 모습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사례에게 미안한 감정과 동시에 원망의 감정을 들게 하고 있었다. “딸 때문에 아파서 일을 못하고 있다” 는 엄마의 인식은 이혼 이후 지속된 자신에 대한 “의지” 와 “기대치” 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자신은 심해지는 자책과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해야 하는 부담 속에서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고 막막해지고 있었다.

부모의 이혼이란 삶의 첫 번째 변곡점 이후 사례는 “제 돈이라고 말할” 것 없이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랑 같이 살고 있는 집에 써야 되는 돈” 을 버는 삶, 즉 의지하는 엄마를 경제적, 심리적으로 부양하는 딸의 위치에서 직장에서의 인정과 성취에 매달리고 그것으로 딸 위치에서의 힘듦과 (문어둔)원망을 보상받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비면식추행 피해라는 삶의 두 번째 변곡점은 의지로 돌파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무너짐으로 나타나 사례에게 지금까지의 자신과 가족상황을 바닥에서부터 대면해야 하는 질문이 되고 있었다.

자신과 엄마의 실업상태, 계속되는 후유증은 쉽게 치고 나올 수 없는 바닥으로 보인다. 새롭게 배우고 있는 취업기술을 시작으로 사례가 피해를 다르게 의미화하고 헤쳐 나갈 수 있는데 필요하고 복구해야 하는 사회적 관계와 자원, 의미망이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3. “조직 내 부당함”으로 인한 피해 : 실망이 초래한 도덕적 평가

① 부당한 조직문화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사례15는 직장 내에서 정규직 전환의 통과이레로서 관례적으로 행해졌던 상사와의 1대 1 술자리 후 성추행을 경험했고,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후 준강간 사건을 경험했다. 이후 직장 동료가 같은 상사에 의해 성폭력을 경험했음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사건들을 포함하여 회사에 문제제기 하게 되었다. 대표와 논의 시에는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두 사건 모두 공론화하려 했으나 대표가 준강간 사건을 묵인하고자 했기 때문에 직원들 앞에서 자신이 사건을 직접 공개하게 되었다. 이후 상사는 징계에 의해 해고 되었고, 동료인 가해자는 퇴사했다. 인터뷰 당시에는 상사에 의한 성추행을 고소하여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사례의 직장은 업계에서 “처우가 좋기로 유명한 곳” 이지만 그만큼 업무 강도가 강하며, “부당함에 대해서 말할 못” 하는 곳이기도 하다. 사례에게 조직문화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계기이면서 직장의 부적절한 대처의 일차적 원인으로 인식된다. 사례는 서류 상 정사원이지만 실제로는 1년이 넘도록 수습사원으로 대우 받으면서 “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야” 정사원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노동 통제 때문에 점차 “빌빌” 거리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던 중 정사원이 되기 위해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상사와의 1대 1 술자리 면접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은 그동안 조직이 가지고 있던 부당한 고용 조건의 측면에서 문제적이라고 인식된다.

사례는 두 사건 이후에도 “회사에서 뼈를 묻는 것” 을 다짐하며 사건을 묵인했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큼” 큰 “애사심” 을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이야기 된다. 그러나 동료의 피해를 인지하게 되면서 그동안 “참아온” 부당함에 대해 “회의” 감을 느끼게 되었다. 사례는 공론화 당시만 해도 사건이 정당하게 해결되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준강간 사건을 의심하고 무마 시키려는 대표의 태도, 나아가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조직 내의 여러 문제들, 이로 파생된 사내 “정치” , 피해자들에 대한 괴롭힘 등은 그동안의 헌신과 기대를 “과한 믿음과 충성심” 이자 “순진한 생각” 으로 자각하도록 했다.

사례는 두 사건 중 상사에 의한 피해를 고소했으며, 이는 “대의” 라는 차원으로 의미화 된다. 또한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를 기점으로 조직의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대표가 사임을 했고, 이후 ‘편가르기’ 식 정치적 세력 다툼에 의해 사례는 몇몇 직원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이러한 상황은 성폭력 사건들이 상사와 부하의 위계위력에 의한 성적 침해로 넘어 조직 전체의 불합리함과 투쟁으로 위치지어 지는 데 기여했다.

② 타인에 대한 실망에서 기인하는 도덕적 평가

사례의 서사는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한편, 인터뷰의 많은 부분을 여성인 회사 대표에 대한 평가와 감정에 할애하고 있었다. 사례가 대표를 “증오” 한다고 하며 때로는 “가해자보다 더 싫” 다고 호소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사례는 사건을 공론화하기 전까지 같은 여성으로서 “존경” 했기 때문에 대표가 성적 어필을 통해 업계 내에서 사업을 운용한다는 루머를 믿지 않으려 했다고 말한다. 오히려 대표로부터 여성으로서 겪는 고충을 들으며 “대표님이 여자인 게 죄” 라고 “편들고” 다닐 정도였다. 실제로 대표와의 관계가 나빠진 이후 사람들은 몇몇 루머가 사실이라는 점을 알려주기도 했는데, 사례는 대표가 타인과의 성적인 관계를 “애기” 함으로써 “세력” 과 “권위” 를 과시한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성적인 측면을 자원으로 삼는 행동 자체는 “사실 알 바 아니” 며 그저 “사는 방식” 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는 사례의 생애 이야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사례는 자신의 성인식과 성적 실천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화려한 복장을 즐겨 입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직장은 매력이나 “치장” 을 드러낼 “의지” 가 생기는 공간은 아니기에 “단벌” 에 가깝다고 하며 공과 사의 영역을 철저히 구별한다. 이러한 자기 인식은 직장 밖에서 일어나는 대표의 사적 생활에 대해 무관심해 질 수 있게 했다.

사례가 대표에게 분노하는 지점은 준강간 사건을 “화간” 으로 보는 대표의 “그릇된

인식”이다. 대표는 피해를 의심하며 자신을 “무시”했고, 무엇보다 사임 발표 시 “성을 매개로”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며 사례를 암시했기 때문이다. 사례는 대표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도 마찬가지로 보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동안 문제시 하지 않았던 대표의 성적 실천과 “인식”은 이로 인해 “도덕적”으로 문제적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표는 “총체적으로” 싫은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며 그동안의 존경과 신뢰는 “실망”과 “증오”로 변화된다.

사례의 서사에서 조직 내 ‘여성’이라는 지위는 중요한 지점으로 의미화된다. 사례는 회사에서 유사한 사건이 있었을 때, 문제제기한 직원을 회사가 “미친년으로 몰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때 이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여자”이며 “여자가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대표가 조직 내에서 “더 남성화된” 존재이기에 자신을 “심정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높은 직급의 여성 직원이 그보다 높은 직급의 남성에게 “기생”해 “권력을 과시”하는 “정치행위”를 한다고 지적하며, “성을 이용”하는 분위기에 동조하는 여성 상사가 있는 한 “올바른” 여성 부하 직원들이 많아 봤자 “소용” 없다고 말한다.

대표나 다른 여성 직원들에 대한 평가는 성별적으로 배치되는 여성의 지위라는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여성노동자들은 남성중심적 위계적 조직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생존전략 중 하나로 여성적, 애교 등으로 대변되는 성애화된 의사소통 방식을 취하게 된다. 또한 성희롱이 성별의 문제임을 인식하는 한편, 남성 상사에게 여성성을 이용하여 고용상 이득을 얻으려는 모습에 의아해 하기도 한다.¹⁾ 위에서 언급된 여성 직원의 경우 역시 조직 내 성별 권력관계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례는 이를 대표의 “도덕” 문제로 치환하며 남성 직원마저 “여성성”을 사업에 이용하는 대표의 방식을 “배운”다고 인식한다. 여기에 직장에 대한 직원들의 “삐뚤어진 자부심”이 결합되어 조직의 “도덕”은 “위”로부터 “무너지면서 내려”가는 것이다. 이러한 서사를 통해 대표의 “도덕성”에 대한 평가가 조직 전체의 “도덕”에 대한 문제로까지 확장되었다는 점을 읽어낼 수 있으며, 상사에 의한 피해 역시 이러한 가운데서 발생한 것으로 이야기 된다. 따라서 사례의 피해는 성별화된 직장 내 권력관계라는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인식들과는 달리, 대표로부터 발생한 조직의 “도덕” 문제로 귀결된다.

1) 허은주·이은심(2008). “직장 내 성희롱 개념에서의 ‘성적 굴욕감’, 인권당사자에게 묻다”, <직장내 성희롱 법제화 10년, 가야할 길을 묻다: 직장내 성희롱 개념, 인권 당사자에게 묻다> 포럼 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

③ 의미화되지 않은 사건들의 위치

피해에 대한 사례의 서사는 성폭력 피해를 둘러싼 조직적 차원에서의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보다 생애사적인 맥락에서 성폭력 피해 경험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는 사례가 가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묘한 사명감” 을 갖고 “인생의 성폭력의 역사” 에서 “살풀이 곳” 을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 이 “역사” 는 대학교 시절 “엠티” 나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들, “개방적” 이려다가 나는 “사고” 들을 통해 자신을 점점 “움츠러들” 게 한 역사이기도 하다. 사례의 서사에서 직장 내 성폭력은 그동안 “재수 없는 일” 로 여기며 문제화하지 않은 여러 사건들에 대응하는 의미를 가진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사례는 직장 내 준강간 사건은 “증거” 와 기억이 없어 불리하기 때문에 고소를 하지 않았으며, 모든 일들을 “고소” 혹은 “증오” 하는 데 “인생” 을 소모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사례는 준강간 사건의 피해가 “정신” 없는 자신에 대한 “강도” 와 같은 일하기에 상사에 의한 피해보다 “수위” 의 측면에서 더 싫다고 본다. 준강간 피해와 상사에 의한 성추행 간의 의미적 차이는 피해자의 서사에서 더 구체적으로 찾기가 어려웠다. 사건 대응 이후 술을 “경계” 하게 되었다는 사례의 변화를 통해 대학 시절의 누적된 경험, 술을 매개로 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준강간 피해의 의미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추측해 볼 수 있는 정도이다.

④ 가족에 대한 인정욕구와 의존성

사례의 서사에서 피해의 의미는 자신이 “시골” 에서 자영업을 하던 부모님에게 “서울” 에 살며 동종업계에서 유명한 직장을 다니는 “한 집안의 자랑” 과도 같았다는 초기 이야기의 맥락에서 좀 더 분명하게 이해된다. 사례는 “따뜻한” 아버지와 “차갑고 냉정” 한 어머니에게 “사랑” 받으며 자랐다. 사례에게 어머니는 세상에 대한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고, 세간의 시선으로 자신에게 “직설적” 인 조언을 해 주기 때문에 “속상” 할 때도 있다. 어머니의 조언은 마치 “점보는 것” 처럼 자신을 “간히게” 만들어 “무겁고” “힘” 이 드는 반면, 그래서 어머니의 “칭찬” 은 더 “힘” 이 된다. 당시의 직장은 어머니가 좋아했던 곳이었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근무하던 자신을 “훌륭” 하다고 생각했지만, 무직인 현재는 “별로 좋은 말” 나올 것이 없다고 본다. 사례에게 어머니는 인정 받고자 하는 대상일 뿐 아니라 사회의 일반적 인식의 척도

로서 사례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그동안은 “사회 역군”으로서의 “자부심”이 자신의 “매력”이고, “자신감”과 “직장”은 “경쟁력”이었는데, “노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이를 상실하게 된 것이라는 자기 인식으로도 발전된다. 사례는 사건이 업계에 소문난 것을 우려하면서도 여전히 일에 대한 신념과 관련 업계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의지를 내비쳤다. 여기에 어머니의 ‘일’에 대한 강조가 더하여 성폭력 피해는 무직이자 향후의 앞날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압박으로 작용한다.

사례의 어머니는 “현실적”이기 때문에 사례에게 “언제까지 놀 거냐”고 묻고, 사례는 화가 나 “격하게” 반응하게 되면서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었다. 사례는 “가족이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며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가족”의 “온전”한 보호를 원한다고 울먹였다. 그러나 “애매한 나이”라고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통해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망설임을 드러낸다. 사례는 부모와 성폭력 사건을 공유하고 있으며, 가해자에게 “내 편”을 보여주고자 대질신문 시 아버지와 동행도 했다. 그렇지만 부모 개입 없이 형사 소송을 진행 중인 친구가 “어른”처럼 느껴지고, 아버지가 따라오는 자신을 “애기”처럼 느끼기도 한다. 자신에 대한 인식만큼 부모에 대한 감정도 흔들린다. 힘들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금전적”으로 “넉넉”한 부모가 경제적인 원조를 해 주지 않는 것이 원망스럽다. 그러나 어머니가 “경제 활동”을 계속 재촉하는 상황은 부모의 거절에 자신이 “상처” 받을 것을 우려하게 만들고, 적극적인 도움 요청을 할 엄두조차 낼 수 없게 한다. 사례에게 성폭력의 피해는 직장 퇴사 이후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고, 사이 좋던 가족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고 동시에 부모에 대한 그동안의 의존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

4. “인간의 유기적 상처”로서 피해: 종교적 성찰의 힘과 한계

사례7은 5세쯤 동네 언니들이 강제로 포레 여자애와 키스를 시킨 경험, 6세 경 외삼촌이 강제로 키스를 한 경험과 동네 아저씨가 성기를 만진 경험, 16살에 모르는 성인남성에게 유인당해 강간당한 경험을 성폭력피해로 이야기하고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 어머니가 아버지의 폭력 및 불화로 일시 가출한 것과 아버지가 16살에 자살한 것이 생애에서 주요한 경험으로 이야기되고 있으며 20대 초반에 수도원에 입회해 종교인으로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다.

사례7은 초기 이야기에서 어린 시절 나눠먹으려던 단무지 냄새에 도망가던 친구들에게 “상처받은 기억”에 대해서 말한다. 이 ‘상처’는 자신의 생애와 성폭력피해를 설

명하는 핵심 단어인데 성폭력피해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모든 상처들”과 “고통” 속에 위치한 것들 중 하나로 의미화된다. 여기에서 성폭력피해는 다른 상처와 마찬가지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도구화”된 경험이고 다른 상처에 비해 크거나 다르다고 볼 수 없는 문제이다. 특히 16살의 비면식 강간은 아버지의 자살 직후 발생해서 모든 상처와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생애사적 최대 위기 속에 하나로 위치해 있지 독자적인 의미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례에서 특징적인 것은 2012년도의 상담 이전까지 성폭력피해가 기억·인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의 상담을 통해 여러 성폭력 피해들이 한꺼번에 “올라 왔”는데 그 이전까지 피해 경험은 특정한 사물/장면 이미지나 그에 따른 자신의 시선, 감정들로 “플래시백처럼” 일시적으로 떠오를 뿐 “잘못된 것 같긴 한데”, “그런 기억들이 저한테 피해인지도 모를 만큼” 의미화가 되지 않아 다시 기억을 “잃게” 되는 문제였다. 그러나 12년도의 상담은 신의 뜻에 따라 이 상처에 직면할 기회로 다가왔고,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이 경험을 다룰 수 있게 된 계기였다. 이후 성폭력상담소 행사에의 참여, 여러 상담 및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통해서 “그냥 상처라고 생각”한 것에 더해 “[성폭력]피해”라는 “인지”가 형성된다.

피해 발생과 의미화 사이의 이 시간적 간격은 의미화의 과정 및 내용에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례는 16살 아버지의 자살과 비면식 강간피해 이후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고 체력이 약해져 여기저기 아픈 신체증상이 나타나고 “상실감”, “버림받은 느낌”을 지속적으로 느낀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보”는 성찰의 과정을 반복하게 되고, 이 과정 속에 삶의 “안내자”를 찾아 종교 활동에 매진하고 탐구하는 선택들이 실천된다. 수도권 입회로 상징되는 종교 생활은 자기수련, “성찰노트” 등을 통해 사례가 더욱더 자신의 ‘상처’를 탐구하고 “내적인 힐링”을 추구하는 행위를 추동한다. 이런 성찰적 행위를 통해 사례는 성폭력피해가 기억되기 전에 자신의 불안감, 신체증상의 원인을 아버지의 자살,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수용해주지 않는 어머니와의 관계 문제로 주로 규정했다.

이와 같은 종교적 언어 및 실천은 “민감”하고 “여린 아이”, 혼자 침잠해 모든 경험과 감정을 “계속 생각하는” “뒤끝이 긴” 자신의 성격과,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심인성” 증상들을 통합해 의미화 할 수 있는 자원으로 작용했다. “가난”하다고 이야기된 가정의 경제형편, 상처에만 집착한다고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엄마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여동생과의 묘한 “질투” 관계 속에서 사례는 원가족이나 또래집

단, 학교생활보다는 종교 공동체의 경제적, 심리적 지지와 지원 속에서 10대 후반부터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20대 때 해외 체류나 선교, 사목실습, 교육 등의 지원도 종교 공동체와 인간관계에 의해 꾸려졌다. 이런 사실을 통해 종교 공동체가 사례의 사회적 자본/관계망의 핵심이자 인식의 준거틀임을 살필 수 있다.

따라서 최근 기억되고 의미화되기 시작한 성폭력피해는 그 피해에 골몰하는 집중적 시간(“온통 일 년을 거기에 다 시간을 보냈다”)을 가졌음에도 기존의 이야기된 생애사의 서사구조를 바꾸지 않고 그 속의 하나로 끼워 넣어진다. “[성폭력]피해자란 정체성 보다는 그냥 상처 입은 내 삶 전체 뭐 이런 식으로 봤던 것”이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체험된 생애사의 측면에서도 비면식 강간피해가 다른 상처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다가왔는지는 미지수다. 여러 상처에서 자유로워지고자 사례가 시도한 종교적 ‘용서’의 기도에서도 용서할 수 없었고 용서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 비면식 강간의 가해자였다. 자신이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가해자를 고통 속에 “뭉어놓고 풀어주지 않”으려는 이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이는 앞으로의 삶의 경로나 의미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미완결의 상태로 보인다.

5. “사회복지제도와 시대의 문제로 인한” 피해: 중층피해의 체험과 의미화, 그 간극

① “확 돌아가버린 삶”을 만든 사회구조

사례10은 5-6세경 동네 가게 아저씨에 의한 추행, 13세 모르는 성인남성에 의한 강간, 15세 또래남학생들에 의한 집단강간, 16세 성매매업소사장 지인에 의한 준강간 등 여러 성폭력피해를 경험했다. 16세에 학업중단 및 가출과 함께 시작된 오래된 성매매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탈성매매 과정을 겪고 있다.

사례10은 초기 이야기에서 자신의 성폭력 경험을 “딱 그 시대에 태어났었기 때문에 생긴 일” 같다고 평가하며 맞벌이 부모의 부재로 인해 “혼자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릴 때의 성폭력피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례와 비교해봤을 때 이 서사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나 자신의 외로움에 대한 호소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보다는 “너무 살기 갑갑”하고 “애들 돌볼 시간도 없”는, “복지”가 되어 있지 않은 당시 한국의 “사회제도”라는 거시구조가 피해의 원인론으로 등장하며 이것은 3차 인터뷰까지 반복해서 이야기되는 핵심 서사구조이다.

피해의 인과론이 가해자나 자신, 부모 등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은

사례10이 현재 자신과 인생을 성찰하는 지점과 연결되어 있다. 사례10은 최근 탈성매매와 지원단체에서의 상담 경험 등을 통해 어릴 때 시작되고 반복된 성폭력피해와 성매매 경험이 현재 자존감과 인간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자문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기피, 두려워하고, 이성애연애관계에 집착하거나 연인을 지배하려하는 양상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오래된 성매매경험으로 인해 “험하게 살았던 느낌”이 담배냄새처럼 배어있는데 이처럼 자신의 삶이 “확 돌아가 버린 것”, “탈선”과 “윤락”의 “계단”을 끝까지 밟은 것의 기원은 “어떤 가정의 불화나 뭐 어떤 환경에 의해서 생각이 바뀐” 것이며 이 환경의 잘못된 변곡점으로 아동기 성폭력 피해가 놓여있다.

② 성매매 경험과 통념의 영향력

그런데 “혼자 돌아다니다 보니까” 생긴 2건의 아동기 피해를 사례는 성적인 함의나 침범으로 체험하거나 의미화하고 있지는 않았다. 성폭력 의미화에서 오히려 사례를 붙잡고 있는 것은 ‘돈’을 요구하거나 받았다는 사실이다. 동네가게 아저씨에 의한 추행에서 가해자는 사례에게 예쁘다며 돈을 주었고, 이것으로 간식을 사먹었던 기억은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잡히기도 전에 일어났지만 그렇기에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잡히지 못하게 하고 “약간 좀 생각이 이상해” 지게 만들었던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에 영향을 받아 사례에게 더 심각하게 체험되고 의미화되는 것은 13세에 거리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에 의해 유인돼 겪었던 강간이다. 당시 사례는 칼로 위협당하며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엄청난 공포와 아픔”을 체험한다. 이 피해에서 성적 쾌감을 느껴거나 순결상실, 더럽혀짐 같은 성적인 통념과 결부된 체험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²⁾. 자신이 사들고 가던 “메추리”의 울음소리가 가해자의 칼을 맞아 조용해진 어둠 속의 빌딩계단에서 사례는 극단의 폭력이나 살해위협 등에서 느껴지는 즉각적인 생명에 대한 위협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공포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사례는 가해자에게 돈을 달라, 다음에도 또 만나자는 제스처를 취한다. 어릴 때도 “돈을 받게 되면, 그건 성폭력이 아니라 그 뭐 성매매”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이 아저씨가 그렇게 하면, 나를 안 죽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영리한 생존전략이었다

2) 다만 현재의 사례에게는 이 사건을 통해 남성들의 접근이 가지는 ‘성적 위협’의 뉘앙스를 다른 또래보다 빨리 알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후 위협의 상황에 대처를 잘 하게 되기도 했지만 중학생 때 야한 소설을 써서 돌려본 것처럼 빨리 성적인 것을 알게 된 계기, 그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 것으로서 이후 섹슈얼리티 구성에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고 평가할 수도 있는 이 대처가 이후의 성매매 경험과 결부되어 피해 의미화예의 확신을 막고 있다는 점이다. 사례는 1차 인터뷰 때 계속 망설이며 이것도 성폭력인지, 내가 왜 2건의 피해에서 돈을 받고 요구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사례는 청소년 시기부터 시작된 일련의, 다양한 성매매 경험 속에서 성판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 그로 인한 성폭력, 괴롭힘 등을 수차례 경험한다. 16살 때 단란주점 사장과 그 지인에게 친구와 함께 준강간을 당한 것처럼 성매매 일을 하면서 여러 “더러운 일” 을 겪고 보게 되지만 경찰이나 주변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을 것을, 즉 성판매 여성에 대한 “시선은 분명 곱지 않을 것이” 기에 “분명히 그게 법적으로는 성폭력이다 라고 될지언정, 그 과정 속에서 그 여자가 그냥 혼자 포기할 것”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묵인” 할 수밖에 없었던 성매매 속 성폭력 경험은 이전의 성폭력 경험에 대해서도 노출하거나 호소할 수 없게 한다.

장기간의 성매매 경험은 성매매에 대한 통념과 성판매여성에 대한 낙인적 평가를 체득하게 하면서 인생의 여러 성폭력피해를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게도 하고, 아동기 피해 시 자신의 대응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막고 있었다. 성폭력 경험을 타인에게 인정받고도, 이해받고 싶지도 않다고 강하게 주장한 사례는 이를 “피해의식을 가동시키지 않는” 것으로 말했다. 중층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가동되지 않는 피해의식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통념과 구조로 인한 또다른 피해자화로 평가할 수도, 피해자화 속에서도 살아나가고 견디고자 했던, 다시 말해 가동되기 쉬운 것을 가동시키지 ‘않으려’ 하고, 제도나 환경처럼 다른 것으로 설명하려는 주체의 행위성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③ 낮은 분노라는 제한된 행위성

이 글은 단정적 평가 이전에 충분한 해석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 사례 피해의미화의 특징인 ‘사회복지와 구조 탓’ 과 함께 ‘가해자 및 방관자/보호자에 대한 낮은 분노’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3차에 걸친 인터뷰에서 가장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된 피해는 15세 때의 집단강간 경험이다. 1,2차 인터뷰 때는 사이사이 침묵을 끼고 구체적이지 않게 설명되던, 일종의 “돌림빵 문화” 이자 또래 남자청소년들의 일진 문화 속 “유행” 으로 간단히 설명되던 그 경험은 3차 때에서야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얼굴이 “보라돌이” 처럼 “보라색” 으로 멍들 정도로 엄청난 폭력을 동반해 친구와 함께 당했던 그 피해는 그럼에도 전체 인터뷰 내내 가해자에 대한 분노로 설명되지 않는

다. 결혼하고 애낳고 일상을 영위하는 가해자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육하는 기본적인 분노나 감정은 있지만, "지네도 불쌍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 " 개네들이 구태여 악의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 이런 건 아닌 거 아니까 " 식의 이해가 작동하고 있었다. 13세 때의 비면식강간의 가해자도 사건 이후, 동네 가게 아저씨임을 '발견' 하고 나서야 가해자 가족에게 알리고 싶다는 충동, 가게의 물건을 조금 훔쳐 나오는 " 소심한 복수 "의 수준에 감정표현이 그친다.

이처럼 가해자에 대한 낮은 분노, 특히 집단강간 가해자에 대한 일종의 이해는 수동적 피해자상과 피해의식을 거부하는 사례의 의지와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야기된 생애사 속에서 사례는 13세 때의 비면식 강간이 여러 성폭력피해들 중에서 확 돌아간 삶과 대응을 낳은 가장 핵심적 피해라 말하지만, 체험된 생애사의 측면에서는 집단강간이 확 돌아간 삶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라 보인다. 집단강간 이후 소문이 나고 또다른 집단강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지역을 벗어나 성매매 업소에 유입되기 때문이다. 가출과 학업중단은 집단강간을 피하기 위해서였고 그 이후로 삶은 성매매 세계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그러나 성매매와 함께 하는 삶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 "내 나름대로 그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것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뽑는" 것이었으며 자신은 "공주인척" 하며 연애편계나 성매매적 스폰서 관계에서 "막 여자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이기도 했다. 특히 여러 차례의 해외 성매매 경험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여유롭고 복지제도가 발달한 세계를 체험하게 하면서 사례의 시야를 넓혀주기도 했다. 이 넓혀진 시야와 마약 투약, 총기사건에의 연루 등 여러 "험한" 경험들은 특정 성폭력 사건이나 가해자에 집중된 감정 및 서사를 막거나 중화시키고 있었다. 또한 성폭력을 사회구조와 시대의 전체 흐름 속에서, 자신의 생애 전체 속에서 일부분으로 위치짓게 하고 있었다. 이런 생애 지평 속에서 사례의 자기인식은 할 수 있는 한 영리하고 적극적으로 누릴 것은 누리고 챙길 것은 챙겨 왔다는 역량중심적 평가에 기대 있었다.

하지만 전체 환경 속으로 넓혀지고 가해자에게 집중되지 않는 이런 의미화는 일종의 '체념' 이자 해소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피해의 영향을 대면하지 않는 전략이기도 한 점을 함께 살펴야 한다. 사례는 비면식 강간피해 직후 엄마가 더럽혀진 바지, 피묻은 속옷 등 피해를 알기에 충분한 모습을 보고도 생리한다는 자신의 거짓말에 넘어간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 이 "확 떨어졌" 다고 말한다. 하지만 엄마를 적극적으로 원망하지도 않는데 그것은 고아원에서 학대받은 어린 시절, 아버와의 불화/이혼, 이후의 경제적 곤궁과 사기피해, 불안정

한 남자관계 등 엄마의 힘든 삶에 대한 연민과 이해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례는 엄마가 성폭력피해를 “정말 몰랐을까” 라는 의심과 원망의 양가감정을 지금도 겪고 있지만 이를 묻어두려 한다.

④ 간파하면서 승인되는 보수적 젠더규범

사례는 비면식 강간피해와 엄마의 대응으로 인해 자신을 보호해줄 어른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착한 딸” 이 되어야 한다는 엄마의 명시적, 무의식적 요구와 엄마의 힘든 인생에 대한 이해는 이 불신을 직접 표현할 계기를 만들지 못한다. 교사나 다른 의미있는 어른에게로 이 불신이 해소될 관계도 만나지 못한다. 이런 생애사적 경험은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므로 스스로를 알아서 챙겨야 하고 어려운 엄마를 오히려 챙겨야 한다는 의식, 남자를 믿지 말고 이용해야 한다는 의식으로 이어진다. 엄마를 비롯해 친족, 교사, 친구, 이웃 등 누구도 자신의 확 돌아간 인생에서 먼저 대가없는 신뢰, 보호, 관계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체험, 아니 오히려 받기된 성기를 만지게 한 아빠, 친구집에 놀러갔을 때 이불 속에서 몰래 자신을 만지던 친구남동생, 청소년인 자신과 친구를 모텔로 데려가려던 엄마 지인 등 자신을 주로 성적 대상으로 보고 이용하려던 아동·청소년기 경험의 축적을 통해 사례는 자신의 여성됨, 성적 매력, 신체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 방식에 익숙해지고 그런 거래적 관계 이외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진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말하는 것은 “약간 나 그렇게 불쌍하다? 뭐 이런 식의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 사용하거나 의도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었다.

사례는 성매매나 성폭력 경험을 남자친구나 다른 친구관계에서 말한 적이 없는데 만약 그걸 알게 되면 “나중에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애가 나한테 너 밥 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그냥 뭐 쉽게 하는 말일 수 있겠는데, 내가 그런 얘기 다 해가지고. 이 년이 나 오늘 까먹으려고 나한테 밥 사라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 피해의식. 그게 되게 많이 발동할 것 같아요.” 라고 우려하고 있었다. 이처럼 자신의 중층피해 경험이 낙인이 되어 누군가에게 이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자신의 “과거” 를 숨기거나 꾸며내야 하는 피로함을 낳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맺기의 어려움으로 다시 귀결되고 있었다.

이처럼 사례가 피해의식을 거부한다고 해서 과거의 피해와 성매매 경험이 현재의 삶과 관계, 자기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남성중심적 성문화와 폭력, 젠더규범을 영리하게 ‘간파’ 하는 주체의 능력과 행위성은 적응전략으로서 주체

에게 그것들을 승인하고 수용하게 만들고 있었다.

사례는 가출 후 주거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게 된 “옛날”의 자신과 해외 성매매에서 만난 저개발국가의 여성들과 “요즘” 한국의 “영악한” 젊은 성매매여성들을 비교하면서 생계형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일을 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불법의 대가로서 벌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남에 거주하며 아들에게 비싼 사교육과 명품옷을 사주기 위해 성매매를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하는 지인 여성에 대한 엄청나게 상세한 묘사와 평가의 이야기도 이런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남성들은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성욕을 성폭력이나 이상한 방식으로 푸는 것보다 성매매를 통해 푸는 것이 낫다고도 보고 있었다. 성매매와 남성 성욕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사례를 낙인찍는 사회의 통념과 다르지 않다.

사례의 이성애관계, 성역할에 대한 인식과 실천도 이렇게 내면화된 사회적 통념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사례는 “남자는 절대 지 한 여자한테 만족 못하는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족속들”, “여자는 원래 말 많고 남자 지갑을 자기 지갑처럼 생각하는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족속들”이라고 고정된 성역할 이분법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 인정을 통해 그동안 남자들 “지네들이 다 해먹었기” 때문에 자신은 여자임을 내세워 “헤쳐 먹어도 지네가 뭐 그거 따질 건 아니지”라는 정당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사례는 “뭐 또 돈이라면 내가 충분히 쓸 만큼 많이 벌어들였기” 때문에 “돈 번다고 너 지금 나한테 지금 유세 부리는 거야?”라고 “남자를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남자에 대한 무시와 공존하는 것은 “가정적인 남자”에 대한 “환상”과 “집착”이다. 성폭력과 성매매 경험은 “제대로 된 된 남자상”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면서 “나만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뭐 이런 가정을 꾸리고 하고 싶다”고 생각해 남자친구들을 “더 거지같이 뉘달을 하게”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아동기 비면식 강간피해에서 체험한 생명의 위협, 보호자/엄마에 대한 불신은 이후 성매매 경험 속 여성의 성적 대상화와 낙인과 결부되어 일종의 보수적인 젠더 규범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와 제도는 아이에게 충분한 보호와 돌봄을 제공할 화목한 “정상” 가족, “가정적인 남자”를 만드는 선결조건의 맥락에서 이야기됨을 여기서 알 수 있다. 안전과 보호의 욕구가 이성애연애/결혼관계에서 가정적 남자에 대한 추구, “남자는 경제적 부양, 여자는 양육”이라는 고정된 성역할의 부모역할 추구로 나타나지만 이는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이다. 사례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20대 후반의 결혼실패로 규정하는데 자신의 취약한 가정환경과 성매매 경험이 체현하는 자신의 분위기로 인해 실패했다고 본다. 그리고 자신이 연애관계에서 “병적으로”

행동하고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결혼에 도달하는 정상적 관계를 불가능하게 함을 알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탈성매매 과정과 관련 상담, 이 연구의 인터뷰 등은 사례에게 성폭력 의미화와 체험을 달리 구성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내면화된 젠더규범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시한다. 사례는 3차 인터뷰 마지막에서 최근 성욕이 올라오는 몸이 싫게 느껴지면서 한편으로 “이제 살만하니까 그런가” 라는 인식도 함께 보여줬다. 이 살만해진 현재의 상황은 인생을 성찰할 여유를 제공하면서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나 인식도 점차 올라오게 하고 있었다. 피해로 인한 감정이나 영향을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대면함으로써 이후 다르게 해소되거나 표현될 수 있는 의미화의 지점을 기대해 본다. 사례가 중층피해로 구조화된 자신의 삶을 정상가족과 고정된 성역할의 승인/추구로 귀결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과 다른 사회적 관계, 자원, 의미망을 더 적극적으로 만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6. “나이 제한, 촌수 제한에 대한 성폭력”: 성적 경계의 침해가 침해하는 것

① 무규범적 가족 내에서 “사랑” 으로 체험된 피해

사례5는 5세부터 17세까지 할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강간피해를 입었으며, 오빠에게는 11세부터 추행을 당하다가 14세경부터 5년간 강간을 지속적으로 겪는다. 11세경 아빠가 키스를 했으며 고등학교 시기 고모부가 술취한 채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시도한다. 그리고 15세 때는 오빠와 모의한 오빠친구에 의해 1차례 강간을 당한다. “집안에 모든 남자들이 다 성폭력성추행이 있었던 것 같다” 는 표현처럼 사례5에게 성폭력은 여러 친족남성(과 지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폭력 및 괴롭힘을 동반한 다양한 방식으로 항시 발생했던 일상적 일이었다.

그런데 폭력과 성폭력이 난무하는 무규범적 일상은 비단 사례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가족 내 모든 여성 구성원들에게 적용되고 있었다. 사례의 여동생도 오빠와 고모부, 할아버지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며, 사례의 엄마, 고모도 할아버지에 의해 추행을 당했으며 이를 피하려 가출이나 독립을 시도하기도 했었다. 사례에 따르면 할머니 역시 할아버지의 강간을 계기로 결혼했다고 추정된다. 사례와 여동생, 엄마는 아빠와 오빠의 물리적 폭력에 시달리기도 했다. 여기에 함께 살던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관계를 “질투” 해 학대와 비난을 심하게 했으며, 오빠를 옹호한다. 사례의 엄마는 가출로 인한 장기간의 부재로 사례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하며, 아들인 오빠를 옹호하기도 한다. 사례는

“이렇게 가족이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구나” 를 어릴 때부터 체험하게 된다.

폭력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지는커녕 모든 폭력이 발생하는 가족관계에서 사례는 이른 시기부터 시작된 할아버지의 성폭력을 “사랑” 과 유일한 보호라 느끼게 된다. 오빠나 아빠처럼 때리지 않았으며, 할아버지의 가부장 위치로 인해 오빠나 아빠, 할머니의 폭력이 일시적으로 멈췄으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며 강제적이기보다는 “유혹” 하는 “성관계” 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성교육을 받으며 성폭력을 인식할 기회를 얻지만 할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성관계” 는 “정상적” 이라 생각해 성폭력이라 의미화하지 않는다. 집을 떠나 쉼터에서 생활하고 오빠를 성폭력으로 고소하면서 진행한 여러 상담이나 말하기 과정에서도 할아버지에 의한 성폭력이 “세뇌” 이기에 “더 나쁘” 다는 다른 사람들의 설명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머리로, 논리로 인정해도 사랑의 감정과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사례는 할아버지에 대한 당시의 체험된 감정이 사랑이었으며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러하다는 것을 검열 없이 인정한다.

할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사랑으로 선명하게 규정될 수 있는 것은 또다른 성폭력 가해자인 오빠에 대한 혐오, 증오가 선명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례에게 오빠는 학교생활이나 다른 관계에서는 한없이 “찌질” 하면서 “약자” 인 자신과 여동생에게만 폭력을 휘두르는 지금도 명백히 싫은 대상이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죽었기에 고소를 못했지만 살았어도 고소를 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을 낳는 대상이다.

그렇다면 할아버지의 행동은 사례에게 성폭력이 아닌 것일까? 사례는 여전히 “100퍼센트” 성폭력이라고 말하진 못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해왔고, 그게 사랑이라고 믿게 했고, 그리고 말이 안 되잖아요. 다섯 살짜리 애랑 한다는 거 자체가. 그리고 어쨌든 자기 욕구를 푸려고 한 거였” 기 때문에 성폭력이라 규정한다. 통용되는 인간사회의 규범을 넘어서는 이 “말이 안 되” 는 행동이 애정과 쾌락으로 다가왔더라도 사례에게는 “할아버지니까, 친족이” 어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즉 “나이 제한, 촌수제한에 대한 성폭력” 이다.

② “정상적” 관계의 가능성과 생존의지의 침해

이처럼 사례는 성폭력을 성적 금기와 경계에 대한 침범으로 의미화하고 있었다. 체험된 사랑의 감정과 공존하는 이런 의미화는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피해 이후 상담자 등 주변인들의 반응이나 근친상간을 터부시하는 사회적 통념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일까? 다시 말해, 사후 구성된 ‘이야기된’ 측면이 강한 것일까?

사례에게 성적 경계에 대한 침범으로써 성폭력이 의미화되고 문제인 것은 삶의 의지와 자존감을 근본적으로 침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생존의지와 자존감은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짓는 도덕적 판단과 연결되어 있었다. 사례는 “정상적인”이란 표현을 반복해 사용하며 아빠, 오빠, 할아버지의 폭력을 비교해 설명했다. 할아버지의 성폭력은 사랑으로 다가와 정상적이었지만, 오빠의 것은 강제로 다가와 정상적이지 않았다. 그런데 한편으로 엄마가 있는데도 다른 여성을 데려와 성관계를 가지고 포르노에 집착하던 아버지를 사례는 “그래도 남의 사람한테 해요. 그래도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그나마 정상적이라고” 규정하면서 할아버지와 오빠의 강간은 친족이란 경계를 넘는 것이기에 비정상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오빠친구의 강간이 힘들게 다가온 측면을 “가족은 쓰레기라고 이미 생각을 했던지라 그래도 남은 안 그러겠지 라는 생각을” 파괴했기 때문이라 이야기 하는 것에는 폭력의 순환 고리에 갇힌 가족 자체/전체가 아예 비정상이라는 평가가 녹아있다.

이 ‘비정상적’ 가족내 폭력을 사례는 “나무는 보는데(개별 폭력은 선명히 기억했다는 뜻) 숲을 못 보(폭력들이 연결돼 통합적으로 기억되지 않았다는 뜻)” 는 분절적 방식으로 기억하며 살아왔다. 가족 안에서, 이웃과 경찰, 학교에서도 어떤 지지나 도움을 받지 못했던 당시의 사례에게 폭력을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기억하는 것은 생존의지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분절적 기억과 체험은 “어떻게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기 위한 생존전략이었다. 그럼에도 당시-특히 할아버지, 오빠, 오빠친구의 성폭력이 한꺼번에 발생했던 15세 시기- 빈번했던 자살생각과 시도는 생존전략의 틈새로 새어나오는 폭력의 후유증을 보여준다.

이처럼 최근 통합해 회상을 해보니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내가 왜 이렇게 아직까지 살아 있는 거지?” 란 생각이 들 정도로 “쇼킹” 한 생애를 살아가기 위해 사례는 ‘정상’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추구하려 했다. 사례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족이 “평범한 가정”으로 보이길 연출했고, “우리집 되게 좋은 집이”며 “다른 집도 다 이렇게 살 거야”라는 “마인드”를 스스로에게 “세뇌”하려 했다고

한다. 그래야 “그러니까 계속 살아야 돼” 라는 생존의지가 유지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빠, 할아버지의 성폭력 사실노출은 살기 위해 붙들고 있던 정상가족이란 규범적 상징을 흔들면서 사례의 “자존심”을 무너뜨린다. 사례는 중학교 때 교사에 의해 오빠의 구타 흔적을 들키면서 성폭력 가능성도 질문받았던 경험을 “내가 되게 좋은 가정이라고 어떻게든 커버하고 했던 게 다 무너지는”, 우리 가족에 대해 “저만 아는 비밀”을 들킨 것 같은 부끄러움으로 이야기한다.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가족내 폭력의 흔적이 드러나는 이 경험은 굉장한 상처와 부끄러움의 경험으로 강조된다. 경찰서나 이웃에게 이미 폭력적 집안으로 “소문” 나고 “유명” 했기에 이 부끄러움은 순결상실, 더럽혀진 몸이라는 통념이나 피해사실의 최초노출이라는 특성에 결부된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비정상적 환경 속에서 정상처럼 ‘보이려 했던’ 자신의 노력이 부정당하고 진실을 ‘강제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입을 수 있다.

사례에게 성적 경계에 대한 침범이 생존과 관계에의 의지를 뒤흔드는 것은 ‘이야기된’ 차원을 넘어 체험으로 지금도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사례는 지하철에서 할아버지가 손녀를 안고 귀여워하는 장면, TV프로그램에서 아버지가 어린 딸과 같이 목욕하거나 친밀하게 스킨십 하는 장면 등을 보면 무척 불편하고 미래의 남편이 딸을 만지거나 기저귀를 갈아주는 행동 등을 하면 굉장히 싫을 것 같다고 표현한다. 즉 가상으로라도, 친족남성이 어린 딸과 신체접촉을 하는 것 자체를 성적으로 읽으면서 “소름끼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사례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섹스로 이어질 수 있는”, “경계가 무너지”는 것, 즉 친족 간의 사랑이 에로틱한 사랑과 구별되지 않으면 “진짜 싹 다 무너질 것 같다”고, 그러면 자신은 “아무것도 못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결혼이나 출산처럼 친족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남자와의 관계는 불가능해질 것 같다고 말한다. 그래서 여러 남자와 많은 성관계를 맺었던 최근의 “섹스중독”의 경험에서도 자신은 몸이 원하는 성욕과 사랑의 감정이 명확히 “구별”되고 그것을 구별하려고 했다고 말한다.

사례는 할아버지와와의 관계가 자신에게는 사랑이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다. 할아버지가 여동생에게도 할머니가 죽으면 자신의 아내가 되는 거라며 성폭력을 저지른 것을 알고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유일한 관계적 자원이었던 할아버지가 보여준 성적 경계의 침범, 즉 할머니, 엄마, 고모, 여동생, 자신이라는 “3대에 걸쳐” “정말 진짜 아무나 하거나 다 하려고 했”던 행동은 자신을 결국 “아무나”로 만든 체험으로 사례의 근원적인 자존감을 훼손하고 있었다.

10대 후반, 할아버지의 죽음과 가족에서의 탈출(실택 입소와 독립) 이후 만난 다른 경험과 사회적 관계, 지지망은 사례가 현재를 살아가고 성찰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그럼에도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현재 사례를 붙잡고 있다.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듬직한 남자친구”와 평범한 가정을 추구하지만 성폭력이 남긴 ‘성적 경계 침범에 대한 두려움’은 남자친구를 완전히 신뢰하거나 충족된 관계를 맺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7. “쪽팔리는” 피해 : 또래집단문화에서 성적 평판의 영향력

사례27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관광지 숙박업소에 갔다가 친구에 의해 성추행을 경험했다. 사건은 자신을 포함해 친구들 여러 명과 한 방에서 자려던 중에, 그리고 다음날 공공장소에서 다 같이 놀던 중에 동일한 가해자에 의해서 여러 차례 일어났다. 인터뷰 당시에는 가해자의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으로 인해 고소하여 사법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사례의 서사에서 주요한 삶의 이야기는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기인식과 경험들이다. “평탄하게 살지 않은 삶”을 살아왔지만 주눅 들지 않는 자신의 당당함, 여러 경험을 통해 쌓인 강인함은 자원이 없는 사례를 버티게 하는 힘이다. 20대 초반인 사례는 “집을 나가서 안 해 본 일이 없이 다 해 본 것 같”다고 자신의 10대를 기억한다. 청소년기 부모의 이혼을 겪고 가출 후 유흥업소 종사와 운영 등을 하며 지내다가 현재는 업소 문을 닫게 되어 지인의 사설 도박장에서 일하는 중이다. 그러나 사업 실패와 우울증, 성폭력 사건 등으로 인해 전에 비해 낮은 소득을 얻고 있는 현재 상황은 미래에 대한 장애물로 여겨진다.

사례의 성폭력 사건은 20대 초반에 발생했지만, 10대 시절 가출과 자퇴 이후 탈학교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가출팸’과 같은 생활 등을 했고, 사건 당시까지도 당시의 또래문화 내에서 만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다. 따라서 사례27이 체험한 피해와 그 의미화는 10대 또래문화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잘 이해될 수 있었다. 섹슈얼리티 문제에 있어 보다 자유로운 개인적 실천과 이중규범이 동시에 작용하는 의미화도 10대 또래문화의 특성으로 읽어낼 수 있었다.

① 친구들 앞에서 “쪽팔린” 성적 행위

‘가출팸’ 생활을 해 본 사례에게 “남녀혼숙”은 익숙한 일이었고, 이전까지는 한 번도 이러한 일이 없었다. 더군다나 가해자는 “너무 편했던” 친구였고 예전부터 혼숙을 한 적이 있었기에 숙소에서의 피해는 예상치 못한 일이자 “배신” 당한 일이었다.

사례에게 성폭력 사건은 “상처”라기보다 타인이 보는 데서 일어난 “쪽팔린” 일이자 “자존심”이 상한 일로 이야기된다. 사례는 10대 시절을 한 방에서 여러 친구들과 함께 잤던 상황과 사건 당시를 비교하며 “여러 명이 있는데”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이는 스와핑에 대한 예시로 이어진다.

“굳이 단체로 할 필요”가 없고, “불 거는 서로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사건 당시 “수치심”을 느꼈지만, 이는 강제적인 성적 행위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일어난 부적절한 성적 행위, 그리고 이를 제어하지 못 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은 사건 다음 날 공공장소에서 성추행한 상황에 대해 “둘”만 있던 상황이라면 “시원하게 한 번 자고 개를 안 보면” 되지만, 설령 “연인사이라고 한들” “사람들 앞이라서 잘못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점에서조차 읽어낼 수 있다.

한편, “쪽팔림”과 “자존심”의 손상은 인터뷰 내내 거침없는 태도와 입담을 자랑한 사례의 자기 인식을 통해서도 이해될 수 있었다. 사례는 아버지의 폭력에도 견디고 저항했고, 싸움을 해도 맞고만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경찰서에 다녀오는 일들도 있었다며 연구자들에게 과시적인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은 달랐다. 가해자의 완력에 저항하려 했지만 “옛날엔 힘으로 되는데” 이제는 “내가 너무 약한” 탓에 불가능했다. 성추행은 여러 차례 일어났고, “욕만 계속”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첫날의 피해는 사건 직후 가해자가 바로 사과를 했고, “남자”의 성적 충동이었을 뿐이라고 이해했지만 다음 날 다시 성추행을 하자 참아줄 수가 없었다.

사례에게 성폭력 사건 자체는 “역으로 개를 강간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다른 폭력과 구별되며 그동안의 경험들과도 다르다. “맞은 건 때리는 거로 갚아줄 수 있고”, 물리적인 아픔과 “정확한 증거”가 있지만 성폭력은 “내 속”을 모르면 알 수 없기 때문에 “물증이 없고 심증”뿐이라 불리하다. 이는 성별화된 신체의 물리적 차이에 대한 체험, 그리고 적극적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가해자 측 변호사의 의심을 통해 형성된 경험적 인식이다. 그럼에도, 다른 여성이 준강간 사건을 당했는데 증거가 없다면 “해코지”를 우려하여 신고를 못 하게 말리겠지만 자신은 “다 받아칠” 수 있으므로 “기죽을 필요 없”이 신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약한 여성과 강한 자신을 여전히 구분하고 있었다.

② 왜곡된 ‘성적 평판’ 에 대한 우려

사례가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화가 나는 것은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며 합의금 등의 상황을 이용해 주변인들에게 “꽃뱀” 이라고 자신을 “모함” 하고 다니는 것이다. 자신은 “욕먹을 짓” 을 한 적이 없고, 따라서 “내 탓” 이라는 자책감도 없다.

그런데 가해자의 소문으로 인해 모르는 사람에게서도 “걸레” 라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주변에서 “욕” 을 너무 많이 해서 친구들과도 거의 연락을 끊기면서 성폭력은 자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 가 되었다. 가해자는 협박 때문에 구속 처분 되었으나 거짓 소문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서 길을 가다가도 “아는 사람 같으면” 피해가기도 했다. 가장 무서운 상황은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다.³⁾ 또한 결혼 후 배우자가 사건을 알게 되어 “더러운 년” 이라는 살 수 없다며 이혼당하는 것도 큰 두려움이다. 그렇지 않으면 “겁나는 거 없” 다.

소문에 대한 우려는 성폭력 피해자라는 정체성보다 “꽃뱀” 이라는 오해에 대한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임이 알려져 “안쓰러운 시선” 으로 보는 것은 싫지만, “위안” 은 될 것이다. 그러나 “꽃뱀” 으로 보는 것은 모든 일을 “알아서 해결” 했던 “당당” 하고 “땃땃” 한 나를 “주눅” 들게 하는 억울한 일이다. 사례는 유흥업소에서 일했어도 ‘2차’ 를 나가지 않았던 것은 “자부심 있게 얘기” 할 수 있다며 성판매 여성과 자신을 구별 짓는다. 그러나 와전된 소문에 의해 “몸 팔고 다닌 년” 이 되어 자신이 “세상에 등 돌리게” 만들었다. 가해자의 직접적인 “해코지” 는 대응할 수 있으나 이러한 소문은 제어할 수가 없다.

이는 10대가 남자친구와의 성경험은 사랑의 결과이지만 배타적이지 않은 성경험을 많이 하는 여성은 ‘걸레’ 라는 존재로 여기며 자신 및 친구들과 구별하는 성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과 맞닿아 있다.⁴⁾ 따라서 ‘걸레’ 처럼 여겨지는 성적 평판은 또래집단에서의 비난과 추방을 예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피해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죄판결은 오해로 점철된 성적 평판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로 여겨진다.

3) 사례27은 사건 후 가해자가 집 앞으로 찾아와 싸움을 벌이며 쫓아냈던 적이 있다. 이를 건물 주민들이 보게 되었지만 “이사”를 가면 된다고 “알아도 상관없다”고 한다. 피해자가 우려하는 대상은 지역 공동체보다는 “다리 건너 다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또래집단을 가리키는 것이 더 가까운 듯하다. 이 “아는 사람”이란, 거주 지역을 비롯해 가출 후 돌아다니던 여러 지역의 관계망을 의미하므로 더 큰 범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문은 지역 사회에 대한 것보다 더 큰 두려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4) 변혜정(2010), “막연한 섹스, 변화하는 10대, 갈팡질팡하는 어른들”, 유쾌한섹슈얼리티인권센터 기획, 『10대의 섹스, 유쾌한 섹슈얼리티』, 동녘.

③ 삶의 여러 어려움들로 인한 피해 의미의 상대화

사례를 지원하는 상담기관은 치료비 지원을 통한 심리치료를 제안했지만 사례는 거절 중이다. 임신중절 수술과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적이 사건 이후 있는데, 이처럼 삶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성폭력 때문에 “우울증”이 생겼다고 “단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사건의 영향은 “분명히” 있지만, 오히려 심리적으로 가장 힘들다고 이야기되는 경험은 전 남자친구에 의해 얼굴에 상처를 입은 일과 임신중절이다.

또한 이혼한 친부가 동생의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 어머니도 특정한 일을 하지 않기에 자신은 꼭 일을 해야 하며, 10대인 동생도 탈학교하여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현재의 곤란한 가정형편이 사례의 성폭력 의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례는 “공부”를 하고 싶지만 높은 “비용”과 장시간 저소득 노동을 하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으로 인해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이런 “인생”에 “변화”가 찾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사례에게 성폭력 피해는 자신의 의사를 무시하고 친구들 앞에서 ‘성적으로’ 부적절하게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강한’ 사람으로서의 자기 인식을 무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쪽팔린” 사건으로 의미화 되는 것처럼 보인다. 사건 이후에는 형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념을 확인했으며, 가해자 측의 “꽃뱀”이라는 거짓 소문으로 인해 그동안의 성적 실천 및 노동경험에 대한 비난이 발생했다. 이러한 소문은 광범위한 또래집단 내 성적 평판으로서 사례27에게 큰 두려움으로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사례에게 성폭력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은 사건으로 비롯된 그릇된 성적 평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사건 발생 및 사후 상황, 피해에 대한 의미화의 과정, 그리고 모순적으로 얽힌 성에 대한 실천과 인식은 10대의 또래문화의 특성을 통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 현재의 경제적 곤란과 낙태 같은 다른 생애사적 사건은 현재의 “우울증”을 성폭력만으로 설명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여기도록 만든다.

이 사례는 성폭력피해로 이야기되는 수치심, 굴욕감, 치명성 등이 피해자가 속한 문화 속에서 구체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또한 당장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상황을 비롯한 여타의 사회적 조건들이 피해후유증이나 영향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식하게 한다는 점도 알 수 있다.

8. “여자임을 깨닫게 한” 피해: 성적 대상/존재되기의 위험과 가능성

데이트 성폭력 사례인 사례3은 데이트 후 귀가 길에 남자친구가 공중 화장실에서 강간을 시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건 직후 가해자인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몇 달 후에 후유증이 발생하여 학내 상담소에 신고했다. 가해자는 상담소를 통해 사례에 대한 사과문 전달과 가해자 교육을 권고받았고, 사례는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상담원교육을 받게 되었다.

사례3은 가해자인 남자친구에 대한 “배신감”이 사건에서 가장 화가 나는 점이었고 이야기한다. 가해자는 자신의 애정과 신뢰를 “뭉개버린” 것이며 자신을 “성욕 해소”를 위해 “이용”했다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인터뷰 당시에는 큰 분노를 나타내지 않았고, 자신을 너무 좋아해서 그랬다는 말을 지금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여기에는 사건 해결 과정에서 가해자가 자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느껴진’ 점, 그리고 가해자가 처분 명령을 순순히 받아들인 점 등이 영향을 주었다고 이야기한다⁵⁾. 인터뷰 도중 이러한 언급을 제외하고는 가해자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 사건 당시에 대한 감정 등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가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혼란은 가해자와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느끼는 감정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같은 남성을 만나지 않겠다거나 타인을 무조건 신뢰하지는 않겠다고 마음먹기도 한다. 그러나 사례는 성폭력 사건의 영향에 대해 타인에 대한 불신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사건 해결 이후 반 년 이상 지난 인터뷰 시점에서는 가해자와의 관계성에 대한 문제보다 성폭력 피해를 경유해 온 자신의 느낌과 생각에 더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례는 자신이 “보수적”인 교사 부모 아래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바르게 생활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으로 초기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어서는 성폭력 사건 이전에는 여자라기보다는 “그냥 사람 ○○○으로 산다”는 느낌이었고, 사건 이후로는 자신이 남성들에게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더 “충격”을 받았음을 이야기 한다. 그리고 이는 사건 당시가 “놀람의 연속”이었던 점이나 “자책감”의 지점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사례는 사건으로 인해 “이상야릇한 느낌”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자신의 태도

5) 사례3은 가해자의 사과가 실제로는 “변명”이었을 수도 있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사례에게는 가해자의 의도보다 자신에게 그렇게 “느껴”졌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사과의 진실성, 그리고 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가해자의 의도나 태도로만 결정될 수는 없으며 피해자의 의미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에 의해 “자책감” 을 느꼈다고 이야기한다. 이 “자책감” 은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 그리고 이후 성폭력상담원교육을 들으면서 “위로” 받고 나아졌다고 하지만, “자책감” 을 유발한 구체적인 경로는 피해자의 생애와 얽혀 있었다.

① 성적 쾌락에 대한 거부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시 신체 접촉에 의해 일종의 쾌감 등의 몸의 반응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반응은 자신이 심정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닌지를 의심하며 피해를 혼란스럽게 느끼거나 자책감을 갖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자 사례는 “이상야릇한 느낌” 이 들었다고 표현한다. 이는 자신이 “긍정적인 반응” 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 “죄책감” 을 불러일으켰고, ‘피해’ 에 배치되는 경험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이후 성폭력 관련 서적을 통해 이러한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고 “위로” 를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사례는 이러한 감각을 통해 “성관계” 라는 것의 “느낌” 이 무엇인지를 어렵듯이 알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의 경험은 성관계가 자신의 현재 모습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즉 성적 쾌락에 대한 “봉인해제” 의 가능성을 직감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는 “다시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지 않겠다” 는 “결심” 을 하게 만든다. 왜 사례3에게 성적 쾌락 그 자체가 “봉인”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의미화 될까?

사례는 사건 전까지 친구들과 성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대학에서 남성들이 성적 농담이나 괴롭힘을 하는 상황을 경험한 적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 한다. 성적인 것이나 성적 의사소통에 대해 “전혀 정보가 없었” 던 점은 가해자가 “편한 데 가자” 고 한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 하게 했고, 사건 당시 가해자의 행동을 “놀람의 연속” 으로 느끼게 만들었다. 그러나 사례의 생애를 살펴보면 성폭력 피해를 입거나 성적인 것에 무지하다는 점만으로 성관계에 대한 거부를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사례에게 성관계는 일차적으로 임신과 직결되는 문제로 여겨지며, 따라서 연인 사이라 해도 “기분” 이나 “감정” 에 따라서 실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례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 는다고 한 이유는, 자신이 “추구하는” “아름답고, 고귀하고, 위대한 것”, “소녀다움 같은 것” 과는 “거리” 가 먼 “부정적인 것”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구” 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터뷰 과정에서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아니다. 다만 바로 이전 연애했던 첫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남자친구는 “신성시” 되었다는 데서, 첫 만남, 첫 스킨십 등 “첫 경험” 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결혼” 을 꿈꾸었

다는 데서, 그리고 가해자인 두 번째 남자친구와의 “키스”가 “어른”이라는 느낌을 주었다는 점 등에서 성적 실천에 대한 보수적 태도를 엿볼 수가 있다. 그나마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과 성폭력상담원교육을 통해 무조건 “나쁘다”는 영역에 자리 잡고 있던 성관계는 그 실천의 의미를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관계 경험”이 없음을 의미하는 “순결에 대한 생각은 지을 수는 없”으며, 자신은 성관계를 할 생각이 없다.

② 부모와의 관계와 젠더규범의 영향력

한편, 사례에게 성관계는 성적 실천이라는 의미를 넘어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도 하다. 사례는 성관계라는, 타인에게 “감추고 숨겨야 되는” “사적인 영역”을 가지는 것이 “불편”하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떴떴”하게 지내고 싶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사례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부모를 언급한다. 사례는 부모와 “인생의 모든 것”을 “공유”하거나 “논의”하기 때문에 성관계 경험을 감추는 “불편함을 겪느니” 안 하는 게 편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부모와 “공유”할 수 없는 것은 “불편한” 일이며, 여기에는 성폭력 사건을 비롯한 모든 “성”적인 것들이 포함된다.

사례는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어린 시절 다른 형제들과 비교되며 부모, 특히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못 한다고 평가해서 자신이 “미운 오리 새끼”처럼 느껴지기도 했다고 한다. “참한 색시상”인 어머니는 “상식”에서 벗어난 것은 “틀린”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이다. 사례는 어머니가 “여자”로서 태도에 대해서도 은연중에 계속적으로 강조했다고 지적한다. 연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도 “여잔데 스킨십 먼저 하는 거”는 나쁘다고 하거나, 멀리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자 “여잔데 왜 네가 가냐”는 말을 듣고 가지 않은 일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부당하다거나 갈등을 빚는 관계로는 이야기되지 않는다. 어린 시절에 몇 번 저항도 해 봤지만, 어머니는 결국 “옳다”는 방향을 제시하므로 굳이 거스를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부모를 거스르는 일 없이 자라 왔고, 그것을 “옳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사례에게 앞서 서술한 연애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여 성적인 것에 대한 어머니의 “가치관”이 내면의 규율로 작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례의 서사에서 어머니는 자신의 “가치관”의 “유전자”를 물려준 존재로 표현된다.

③ “혼자서” 할 수 있는 “힘” 의 발견

“이상야릇한 느낌” 과 함께 “자책감” 의 또 다른 지점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이 있다. 그 전까지는 “순한” 사람이었던 가해자가 돌변하여 자신의 거부도 무시한 것은 사례에게 “진짜 너무” 놀라운 일로 이야기된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무섭고 잘 막 모르” 는 상황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무력함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으로 인해 “더 기분이 나빴” 다. 사례는 평소 가해자와의 관계에 있어 “일방적으로” 지는 관계가 아니었고, 자신이 더 “셀 때” 도 있었다고 표현한다. 이것이 사건을 통해 역전 되어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한 자신을 “부끄럽” 고 “멍청” 하다고 느끼게 만들었다. 이는 평등하다고 여겼던 1대 1 관계에서 작용한 성별 권력 관계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사례에게 자신의 평소 대응력의 문제로 분석되며, 자신을 “온실 속 화초” 처럼 살아왔다고 표현한 초기 이야기와도 연결된다. 사례3은 평소에도 타인이 “침해” , “공격” , “무시” 한 상황에 대해 “올어버리는” 것과 같은 “약한 대처” 밖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건 당시 갑자기 “초능력” 이 생긴 듯 대응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⁶⁾ 따라서 사건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 할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혼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는 “힘” 을 얻은 점을 함께 거론한다.

사례의 서사는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 및 영향, 그리고 이로 인한 성적인 것에 대한 인식을 주요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사례3에게 성폭력 사건은 성적 쾌락이라는 것의 느낌을 처음으로 예감하게 하는 사건이면서, 성관계에 대한 거부를 결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평등하다고 생각했던 관계에 성별 권력이 개입되어 있음을 체험하게 한 경험이기도 하다. 사례의 서사 속에서 성폭력 피해는 성별화되고 성애화된 존재로서의 “여성” 이라는 자기 인식을 하게 된 계기로 자리매김 된다.

사례가 사건을 위와 같이 의미화하는 것은 그동안 부모의 영향 아래에서 “바르게” 살고자 “노력” 하며 “온실 속 화초” 처럼 살아온 자기 인식과 연결되어 있다. 성폭력 사건 당시의 신체적 반응은 ‘성적인 것’ 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규범을 흔들었지만, 부모와의 강한 정서적 유대와 영향은 이러한 경험을 금기의 영역으로 밀어 넣는 것처럼

6) 이는 여성주의 진영에서 성폭력을 ‘예방’ 하기 위해서는 자기 방어훈련 등을 통해 수동적이고 규범적인 몸 경험을 적극적인 것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하는 주장과 유사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보인다. 또한 현재까지도 부모님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상황은 이를 지속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사건을 부모의 개입 없이 “혼자서” 해결했다는 자신감은 향후 사례3의 젠더 규범 및 성인식·실천에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

사례의 경우, 성폭력 피해의 의미화가 피해자 개인의 인식이나 경험 뿐 아니라 부모를 비롯한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원의 측면에서, 피해자의 내면화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타인, 특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성찰하고, 정서적 자립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9. “유독 나한테만 일어나는” 피해: 누적된 성적 침해와 젠더표현

사례21은 아르바이트 중 근무처 상사인 가해자의 강권에 의해 협력업체 직원과 외근 후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에서 언어적인 성적 괴롭힘이 이어졌고, 이후 만취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모텔에 가게 되었다가 성추행을 겪었다. 사건은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인터뷰 당시에는 정신과 진료를 받다가 약물치료를 중단한 상태였다. 사례21은 사건에 대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술을 마신 행위에 대한 자기 비난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의 피해가 가진 전형성을 드러낸다. 진술 과정에서 경찰이 동의한 성관계로 의심하기도 했는데, 모텔 CCTV 및 사건 직후에 대한 목격자 진술 등으로 가해자는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사례는 위의 사건을 통해 기관에 연계되어 인터뷰를 하게 되었으나, 인터뷰 중 여러 피해경험이 이야기 되었다. 따라서 사례의 피해는 유년 시절부터 누적된 성적 침해의 연장선상에서 읽어낼 필요가 있었다.

① 삶을 통해 누적된 성적 침해

사례21은 공연 예술⁷⁾ 관련 전공 및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유독”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성추행 이런 게 좀 많았” 다며 자신의 피해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사례21의 경험은 어린 시절 “동네 아저씨” 들의 성적 농담,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 남성 친구들에 의한 성적 농담 및 괴롭힘을 경유하여 “나한테만” 일어나는 일로 의미화되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은 자신과

7) 구체적인 분야는 사례자의 요청에 의해 밝히지 않는다.

언니에게만, 그리고 그 이후의 경우들은 다른 친구들에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성인 이후에도 자신을 “만만” 하게 보는지 “어깨동무”와 같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이어졌다. 진지하게 거부 의사를 밝혀도 중단되지 않았고, 자신은 “더 예민”해질 뿐이었다. 사례의 활동 분야는 특성 상 집단적으로 공연되며, 남성중심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에 대한 이러한 ‘치근거림’ 등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새벽”에 걸어가다가 낯선 남성에게 끌려갈 뻔한 경험을 포함하여 어린 시절부터 최근 사건까지, 여러 피해들은 “유독” 자신에게만 발생하는 피해라는 연속선상에서 이해되고 있었다.

사례는 인터뷰 초반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며 술자리 이후 밤늦게 술에 취한 가해자의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가해자를 떼어놓고 가기 위해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자신이 “그랬다고 하더라”는 방식으로 언급을 한다. 이에 대해 연구자가 되문자 성추행 사건 당시의 상황은 만취로 인해 “더듬더듬” 기억이 난다고 했고, 자신이 “맥주 한 캔” 하자고 했다는 내용은 가해자의 경찰 진술 시 주장에 따른 것이었다.⁸⁾ 피해자가 가해자를 ‘유혹’하여 사건을 유발했다는 것은 합의된 성관계를 주장하기 위한 가해자의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많은 피해자들은 이와 같은 주장을 부정한다. 그러나 사례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술자리에서의 “성적 농담”과 ‘치근거림’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에 가해자를 모텔에 “버리고” 가기 위해 “미끼”를 던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생애를 통해 누적된 성적 침해의 경험들이 “어려서부터” 남성들의 “나쁜” 성적 의도에 대한 빠른 “감”을 만들어냈다고 인식하며, 이는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재치”는 사건을 방지하지 못 했다. 따라서 사례의 “감”은, 피해 상황이라는 “결과가 될 줄 솔직히 알았을 거”면서도 술을 통제하지 못 하고 만취한 자신에 대한 “자괴감”과 “자책감”, 즉 자기비난을 강화하는 원인이 된다.

8) 물론 이는 경찰 진술 단계에서의 가해자 측 주장이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② 삶의 위기라는 “데자부” 를 불러일으키는 사건

사례는 사건 이후 공황장애가 심해지거나 몸이 마비되는 느낌이 드는 등 신체화 증상을 호소했으며, 인터뷰 당시에도 우울증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사례는 상사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스무 살의 “데자부” 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사례의 가족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부모 간 불화가 시작되었고, 10대 중반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다. “불우한 가정환경” 에서 자란 사례의 스무 살은 부모가 이혼했던, 생애에서 가장 힘든 시기로 의미화 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가 반복되는 것 같다는 서사는 사건 당시에 사례를 둘러싸고 있던 생애사적 조건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사례는 사건 당시를 “많이 힘들었던 시점” 으로 기억하며, “흔들리고 지쳐있” 는 자신을 “케어”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돈” 을 받기 위해서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연락을 유지해야만 했고, 어머니는 가게를 차렸다가 “사기” 를 당해 다달이 빚을 갚아나가야만 했다. 자신이 “가장” 이었던 상황에서 돈벌이가 안 되는 공연 예술을 하다 보니 생활고를 겪게 되었고, 같은 시기에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등 여러 상황들이 몇 개월 간격으로 “겹치” 면서 일어났다고 한다. 사건 이후에도 “공연” 을 따기 위해 “밤의 문화”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까지 밤에 일을 하게 되면서 10대 동생을 돌보고, 남자친구마저 ‘케어’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인터뷰 중에도 자신이 “한심” 하다고 하며 예술 활동을 그만 두고 “평범하게” 살았으면 하는 어머니의 요청에 대한 압박감을 호소했다. 이렇듯 자신이 “해야 됐던 일” 이 많았지만 물리적, 정서적으로 분담할 사람이나 방법이 없었다는 것은 후유증의 회복에 어려움을 겪게 했을 것이며 인터뷰 시점에서도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③ 성적 침해에 대한 방어로서의 ‘남성다운’ 연출

사례는 인터뷰 당시 짧은 머리와 험렁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성적으로 접근하는 남성들이 싫어서 “진짜 남성처럼” 하고 다니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스무 살 무렵 아는 남성 친구가 자신을 스토킹 수준으로 쫓아다닌 일이 있었는데, 이때도 ‘남성다운’ 옷차림을 했다. 시간이 지나서는 “여자가 좀” 되기도 했지만, 남성들에게 다시 “정 떨어지니까 다시 남자처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례21은 자신이 “화장” 을 하고 꾸미면 남성들이 “여자” 로 보고 추근대며 “고백” 을 해오기도 하지만, 머리카락이 짧으면 좀 덜 한 것 같다고 느낀다. 그렇지만 헤어스타일이나 복장을 ‘남자

처럼’ 하는 것은 “반 억지” 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답답” 하다. 다시 여성스럽게 꾸미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머지않아 해외에 나갈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남성들에게 “신경쓰고 싶지 않” 아서 고수하고 있었다. 이러한 의지는 또 다른 성폭력 피해에 대한 서사 속에서도 읽어낼 수 있었다.

사례는 친구, 친구의 지인과 셋이 술을 마시고 잤다가 성추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 평소에도 공연 준비 기간에 여럿이 함께 자는 일이 많아 익숙한 상황이었는 데, 친구의 지인이 자는 중 옷에 손을 넣어 추행한 것이다. 이후 가해자가 친구에게 “남동생” 에게 하는 “버릇” 이라고 변명했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사례는 자신이 “여자” 라서 잠만 잔 것뿐인데도 이런 일을 겪었다는 사실에 기분이 “더러웠” 다고 이야기한다. 같은 “인간” 인데 “가슴” 과 성기의 모양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남자들이 “매력” 을 느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한편, 사례는 자신이 “유독” 성추행을 경험한다고 느끼는 이유에는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다만 상사에 의한 성추행 경험과 성폭력 일반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할 때, 모두 “가만히 있었는데” “개” 에게 물린 것이라고 비유를 한다는 점에서 위의 사례를 포함하여 자신의 피해들을 우연한 것 혹은 예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의 서사에서 “여자” 와 “남자” 를 오가는 스타일의 연출은 원치 않는 성적 접근이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의미화 된다. 그러나 ‘남자처럼’ 꾸민 외모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락이 덜 오는 것 같지만 인과관계는 “모르겠” 다고 답하며, 그저 자신이 “눈치” 를 못 채는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이며 확신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태도는 “여자” 와 “남자” 를 오가는 연출이 원치 않는 성적 접근이나 침해를 실제적으로 방지한다고는 판단하지 않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연출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지속적인 성적 침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자신의 “여성” 이란 성별 표현에 있다는 점을 의식한 상징적인 방어 수단이라고 읽어낼 수 있다. 따라서 사례 21의 서사대로 자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다시 “여자” 로 연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례는 인터뷰를 하다 보니 다시 꾸며도 괜찮을 것 같은 마음이 든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1차 인터뷰 후에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다면서 경험을 이야기하는 데 편안한 마음이 든 다던 인터뷰 평가와 연결되며, 성폭력 경험에 대한 자신의 심리적 변화가 “여성” , “남성” 이라는 젠더 연출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했다.

사례에게 성폭력 사건의 의미는 본 연구의 인터뷰 계기가 되었던 하나의 사건뿐 아니라 생애를 통해 누적된 성적 침해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사건에 대한

장기적인 후유증은 성폭력 사건들과는 무관하게 구성된 당시의 경제적 조건과 이로 인한 압박감이 큰 영향을 미쳤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남성들에 의한 지속적인 성적 침해는 사례에게 “여자” 이기 때문에 피해로 의미화 되면서 ‘여성’이라는 정체성의 거부 혹은 방어로써의 ‘남성다움’의 연출이라는 상징적 방어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례는 본 연구에서 다른 피해 이외에도 성폭력 피해들을 경험했는데, 자신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던 것처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요인은 인터뷰 분석을 통해서도 발견해 내기가 어려웠다. 이는 피해자의 ‘남성다움’이라는 전략을 수정하고 사건을 재해석하기 위해서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터뷰를 통해서도 남자친구나 어머니, 친구들의 영향을 잘 받으며 거절을 잘 못 하는 성격이라는 점 등을 통해서 대인 관계에 취약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사례21과 같이 일상적인 성적 농담이나 괴롭힘이 지속되는 경우, 피해자의 대응력이 사건을 중단시키는데 큰 힘이 된다. 따라서 사건 전후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포함하여, 평소 타인과의 관계맺음 방식 등을 폭넓게 점검함으로써 힘기르기를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II.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각 사례들의 성폭력피해 의미화는 그 개별성과 다양함만큼이나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형화를 시도해 볼 수 있다.

먼저, 생애사적 맥락에서 성폭력피해는 ‘성적인 것’과 연관되어 규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성적인 것’과 연관이 약한 의미규정은 기존의 성폭력 담론과 반성폭력운동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 글의 전반부에서 분석한 사례 20,25,15,7,10은 성폭력을 심리적 의존성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에서의 취약성(사례20), 핵심적 사회관계/조직의 불합리함(사례15)이나 그 관계 내에서 그동안의 성취 및 피해사실을 인정받기의 실패(사례 25), 사회제도·구조의 문제(사례5)나 인간의 근원적 문제(사례7)로 의미화하면서, 미시적 수준에서 거시적 수준까지의 사회적 관계/조직/구조 문제로 피해를 위치짓고 있었다. 여기에서 피해는 성적인 것을 침해한 것으로 체험되거나 의미화되기보다는 피해의 원인이자 결과로서 사회적 관계의 취약성, 변화, 중요성을 되묻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비교해 사례5,27,3,21은 성적인 것과 연관되어 피해를 규정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의미연관은 모두 달랐으며 각 사례의 생애사적 맥락과 조건에 배

태되어 있었다. 아동기부터 친족 내에서 지속적인 중층피해를 당한 사례5에게 성폭력은 성적인 경계를 침해함으로써 생존의지와 자존감, 관계맺기의 가능성을 위협하는 피해였다. 사례27에게 성폭력은 자신에게 중요한 또래집단에서 낙인찍히고 배제되는 부정적 평판을 불러일으키는 성적 추문으로서 명예와 긍정적 자기인식을 훼손시키는 피해이다. 그에 반해 사례3에게 성폭력은 성적 대상이 되는 체험으로 다가와 그동안 억압했던 성적 존재로서의 자기됨을 묻는, 여전히 억압하려 하지만 이미 열려진 질문이 되었다. 사례21에게 성폭력은 그동안 누적된 성적 괴롭힘과 생애사적 어려움이 합쳐져 후유증이 커지고 젠더표현을 바꾸게 하는 피해였다. 사례5는 아동기 지속중층피해의 영향력, 사례27은 청소년기 또래집단 관계와 문화의 영향력, 사례3은 20대 초반 맞닥뜨리는 이성애연애 및 성적 실천의 굴곡, 사례21은 20대 중후반 대면하게 되는 남성중심적 문화 속 일상적 괴롭힘의 영향력을 짚어내게 한다는 점에서 생애과정 및 단계에 따라 나타날 수 있고 의미화될 수 있는 성적 피해의 양상을 유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던진다.

성적인 피해로 의미화되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피해 의미화는 사건 이후 스스로의 대응이나 주변의 반응, 다른 생애사적 사건이나 조건, 자기인식 및 전체 생애인식과의 ‘업힘’을 통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 ‘업힘’ 속에서 어떤 피해는 인생 전체의 무너짐으로 ‘확대’되거나 모든 생애사적 문제가 ‘폭발’ 및 ‘응축’되거나 ‘환원’되는 장소였다. 어떤 피해는 여러 생애사적 사건 속에 하나로 ‘중화’되거나 ‘축소’되어 있었다. 또한 어떤 피해는 당시 체험된 피해의 느낌이나 후유증과 ‘다르게’ 현재 의미화되어 있었다. 다른 성폭력피해나 생애사적 사건으로 인해 아직 의미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거나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피해들도 있었다.

이처럼 체험된 피해와 이야기된 피해의미의 간극, 이야기된 피해의미가 다른 생애사적 조건과 맺는 연관, 이야기된 피해가 발화되거나 인정받는/받기에 실패하는 생애사적 시간과 장소(사회적 관계와 집단)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우리는 피해자들의 피해의미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거나 공감하고 그것을 지지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성폭력피해는 단일 사건이 아니며 그 의미나 효과는 사건 자체의 특징이나 심각성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생애사적 맥락 속에 피해의 위치와 그 위치를 해석하는 개인의 서사적 작업 및 행위성을 통해 피해는 비로소 구성된다. 이 때 개인의 서사적 작업은 사회적 관계 및 조건과의 상호작용이다. 가족, 또래집단, 이성애연애관계, 직업집단과의 관계성의 정도나 내용에 따라 피해의 발생, 의미화, 후유증, 결과는 달랐다. 따라서 피해자 지원이나 개입은 피해 의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존 사회적 관계나 조건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의미화의 자원으로서 대안적인 사회적 관계나 조건을 제공

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많은 사례들에서 피해 원인이나 결과로서 취약한 심리적 상태와 무너진 사회적 관계, 불안정한 노동지위나 열악한 가정형편, 독립이나 생계에 대한 부담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원망과 기대, 의존이 많은 부분 ‘엄마’ 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또한 (주로 보수적이거나 억압적인)젠더규범과 성인식의 전달자로서 엄마의 영향력이 많이 이야기되었고, 잘못된 피해대응을 한 사람으로도 많이 지적되었다. 성폭력 의미화의 결과로 정상가족이나 바람직한 엄마역할에 대한 추구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잘못되었다는 규범적 판단보다 그렇게 구조화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관계 및 의미망의 ‘빈곤’ 을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분석과 개입이 필요하다. 엄마에 대한 원망이나 기대, 의존을 경유하는 피해의미화는 기본적인 신뢰와 보호에 대한 기대, 가정환경이나 노동조건, 열악함, 자기비난과 성폭력통념을 매개하는 젠더규범의 영향력을 핵심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이 요소들은 엄마 개인의 엄마역할을 통해 해소되거나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와 연관돼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성폭력피해를 개인에게 의미화된 사건의 내용이나 심각성 자체로 규정하는 것의 한계이다. 이 연구의 분석은 한 사례의 생애에서도 여전히 숨겨져 있거나 이제 막 드러내기 시작했거나 충분히 의미화되지 않은 피해들이 있으며 이것들이 현재의 피해의미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나친 자기비난이나 성폭력통념 수용을 낳는 데에는 숨겨지거나 충분히 의미화되지 못한 준강간 피해나 누적된 여러 성적 괴롭힘, 성매매적 경험들이 놓여있었다. 따라서 피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개입하는 것은 피해라고 (아직)이야기되지 않은 것과 이야기의 모순 및 간극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을 요청한다. 이 함의는 피해자중심주의라는 원칙이 처한 난국을 다시금 성찰하고 돌파하는 데에도 시사점을 주리라 생각된다.

생애사적 맥락에서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법중심의 규정을 넘어서 피해의미와 영향을 복합적으로 바라보게 해준다. 이 복합성은 여성의 삶의 조건 및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한다는 점에서 젠더화되어 있다. 젠더폭력으로서 성폭력피해의 의미와 효과를 전면적으로 다시 이야기할 때이다.

참고문헌

- 변혜정(2010), “막연한 섹스, 변화하는 10대, 갈팡질팡하는 어른들” , 유쾌한섹슈얼리티 인권센터 기획, 『10대의 섹스, 유쾌한 섹슈얼리티』, 동녘.
- 이희영(2005),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원칙” , 『한국사회학』 39(3), pp.120-148.
- 이희영(2006), “타자의 (재)구성과 정치사회화: 학생운동 참여자의 1990년대 생애체험에 대한 사례 연구” , 『한국사회학』 40(6), pp.226-260.
- 허은주·이은심(2008), “직장 내 성희롱 개념에서의 ‘성적 굴욕감’ , 인권당사자에게 묻다” , <직장내 성희롱 법제화 10년, 가야할 길을 묻다: 직장내 성희롱 개념, 인권 당사자에게 묻다> 포럼 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

目 录

강은영(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문 1와 발표문 2는 ‘성폭력 피해 통념’, 즉 성폭력 피해의 치명성 및 가혹성을 강조하고 피해자를 전형적 약자로 규정하는 사회적 인식은 1) 전형적인 피해자상을 형성하여 2차 피해를 유발하고, 2)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과도한 성폭력피해 두려움을 발생시켜 여성들의 행위와 관계의 제약을 가져오며, 3) 피해자의 외상후 성장을 저해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두 연구는 상담일지 분석, 피해자 대상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성폭력 피해 통념’ 으로 인한 2차 피해는 1) 준강간, 성인피해자에게서 심각하고, 2) 성폭력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직접적이고, 가장 중요한(때로는 유일한) 요인이다.

둘째, ‘성폭력 트라우마’ 는 1) 아동 및 성인 모두 면식관계의 성폭력의 경우 더욱 심각하고 2) 성기삽입 여부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셋째, ‘피해자의 자기비난’ 은 1) 사건 특성보다는 성폭력통념과 대응여부에 의해 유발되고, 2) 성폭력 트라우마를 매개한다. 또한 3) 자기비난은 주변의 부정적 피드백에 의해 증가되며, 그 결과 성폭력 트라우마 역시 강화된다.

넷째, ‘피해자의 외상후 성장’ 은 1) 피해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2) 성폭력통념을 많이 할수록, 3)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우 증가한다.

성폭력피해통념, 자기비난, 성폭력 트라우마

‘성폭력통념으로 인한 2차 피해’ 나 ‘자기비난’ 이 아동보다는 성인피해자, 비면식범보다는 면식범 관계의 성폭력피해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폭력 통념 변인(발표문 1의 <표 6>)이나 자기비난 변인(발표문 1의 <표 7>)의 구성상 면식관계나 성

인에만 해당되는 문항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다시 말해서 성폭력통념이나 자기비난이라는 개념자체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면식관계의 성폭력, 특히 준강간적 행위특성을 지닌 성폭력 피해에 초점을 둔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한 분석 결과라 보인다. 아동성폭력 피해자나 비면식범 피해자가 경험하는 2차 피해, 자기비난, 성폭력통념을 구성하는 요소와 맥락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트라우마 척도를 새롭게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적합한 척도를 개발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살만한 성과이다. 다만 자기비난(내적귀인, 자기혐오, 자기불확신)의 구성요소가 성폭력 트라우마와 부분적으로 동일한 문제를 측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연구방법상의 문제

성폭력 피해 혹은 피해자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인 사회문제와 달리 표집이나 조사방법 등의 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성폭력 피해의 구성에 대한 다각도의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몇 가지 점에서 연구방법상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발표문 1의 경우 성폭력의 유형을 아동성폭력, 비면식 강간, 직장 및 학내 성희롱, 데이트 성폭력, 가면식 관계의 성폭력(온라인 등 일회적 만남), 준강간의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화는 발표자가 주장하는 바를 논증하기에는 효율적이나, 포괄성과 배타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반화의 면에서 다소 우려가 있다. 둘째,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한계상 엄밀한 표집과정은 불가능하나, 그럼에도 심층면접이나 설문대상의 많은 수가 성폭력상담소 서비스를 받은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일부 연구 결과, 특히 성폭력상담소와 연관된 변인의 경우(발표문 2)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셋째, 설문 및 면접 모두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아동성폭력, 청소년성폭력의 경우 1차, 2차 피해를 성폭력피해 이후 시간경과 변인을 통제하기 어렵다(발표문 2). 넷째, 일부 표의 형식과 검층치의 제시방법의 통일이 필요하다(발표문 1).

여성아동폭력, 안전사업, 지역사회 범죄통제 거버넌스

발표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성폭력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그 추진력은 아동성폭력 문제에 있었으며, 친고죄 폐지나 강간 개념 확대,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안전사업의 확대 등과 같은 발전들이 가능했다. 그러나

성인피해자에 대한 인식 부족, 성폭력 피해 통념 강화, 기계적 감시에 치중된 안전사업의 추진과 같은 역효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국가정책과 대중매체의 보도관행은 성폭력을 포함한 여성폭력범죄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공적 공간에서(가정 밖에서)’, ‘모르는 사람’에 의해,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로 바라보는 인식에 기초해왔고, 그 결과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잘못된 혹은 과도한 두려움을 야기하고,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폭력 예방정책의 방향 면에서도 부분적으로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예방교육의 경우 낯선 사람에 의한 성폭력 대처를 강조하는 동시에, 이웃 등 아는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경계를 유발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유대를 약화시켜 범죄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남겼다. 또한 2010년을 전후하여 추진되고 있는 여성폭력 관련 안전정책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성희롱과 같은 여성폭력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어두운 골목길과 비면식범이라는 전형적 성폭력 이미지에 기반함으로써, CCTV의 설치, 조명강화,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설치 등 기계적 감시나 1세대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에 치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의 성폭력 트라우마와 외상후 성장에 대한 논의가 ‘아동성폭력’과 ‘지역사회 안전사업’과 대치되는 것만은 아니며, 그 해결방안과 대책을 함께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아동성폭력이 야기하는 피해문제는 한편으로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2차 피해의 문제나 성폭력 트라우마 측면을 포함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이라는 존재의 가족적, 사회적, 국가적 특수성 면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그로 인해 아동을 둘러싼 부모와 가족, 지역사회의 트라우마가 성인피해자 보다 심각하게 다루어져 왔다.

본 연구가 밝혀낸 연구결과, 아동보다는 성인의 2차 피해와 성폭력 트라우마가 크다는 사실이, 아동성폭력의 1, 2차 피해의 심각성을 논증한 선행연구 결과들과 대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본 연구는 비교아동대상 성폭력피해와 구분되는 성인대상 성폭력피해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왜곡된 성폭력 통념과 성폭력피해 통념을 감소시킴으로써 성인피해자들의 역량강화와 외상후 성장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둔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안전문제는 현 정부의 중점 정책이며, 여성안전과 아동안전은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정책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안전정책과 사업에서 여성과 아동은 잠재적 피해자로 규정되는 수동적인 존재만은 아니다. 여성은 안전정책 서비스의 수혜자이자, 서비스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서구의 경험을 비추어보면 고령화 사회의

진행으로 여성노인의 안전사업 참여는 우리 사회에서도 실천가능한 정책적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여성이 참여하여 진행되는 안전사업은 사회문화적 인식전환, 지역사회 유대강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범죄예방을 공공적인 목표로 추진되어야 하며, CCTV나 조명, 비상벨 기계적 감시는 부수적인 구성요소로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전개되는 글로컬리즘(Glocalism)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곧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직결되고,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 때 지방정부의 경쟁력의 핵심 요소는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자치, 즉 지역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이다. 이러한 지역 거버넌스는 범죄예방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함의점을 가지는데, ‘폭력과 범죄로부터의 안전’ 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sustainable) 지역공동체’ 를 이룩하기 위한 최선의 해결방안은 ‘지역사회 중심’ 의 범죄예방전략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 범죄예방전략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에 의지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 범죄피해자들에게 개인단위 혹은 가구단위의 범죄예방활동 책임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출발점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사회 단위의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다각도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지역범죄통제 거버넌스’ 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 의 핵심요소는 ‘지역주민 참여(residents’ participation)’ , ‘지역사회의 책임감(residents’ responsibility)’ , ‘지역사회 유대 강화’ , ‘파트너십’ 등이라 할 수 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부터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CCTV 등 기계적 감시나 물리적 측면의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역사회의 유대, 응집력, 의사소통, 집합효율성, 비공식적 사회통제 등 사회문화적, 경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내의 범죄에 대한 통제력(비공식적 사회통제)은 지역주민간의 유대와 지역사회 조직에의 참여를 통해 증대되며, 이 때 여성 개인과 여성관련단체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지역주민 한명 한명이 움직이는 CCTV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에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는 여성이 없는지,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장애여성이 없는지, 여성대상 범죄에 취약한 장소는 어디인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예방뿐 아니라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생태학적 모델과 성폭력 통념의 변화

발표문 2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생태학 모델(social-ecological model)은 폭력행위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이기도 하지만 폭력 예방을 설명하는 모델이기도 하다. 이 이론에서는 폭력행위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각 요인들은 개인, 관계, 지역사회, 사회의 각 차원에서 찾을 수 있으며,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규범, 사회환경, 문화 등 사회적 수준의 변화와 개인 행위의 변화 양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같은 메커니즘은 성폭력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5개의 체계 중에서 성폭력 통념 및 성폭력 피해 통념을 형성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것은 주로 외부 체계(exosystem)와 거시 체계(macrosystem)에 해당된다. 중요한 점은 개인을 변화시키는 여러 체계들 역시 항상 상호작용과정에 있으며 변화한다는 것이다. 즉 외부체계와 거시체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미시체계(microsystem)나 중간 체계(mesosystem) 등 다른 체계들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변화가능하고 그 결과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5개의 체계 중 한 체계의 변화가 다른 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결국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 성폭력관련 NGO의 활동, 오늘 포럼과 같은 인식전환을 위한 자리가 우리 사회의 성폭력 피해통념과 2차 피해를 줄이고, 피해자들의 외상후 성장을 증진시키는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김홍미리/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1. 다급하고 절실했던 연구

지난 2월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들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직후 ‘착취와 강요 없는’ 개인의 성행위에 국가개입이 정당한지에 대한 성매매 방지법 위헌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애초 ‘정조’와 성폭력의 연결을 끊고 성폭력 개념의 확장을 도모하고자 사용했던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말은 우려했던 대로 자유주의적 ‘개인’을 상징하며 맥락없이 소비되어 간다.¹⁾ 성적계약에 의존한 세계에서 여성이 ‘개인’으로 존재할 수 없다(페이트만, 2001:307)는 페미니즘 논의는 개인을 집단화 하는데 우려를 표하는 후기구조주의 논의에서 설득력을 잃어간다. 물론 현실에서도 피해의 언어는 단일한 방식으로 수렴되지 않는다. 봉착해 있는 문제는 반여성폭력 운동에서 ‘단일한 피해’란 없다고 꾸준히 이야기해왔지만 사실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다는 데에 있다. 이걸 피해를 의심받는 슬픈 상황들은 어떤 피해들의 의도적인 생략을 요청하기도 했고, 제 각각 갈래지어온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논의를 어떻게 꿰어야 할지 질문(만)하느라 서로를 엮는 일을 소홀히 한 탓이기도 하다. 나는 후자의 문제가 피해의 맥락을 충분히 드러낼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로 이해한다. 제도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삶의 경로에서는 분리될 수 없는 경험들을 제각기 분리시켰을 때 피해의 맥락은 끊어질 수밖에 없다. 맥락이 사라질 때, 피해의 다양성이 아니라 피해의 역동성, 피해의 좌충우돌이 말되기 어렵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 머물다 어디로 이행하는지에 대한 관찰조차 어렵다.

이런 문제의식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을 거라 추측한다. 지난해 5월 한국여성학회는 [피해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열었다. 활동가·연구자 공동 교육협력 세미나인

1) 자유주의적 법-권리 담론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는 신상숙(2000:30-33) 참고.

이 자리에는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단체 및 기관의 활동가가 패널로 초대됐다. 기획 의도도 그리고 나의 기대도 이 자리에서 성폭/가폭/성매매가 현장의 경험을 통해 연결될 수 있겠다는 것이었다. 2011년 여성회의에서도 성폭/가폭 피해자 전형이 [폭력분과] 공동의 문제의식이었던 만큼 이제는 피해자 전형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라도 서로를 연결하고 싶어 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기대는 깨졌다. 성매매는 ‘창녀와 피해자’의 이분법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를, 성폭력은 여전히 ‘순수한’ 피해자 대한 질문과 전형성을 깨는 작업들에 대해서, 가정폭력은 피해자 전형보다 일단 ‘가정문제’를 넘어야 한다는 것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각 ‘분야’가 되어 쟁점도 이슈도 다를 것처럼 보여도 그것들은 연결되어야만 했다.

이 연구가 특별한 이유는 제도적 구획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로 인위적인 가르마를 탔던 피해 경험이 생애과정에서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당연한 사실을 내보이기 때문이다. 여자-몸으로 인식되는 누군가에게 가해지는 성적 시도들은 집안/밖이라는 경계를 초월하며, 돈을 주고받는다 해서 의미가 (성폭력에서 성매매로) 돌변하지 않는다. 다만 집안밖이나 거래여부는 이들이 ‘무엇을 얼마큼’ 피해로 말해야할지를 경합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결합한다. 생애사적 맥락에서 살펴본 이번 연구는 이러한 경로를 담담히 풀어내며 서로의 이행과 해석에 영향을 주고받는 ‘엄함’의 관계를 우리에게 들려준다. 그리고 이런 엄함을 이야기할 때 ‘피해는 단일하지 않다’는 외침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을 수 있다. 폭력은 사건이 아니라 삶이라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특별함과 중대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성/폭력 피해가 어떻게 피해가 되는지, 어디서 어떻게 왜 그 피해의 의미가 경합하고/조정되며/이동하는지, 피해를 피해아닌 것으로 만들려면(적어도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묻고 답하는 일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젠더폭력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는 물론 실천운동의 새로운 길찾기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 그런 촉발을 기대하며 몇 가지 고민을 적어보고자 한다.

2.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경계

3장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만드는 피해의 의미>는 ‘여성의 삶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중층 피해 경험이 어떻게 상호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다룬다. 이 글을 통해 ‘무성적’일 것만 같은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가족주의는 성/폭력 피해의 의미구성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며 ‘친밀함’은 성/폭력의 상황에서 비빌 언덕이 되어주기 보다는

트라우마의 발전소가 되어준다는 걸 알아간다.

이런 연구의 분명한 의의와는 별개로 나는 여기에서 통용되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범주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다. “맞고는 살 수 있지만 이거는 아니다” 라는 <사례16>의 엄마가 구분대로 통상 성폭력은 가정 안이나 밖이냐가 아니라 성적인 것과 성적이지 않은 것의 경계로 구분된다. <표13> 인터뷰이 정보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자도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경계는 ‘성적인 접촉’ 이라 예상되는 행위와 아닌 것으로 세워진다. 이러한 기준은 이 글 분석의 토대를 이루어 가정폭력이 어떻게 성폭력 의미구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를 구조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문제는 이런 틀이 너무 정돈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정돈은 피해자 엄마를 ‘엄마’의 자리에 남겨두거나, 성폭력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기를 만들어 낸 원인으로 재차 ‘가정폭력’을 지목한다. 우리가 빠지는 함정은 가정폭력은 폭력이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가정’에 집착한다는 거다.

연구자의 지적대로 “많은 사례들이 자신의 어린 시절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자존감 저하, 타인의 눈치를 보며 주도적인 의사표현법을 배워오지 못한 결과라는 방식의 자기 이해를 선택” 한다. 이것은 가족이 사회시스템의 하나로 움직여야하며 수행해야할 기능이 있다고 여기는 구조기능주의식 사고에 기반해 있다. 의사소통법을 배우지 못했고, 감정표현이 서투르며, 자존감을 기르지 못했고,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책임을 가족에게 넘기는 방식은 결국 분명한 공사이분법의 체계를 가정한다. 이것은 이 글에서 가정폭력이 성폭력 피해의 의미구성에 미치는 영향의 일관된 기초이기도 하다. 본의 아니게 어떠한 상황에서든 가족 돌봄의 책임자이기를 기대 받는 엄마에 대한 특별한 감정들이(원망, 기대, 애착, 책임감, 불신, 양가감정) 피해의 의미구성 과정에서 꾸준히 등장하는 건 그래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실 엄마는 가족구성원이기는 하지만 공적영역으로 불려와 호명할 때 그 이름만큼 억압된 사회적 약자도 없다. 피해자들이 가정폭력 피해를 ‘수행하는’ 사이 익혔다는 무기력한 대응양식도 실은 가정 밖 폭력세계에서 익힌 것들과 구분하기 어렵다. 그래도 굳이 가정 내 폭력을 원인으로 지목하자면 가정보다는 ‘폭력, 고통, 억박지르기’가 원인인 거다.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글에서는 엄마이지만 다른 보고서에서는 피해자일 수 있는 이 위치에 대해서다. 구체적인 개인과 구체적인 상황을 명시하지 않고 가정폭력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 엄마는 ‘역할’로 남고 폭력은 가정의 문제로 환원되어 가족의 기능/가족의 윤리 이상의 것을 말하기가 난감해진다. 연구자의 의도대로 이 글은 가

정폭력과 성폭력의 상호영향을 보여주지만 가정폭력을 다시 가정의 문제로 남겨두어서 가정폭력의 탈출구를 함께 열지 못한다. 심지어 가정폭력을 ‘가정사’에 가두는데 기여한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함께’ 설명하는 일은 쉽지 않다. ‘가정폭력’ 대신 구체적 개인과 구체적 상황을 따져 물어 ‘가정’의 범주를 해체해야하지만, 동시에 이데올로기로서 피해자에게 실재하는 ‘가족’을 짊어져야 한다. 가족은 안식처라는 기대와 세상에서 처음 맞는 애착은 혈연가족구성원이어야 한다는 가족 규범은 불안한 피해자에게 그러한 정상성(normality)에 대한 열망을 키우거나 체념과 외면, ‘그래도 희망’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현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함께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이 둘 앞에 놓아 둔 경계를 해체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동생을 내내 ‘노렸던’ <사례22>의 예에서 ‘오빠의 폭력’과 ‘오빠가 키스’, ‘오빠가 만짐’은 성적이지 않은 것과 성적인 것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가정폭력 피해로 범주화된 아버지의 엄마 폭력도 ‘성적이지 않은’ 폭력이기는 쉽지 않다. 이 연구에서 증명했듯이 강간/준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가해자는 아버지, 삼촌, 엄마애인, 대학선배, 채팅남, 성매매 업주, 의붓아빠, 둘째-셋째 오빠, 할아버지, 고향오빠, 낯선아저씨 등 사실상 누구나다. 이런 ‘성적인’ 폭력에 ‘성적이지 않은’ 폭력은 거의 대부분 동반된다(대체 무엇이 성적이지 않은 폭력이란 말인가!).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만드는 성폭력 피해의 의미’는 그래서, ‘가부장적 가족주의가 만드는 성폭력 피해의 의미구성’으로 변태할 수 있겠다. 그 틈 사이로 더 많은 쟁점들이 비집고 올라올 거라 기대한다.

3. 피해를 조정하기 : 피해를 구성하는 의미망 바꾸기

4장 <생애사적 맥락에서 분석한 성폭력 피해의 의미화>에서는 자신의 피해 경험을 말하는 피해자들의 그야말로 ‘다양한’ 구술을 볼 수 있는데다가 체험된 성폭력과 이야기된 성폭력의 의미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를 쫓는 연구자들의 시선이 흥미로웠다.

장기간의 성매매 경험 때문인지 성폭력 피해에 대한 해석을 멈춘 <사례10>의 가해자에 대한 낮은 분노(그 불명확한 분노에 비해 ‘요즘 영악한 젊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묘사는 얼마나 상세한가),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성폭력을 일삼는 ‘쇼킹’한 생애를 살아내기 위해 <사례5>가 선택한 ‘평범한 가족’ 연출과 그것을 들켰을 때의 상처와

부끄러움(관찰자 입장에서 이 들킴은 얼마나 다행인가), 다양한 성적실천을 하면서도 성 판매여성과 자신을 구분지으며 또래 안에서 걸레나 꽃땀이 되지 않기를, ‘쪽팔리지’ 않기 위해 애쓰는 <사례27>, 데이트 폭력에서 이상야릇한 느낌을 느낀 것에 대해 ‘자책감’ 을 갖는 <사례3>이 가해자인 남자친구가 시키는 대로 한 자신을 ‘부끄럽고 멍청’ 하다고 느꼈다는 그 마음, 혼한 성적 괴롭힘들을 유독 자신에게만 발생하는 피해라고 느끼는 <사례21>이 안전한 느낌을 갖기 위해서 ‘남성다움’ 을 연출하는 수행까지, 피해의 언어는 살얼음판 위를 걸듯 아슬아슬 줄타기하는 여성 몸의 소리를 그래도 들려준다. 끊임없이 안전지대를 찾으려하지만 생의 전 과정에서 섹슈얼리티 안전지대는 만날 수 없고 잠깐의 안전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협상들은 그것을 표현할 언어를 아직 만들지 못했다(안전지대로 향하는 길에 빈번히 등장하는 감정은 수치, 자책, 부끄러움, 쪽팔림이라는 걸 눈여겨보자). ‘그런 가족’, ‘그런 여자’, ‘그런 느낌’ 과 나를 끊임없는 구분지으면서까지 피하고 싶은 지되는 이미 내 몸과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내’ 가 그러한 몸을 가졌다는 것을 피할 길이 없다는 지점이 아니다. 연구자들이 지적했듯이 중요한건 성폭력이라는 피해가 하나의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의 위치를 해석해내는 주체의 ‘사회적 관계 및 조건의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 가 만들어지고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이걸 ‘성폭력을 경험할 수 있는 몸’ 을 그렇지 않은 몸으로 바꾸거나 강력히 저항하는 언설로 다시 피해자 책임을 환원하는 방법이 아닌, 피해자가 아닌 사회로/관계로 시선을 이동시킨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기가 무기가 아니게 되는 방법, 피해를 피해가 아니게 하는 방법을 고안할 수 있다. 피해를 ‘피해’ 이도록 하는 사회적 의미망을 바꿈으로써 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무화의 방식인 거다.

지난 주 한 교실에서 나는 2012년 캐나다를 떠들썩하게 했던 아만다 토드²⁾의 사례를 공유하고 가해자가 무기로 사용했던 한 장의 사진- 죽음의 시작이 된 토드의 가슴사진 한 장이 어떻게 무기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십여분동안 시끌벅적한 수다가 이어지던 중에 어떤 분의 제안에 강의실 전체가 호탕해졌다. 그 분은 ‘마을사람 모두 다 가슴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토드의 가슴사진이 별 것 아닌 게 될 수 있다고 했다.³⁾

2) 중학교 1학년 SNS를 통해 만난 가해자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아만다 토드는 가해자에게 보낸 가슴사진이 학교에 뿌려지면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한다. 가해자의 위협이 멈추지 않았고 옮긴 학교에서도 따돌림은 계속됐다. 마지막으로 유튜브에 도움을 호소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리지만 손을 잡아주는 이는 없었다. 아만다 토드의 유튜브 영상은 아래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CvGEI2VQkgc>

의미망을 바꾸는 일은 피해의 감정을 바꾸는 일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감정이라 지목되는 자책, 수치 등은 반드시 피해자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례2>가 그렇듯이 자책감은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내면화하고 ‘그 사건 자체를 수치’로 이해할 때 가능한 감정이며 수치심 역시 성폭력 사건 당시의 감정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것을 알려야 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다. 즉 수치심은 ‘목적’을 필요로 한다. 물론 <사례2>처럼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라도 주체가 스스로 타자의 상상된 관점을 만들어낸다면, 그래서 나의 행동이 어떻게 보여질지 상상하면서 나쁜 느낌을 자신에게 이동시킨다면(Ahmed, 2004:105) 물리적인 ‘목적’ 없이도 수치심은 구성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을 대상화하지 않고 스스로를 성폭력 통념의 대상으로 물화하지 않는 한, 수치는 피해자의 필연적인 감정이 될 수 없다.⁴⁾

같은 맥락에서 작년 10월 민우회 성폭력상담소(2014)가 던진 “성폭력 피해를 구성하는 ‘성적수치심’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물음은 의미심장하다. ‘수치심은 성폭력 피해를 설명하는 하나의 언어일 수는 있지만 성적수치심이 성폭력 피해를 대표하는 감정으로 등치될 수 없’고, 이것은 ‘성폭력이 수치스럽다는 통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문장에서 우리는 잠시 머물러야 한다. 왜 피해의 서사에 수치가 빈번한지, 수치로 서사를 표현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왜 안전감을 주는지, 그 안전한 위치는 성폭력 담론을 만드는 일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3) 이분은 런던에서 있었던 ‘모유수유 시위’를 예로 들었다. 호텔에서 모유 수유를 하던 여성의 가슴을 냅킨으로 가리는 것에서 촉발된 영국 엄마들의 모유수유 시위 관련해서는 아래 기사 참조.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208601026>

4) 사실, 성폭력 피해 상황의 그 순간에 느끼는 감정은 수치심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분노이기도 하고, 공포나 당황에 더 가까울 수 있다.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도리어 성폭력 피해의 순간이 아니라 피해 경험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 때, 사회로 내보내야 할 때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 상황이 아니라 전달하는 순간에, 사회적으로 의미화될 때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여전히 사회가 성(섹슈얼리티)의 문제를 음성적이고 부끄러운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의 연장으로 ‘성’폭력 조차 편견과 잘못된 통념이 작동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더불어 성적수치심이라는 감정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한국여성민우회, 2014:8).

참고문헌

- 신상숙(2001),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여성과 사회 제13호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2014), [2014 기획포럼] 성폭력 피해를 구성하는 '성적수치심' 이대로 괜찮은가?
- 케를 페이트만, 2001, 남과여 은폐된 성적계약, 이음, 이충훈 외 옮김
- Sara Ahmed, 2004,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Edinburgh University Press
- <https://www.youtube.com/watch?v=CvGEI2VQkgc>
-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208601026>

부록 - 설문지

**우리가 말하는 피해자란 없다:
성폭력 통념 비판과 피해 의미의 재구성**

2015년 4월 23일 인쇄 및 발행

발행인: 권인숙 · 이미경

발행처: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편집: 정운

주소: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5-9 2층

전화: 02-338-2829

이메일: research@sisters.or.kr

홈페이지: www.sisters.or.kr